

박사학위논문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파 와 나 펫 프 라 이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 연구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Literature for Thai Learners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파 와 나 펫 프 라 이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 연구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Literature for Thai Learners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파 와 나 펫 프 라 이

파와나 펫프라이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 성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파 와 나 펫 프 라 이

이 논문은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수준 및 영역별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중심의 문학 작품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한 것이다. 한국 문학에는 한국 사람의 삶, 인생, 사회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하면 비로소 문학 작품에 반영된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태국과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시아권이라는 공통적 속성과 근대 이전 시기 문학 향유 및 향유 방식이 유사한 공통분모를 지닌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가 바라보는 한국 문학에 관한 관심과 학습 목적은 다른 외국인과 출발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은 각 시대의 사회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큰 거울이다. 특히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남긴 시인이나 작가를 통해 인류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사람들의 사회와 그들의 생활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시대별로 대표되는 작품 속 문학 내용을 외국인이 접하게 되면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 현재의 한

국 사회와 문화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한국어를 흥미롭게 배우게 될 것이다.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은 언어 학습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실제 태국에서 학습하는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은 언어 학습 도구로써 도움이 되었다. 특히,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학 학습을 통해 감성 지식의 확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태국인 교수들에게 한국 문학 학습 방안은 큰 자산이기도 한다.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 기록과 한국 사람의 사회와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인의 삶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문학과 감정, 인간 본성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기본적으로 한국어 어휘, 문법, 표현, 문화를 익힐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한국 문학 작품의 배경, 인물의 성격, 내용의 갈등 등에 대한 학습 지도 방안을 설계하였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할 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활동으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한다. 한국 문학을 바탕으로 언어 영역, 문화 학습을 구성하고, 문학 능력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 문학을 학습하기 전에 문학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 문학 작품에 따라 언어를 학습할 때는 어휘, 문법과 표현을 익히고 문학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의 사건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문학 작품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할 때 실제 수업은 세 단계로 구성한다. 첫 번째는 학습자에게 문학 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한 언어 학습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나온 중요 메시지이나 핵심 어휘, 문법과 표현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가 이미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작품의 내용을 미리 추측할 수 있으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문학 작품 접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태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학습자가 이해-심화를 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나 시인의 기본 배경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의 배경을 알면 작품을 분석할 때 더 공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배경, 인물의 성격, 작품의 갈등 그리고 작품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문학에 관한 학습을 진행할 것이다.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기본적 읽기 학습을 할 때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 영역에 따라서 학습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역별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으로 진행된다면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문학 작품들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한국 문화 이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한국 사람의 생활, 한국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한국과 태국 문화를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한국 문학, 작품 선정, 한국어 교육, 한국인의 정서, 문화적 가치, 학습 방안, 인간 본성, 한국 사회, 한국의 생활과 문화, 문학 작품 교육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2 연구사 검토와 문제제기	4
1.2.1 연구사 검토	4
1.2.2 문제제기	10
1.3 연구의 방법	11
II. 태국 내 한국 문학 교육 현황과 학습자 요구 분석	13
2.1 태국 내 한국 문학의 교육 현황	13
2.2 태국 내 대학의 한국어 커리큘럼	15
2.3 태국 내 대학의 한국 문학의 교육 현황	20
2.4 태국 내 문학 작품 학습 현황	23
2.5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학 학습 요구 분석	25
III. 한국 문학 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기준과 선정 사례	41
3.1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학 작품 선정 기준 논의	41
3.2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사례	49
3.2.1 한국어 강사 추천 작품	55
3.2.2 한국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	60
3.2.3 선정된 작품의 선정 이유	67
IV.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원리.....	73
4.1 언어 자료로서의 교수-학습 원리	77
4.1.1 어휘 학습	77
4.1.2 문법 학습	78

4.1.3 표현 학습	80
4.2 문학 활동 자료로서의 교수-학습 원리	81
4.3 문화 자료로서의 교수-학습 원리	82
V.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사례	85
5.1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목표 설정	86
5.2 설화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89
5.2.1 학습목표에 따른 「주몽신화」의 텍스트 분석.....	89
5.2.2 「주몽신화」의 교수-학습 사례	97
5.3 소설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107
5.3.1 학습목표에 따른 「수난이대」의 텍스트 분석	107
5.3.2 『수난이대』의 교수-학습 사례	117
5.4 시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130
5.4.1 학습목표에 따른 「님의 침묵」의 텍스트 분석	130
5.4.2 「님의 침묵」의 교수-학습 사례	135
5.5 희곡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145
5.5.1 학습목표에 따른 「태양을 향하여」의 텍스트 분석	145
5.5.2 「태양을 향하여」의 교수-학습 사례	154
5.6 수필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170
5.6.1 학습목표에 따른 「구두」의 텍스트 분석	170
5.6.2 「구두」의 교수-학습 사례	176
VI. 결 론.....	188
참 고 문 헌	192
부 록	205
ABSTRACT	211

표 목 차

[표 1] 태국 내 대학 한국어/한국어 교육/한국학 현황	15
[표 2]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	16
[표 3] 나레쑤안 대학교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	17
[표 4]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	19
[표 5] 태국 내 한국 문학의 교육 현황	21
[표 6] 태국 내 대학교 한국 문학 작품 학습 현황	25
[표 7] 설문 조사 항목	26
[표 8] 한국어 학습 경험, 나이 성별	27
[표 9] 한국 문학 학습 경험	29
[표 10] 한-태 이유 표현 비교	31
[표 11] 작품 선정 기준	46
[표 12] 등급별 문학 텍스트	48
[표 13]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장르 선정 제안	54
[표 14]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 모형	55
[표 15] 한국어 강사 추천 작품	59
[표 16] 국어 교과서 수록 문학 작품	64
[표 17]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을 선정 기준 제안	66
[표 18] 장르별 문학 작품 선정	67
[표 19] 문학 작품 통해 문법 학습 모형	80
[표 20] 작품 통해 한-태 문화 비교	84
[표 21]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단계 등급별 문화 영역의 목표 기술...	89
[표 22] 「주몽신화」의 정리	102
[표 23] 『수난시대』 인물의 성격	125
[표 24] 한-태 문화 비교	130

그 립 목 차

[그림 1] 한국어 학습 목적	28
[그림 2] 한국 문학 작품 학습 어려운 점	30
[그림 3] 한국 문학 학습 필요성	33
[그림 4] 학습 희망 한국어 문학 장르	34
[그림 5] 학습 희망 한국 문학 작품의 주제 및 내용	37
[그림 6] 효과적인 한국 문학 수업 방식	39
[그림 7] 태국인 학습자의 학습 희망 어울리는 문학 작품 장르와 내용	51
[그림 8]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통합 형식	76
[그림 9]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 모형	77
[그림 10] 일반적 문법 학습 모형	79
[그림 11] 문화 학습 모형	83
[그림 12] 『수난이대』 mind map의 내용 확인	126
[그림 13] 『수난이대』의 인물 갈등 구조	127
[그림 14] 「태양을 향하여」 인물의 갈등	163
[그림 15] 「태양을 향하여」 내용 확인	164
[그림 16] 구두 뒤축 징	184

I.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문법, 어휘, 표현, 문학, 문화, 언어 기능들을 고려한 한국어 통합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¹⁾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배우면 한국어의 뿌리와 한국 사회의 배경, 한국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한국어 학습활동도 할 수 있다. 학습 활동을 많이 진행할수록 한국어 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문학 작품속의 고급 어휘나 표현을 잘 알게 되어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나 직장에 다닐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 민음을 알게 되면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 학습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문학이다. 그래서 한국어 과정이 있는 태국의 모든 대학교들은 한국어 교육 과정 안에 한국 문학에 관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²⁾ 그러나 기존의 커리큘럼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태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능력 중급이상의 수준이 되면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된다.³⁾ 태국에서 이용하는 교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급 단계에서 「단군신화」는 서강대 한국어, 서울대와 경희대 한국

1)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p.73에 따르면 영어 등 외국어교육은 물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2) II장에서 태국 내 한국 문학 교육 현황 자료를 제시하였다.

3) 태국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 과정 중 읽기 학습 시간에 문학 작품을 배우고 있다.

어 교재들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운 경험이 있지만 교수-학습 방안은 아직도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도 아직 없다.⁵⁾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의 교수-학습 방안과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태국인 학습자들은 태국에서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실 밖에서 한국어를 이용하지 않고 모국어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태국인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인과 대화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문화까지도 알게 되어 한국어 공부를 더 흥미롭게 할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어 공부하는 목적을 보면 다양하고 한국어 수준에 따라 공부하는 목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 고급 수준 학습자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능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최근 발표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과정⁶⁾에 따르면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을 다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태국인 학습자는 자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얻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수업 시간에 따라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을 활용하여 한국어 습득을 하면서 한국어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소식도 여러 가지 알게 되어서 학습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태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 교재나 한국어교육 자료, 학습 방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내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

4) Jiraporn Janjula.(2003).“태국에서의 한국 문학교육에 대해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 335-345

5) 한국에 논문 검색 사이트(<http://www.riss.kr>)에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 연구를 검색해 본 결과, 관련 논문이 없었다.

6) 2018년 9월 한국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으로 태국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교재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출판되어 있는 교재이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재가 아직도 없다. 그러므로 태국 내 한국어 교육 학습자의 특징과 한국어 학습 목표를 살펴 그것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급 수준부터 어렵지 않은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문학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문학 교육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학 교육을 위한 교육 방안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문학 작품에 따라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방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ESL/EFL 교육에서 문학을 사용하면 3가지의 유익한 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문학 교재는 특정 효과를 위해 언어를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학은 학습자들에게 자세한 사항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문장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L2교실에서 문학을 핵심내용으로 사용하려면 4가지의 기법을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문화끼리 접촉할 때 영어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에 문학 원물들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자각심을 키워줌에 있어서 귀중하다.⁷⁾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나 한국 전통에 대해 더 다양한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태국의 학습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문학 교육을 학습한 경험이 있으므로 문학 장르나 문학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학의 장르는 두 국가 모두 같지만 내용이나 민담이 한국과 태국은 다르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더 깊게 이해할 것이다. 특히 태국과 한국은 문화 차이가 크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과 태국은 왕이 통솔하여 문학의 뿌리는 왕궁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태국은 현재까

7) Sandra Lee McKay.(2004). 『교사를 위한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경문사, p.325

지 왕정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이미지가 한국 사람과 다를 수 있다. 태국 사람에게 왕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늘에 있는 신과 같이 존경하며 믿는다.

또한 소설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도 나타난다. 공통점으로는 외부 종교가 유입되기 전에 민간신앙으로 혼이나 귀신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현대 태국 사람들은 불교를 많이 믿어서 소설이나 이야기들이 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불교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대표 동물도 다르다. 태국 사람은 코끼리를 가장 소중한 동물이라고 믿는다. 옛날에 태국 사람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전쟁터로 향했다. 역사적으로 왕은 코끼리를 타고 전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태국 소설이나 시의 내용에서 코끼리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현대 태국 교육부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태국 소설이나 태국 시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교육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태국 국민들과 왕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사람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곰을 국가 대표 동물이라고 하여 한국과 태국의 문학과 문화가 다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언어, 문학, 문화 교육 방안을 구성하면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국 문학, 한국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은 물론 학습자들의 흥미도 이끌어 낼 수 있다.

1.2 연구사 검토와 문제제기

1.2.1 연구사 검토

태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은 1998년 송클라 대학교가 뿔따니 캠퍼스에 한국어과정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은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국어와 태국어에 관해 비교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태국의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현황, 한국어 발음, 한국어와 태국어

의 문법 대조 연구와 한국 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못 보았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이나 한국어 문학 작품 지도 방안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특히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은 아직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일반적인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육 방안과 연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0년 대 말에 시작되었다. 1990년대의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이 실용 및 기능 중심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 극복 방식으로 문학 교육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방법과 위계화에 대해 논의하였다.⁸⁾

본고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모형과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 순으로 논문을 검토해 보겠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윤여탁(1999)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이 갖는 의의를 언어적·문화적·문학적 측면으로 나누고 이 세 가지의 통합적인 학습 방법을 수업 예시⁹⁾를 통해 제시하였다.

윤영(1999)은 그의 연구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학교육을 할 때 구체적인 작품을 선택하는 데는 그에 따른 조건과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체를 바탕으로 하여 변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소설’ 이외에 ‘시’와 ‘수필’ 등 다른 문학 장르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자칫 주입식이 되기 쉬운 문학 수업에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학습자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¹⁰⁾

나정선(2008)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통합적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 문화적 특성, 문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언어·문학·문화 통합 중심

8) 이가원.(201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1) : 239-256

10) 윤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문학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의 소통능력, 문화 능력, 문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서 문학 작품의 한국어 교육적 효용성과 문학 작품 목록의 선정 원리를 논의한 후에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한국어 문학 교육을 위한 문학 작품 목록을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선정된 문학 작품 중에서 통합 중심 수업 방법을 위해 고급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토끼전』과 『소나기』를 선택하여 언어중심 교수-학습 방법, 문학 중심 교수-학습 방법, 문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¹¹⁾

김금숙(2014)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설문지, 면담,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학습자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일반적인 학문 목적 학습자, 한국 대학에서 국어 계열을 전공하는 유학생,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습자, 결혼이민자, 취업 목적 학습자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업 분석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유형별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실시한 수업들이 한국문학 교육의 공통 목표나 학습자 유형에 따른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황인교(2001)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문학 교육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학습 방안은 문학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가능태를 언어, 문화, 문학, 인간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문학교육을 언어 교육과 문학교육으로 나누어 교과 과정, 목표, 내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학 작품 수업에서 학습자 요구와 실재를 연결하여 언어모델, 문화모델, 인간 성장모델을 보여주어 한국어교육에서의 포괄적인 문학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¹³⁾

11)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김금숙.(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 409-434

김해옥(2005)은 문학작품을 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접목시킨 만족할만한 방안을 구체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문학작품 속의 어휘를 통한 언어와 문화의 병행적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에 기초하여 문화 내용 중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한국의 현대와 전통 주거 문화를 학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작품을 통해 한국의 주거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 안을 제시하였다.¹⁴⁾

구모아(2014)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방안이 문학 교육의 초기에는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법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차츰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문학 작품을 통한 고급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다는 방향성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신 개정되기 전의 한국어 교재에 나온 문학작품들, 그리고 학습 진행 방식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문학 작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작품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기준점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1900년 초반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작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소설, 시, 수필에서 한 작품씩 선택하여 문학 작품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서도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접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¹⁵⁾

김정우(2009)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은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의 효과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되고 한국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전형적 행동, 보편적 가치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택해 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고급 학습자로 갈수록 언어적 기준보다는 문화적 기준이 우선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한국어 교육의 문학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변인을 제시하고 학습자 수준에 따라 변인에 대해 느끼는 난이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본 연구와 같은 논의 선상에 있다.¹⁶⁾

안은희(2012)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해,

14) 김해옥.(2005). 『문학교육과 어휘교육』, 서울 : 국학자료원 , p. 95

15) 구모아.(2014).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 김정우.(2009).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6(2):1-31.

흥미 중심 문학교육의 효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고전소설 가운데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작품인 『토끼전』을 흥미 중심으로 교육하여 그에 대한 효용을 도출해 내고자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토끼전』은 판소리계 우화소설이라는 유형적 특징과 함께 조선후기의 혼란한 사회상과,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과 비판정신이 풍자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⁷⁾

권경미(2014)에는 한국문학교육의 목표로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능력 신장(언어 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문화능력, 문학 작품만의 개성적 표현을 감상할 수 있는 문학능력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인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세계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언어능력, 문화능력, 문학능력, 세계시민 함양의 문학 교육의 목표를 위해 언어 수준에 따라 교수-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 능력 등급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이 각각 ‘체험 중심 교육’, ‘리터러시 교육’,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해 네 가지의 문학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문학 텍스트 선정에 대한 연구로서 이가원(2015)은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학교육의 의의를 논하고, 기존 교재분석을 통하여 전문 교재로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문학 교재의 필요성과 문학 텍스트의 선정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였다.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문학능력과 문화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학 교육에서 활동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언어의 네 영역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¹⁹⁾

김혜영(2013)에서는 한국어 문학 교재 개발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교재 전체 단원을 설계하고 기존 교재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시와 소설의 두 단원을 실제로 설계하였다. 문학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

17) 안은희.(2012). “흥미 중심 문학교육의 활용 방안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권경미.(2014).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26(1) : 187-213

19) 이가원.(2015). 앞의 논문.

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학습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었다. 언어지식 변인과 사회문화적 배경 변인이 적절하게 포함된 한국어 문학 교재 개발 방향을 살펴보았다. 개발된 교재 안을 실제 수업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 남아있어 완결된 논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후속 연구로 기약하려 한다고 한다.²⁰⁾

Jiraporn Janjula(2003)에는 ‘태국에서의 한국 문학교육에 대해서’에는 태국에서 송클라나카린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 문학 교육의 과목,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태국 대학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제안도 제시를 하였다. 첫째 태국인을 위한 주제별, 수준별, 시기별로 문학교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둘째, 학습자의 언어수준이나 등급별에 따라 목표 선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문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및 이해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하면 좋겠다고 한다. 셋째, 다양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고 문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넷째 한국어 교사를 위한 문학지도 방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아야 교육방안도 필요하다고 한다.²¹⁾

Siwat Surakitbovorn(2017)에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현대소설 교육 방안 연구『소나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문학 작품『소나기』를 선택한 이유는 국어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고 한국 문학 장르 중에서 외국인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급인 대상자에게 언어-문학-문화 통합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²²⁾

Naritha Sukpramarn(2017)에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짚어보고, 황순원의 단편소설『소나기』를 통한 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소나기』는 작품 전체를 통해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한국 농촌의 전통적 정서로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표언

20) 김혜영.(2013).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재 개발의 방향”, 『새국어교육』, 94 : 361-388

21) Jiraporn Janjula.(2003). 앞의 연구.

22) Siwat Surakitbovorn.(2017).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현대소설 교육 방안 연구 - 『소나기』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 : 227-236

어와 한국의 문화적 측면까지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²³⁾

본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해서 보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육 방안은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독해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언어·문학·문화 통합 중심 한국어 문학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다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우면 보통 의사소통 중심으로만 학습 하게 되지만 그 나라의 배경, 사회, 인간의 측면에서도 조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문학 교육은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므로 언어 교육과 문학교육으로 나누어 교육 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요구와 실제에 연결하여 언어모델, 문화모델, 인간 성장 모델을 보여주어 한국어교육에서의 포괄적인 문학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 문학 선정 기준 및 작품 장르에 따라 작품의 등급을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검토를 통합하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및 교수-학습 방안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태국 내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을 통하여 한국어·한국 문화·한국 문학 통합적으로 한국 문화와 사회, 한국 사람의 배경을 태국과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하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언어 능력도 늘리고 한국 문학도 파악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는 한국 문학에 관한 문제도 구성되어 있다. 한국 문학에 대한 문제가 읽기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 작품 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 선정과 학습 대상자 등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문화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교수-학습 방안과 문화비교 모형도 제시하겠다.

1.2.2 문제제기

연구사를 검토해보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23) Naritha Sukpramarn.(2017).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 : 237-248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태국 내 한국 문학 교육 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목표와 과제(방향)제시,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교재개발 방안 제시, 교수-학습의 원리와 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태국에서 한국 문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태국인 학습자에 알맞은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둘째,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 학습 방법이 아직도 다양하지 않다. 태국 대학교에서 기초 단계와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각 문장을 태국어로 번역하면서 해석하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다음 단계는 학습자가 그룹별로 나눠서 작품을 읽고 교실 앞에 나와서 한국어에서 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발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은 교사가 학생에게 작품에 대해 비교나 비평을 시키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²⁴⁾

셋째,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교재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교재 개발을 해야 한다. 보통은 교사가 한국에서 출판된 작품을 선정하거나 인터넷으로 줄거리를 선택하여 학습활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넷째, 한국문학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시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문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한국 문학전공 교수의 부족 등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태국에서 한국 문학 교육 개발을 위해 한국 문학 작품, 한국 문학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작품 선정과 학습 방안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문학 작품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찾기 위해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해 태국

24) Jiraporn Janjula.(2003). 앞의 연구.

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 번째, 태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한국문학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

두 번째, 설문조사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가 원하는 한국 문학 작품의 장르, 내용 그리고 교육 방식을 알아낸다.

세 번째, 태국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수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 추천 의뢰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네 번째, 한국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국어 교과서 수록 문학 작품을 검토하여 태국인 학습자요구 조사와 가장 잘 맞는 선정 기준을 정한다.

다섯 번째, 이 기준에 따라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언어 영역(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태국 내 한국 문학 교육 현황과 학습자 요구 분석

2.1 태국 내 한국 문학 교육의 현황

이 장에서는 태국의 한국 문학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태국 내 한국어교육 현황부터 알아보겠다. 태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은 1998년 태국의 남부지방 송클라 대학교 뻏따니 캠퍼스에서 시작된 이후 점차 증가해왔다. 2008년에는 태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후 태국 기본 교육과정의 외국어 영역을 바탕으로 태국 기초 교육위원회와 한국인 전문가들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2년 태국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인 ‘한국어 교육과목의 목표와 주제 기본강좌 3년’이 제시되었다.²⁵⁾ 그 결과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 전공은 고등학교에까지, 중학교에서는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현재 태국에는 40여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총 12대학교이다. 대부분은 한국어 전공 학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웃따라뎃 랏차뵓 대학교는 한국어 교육 전공 학위 과정으로 개설 되어 있다. 그리고 쭈라롱콘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한국학 전공 석사 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²⁶⁾ 또 한국어를 부전공, 선택, 교양과목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대표적인 대학은 쭈라롱콘 대학교, 탐마삿 대학교, 치앙마이 대학교, 칸깐 대학교, 람캄행 대학교, 푸껫 랏차뵓 대학교, 코랏 랏차뵓 대학교 등을 들 수 있다. 대학교의 정규 과정과는 별도로 각 대학교에 소속된 어학센터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태국 대학교에 교원을 파견해 한국어 강의를 돕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덕분에 태국 내 한국어 교육은 많이 퍼졌다.

최근 태국 대학총장협의회와 태국교육평가원은 한국어를 대학입시 PAT (Professional & Aptitudes Test)의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25) 권현숙.(2014). “태국 중·고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홍혜련.(2015). “태국 대학교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내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했다. 2018년 2월 태국 대학입시²⁷⁾에서부터 한국어 시험이 치러졌다.

다음은 홍혜련(2015)의 자료를 참고하고 현재 상황을 추가하여 태국의 한국어 전공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겠다.²⁸⁾

번호	개설 연도	대학명	전공과정
1	1998	송클라 대학교 팻파니 캠퍼스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Pattani Campus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2	2000	부라파 대학교 Burapha University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3	2002	신라빠곤 대학교 Silpakorn University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4	2005	마하싸라감 대학교 Mahasarakham University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5	2005	시나카린위롯 대학교 Srinakharinwirot University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6	2005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 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7	2007	나레쑤안 대학교 Naresuan University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8 ²⁹⁾	2011	송클라 대학교 푸켓 캠퍼스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Phuket Campus	비즈니스한국어/학사과정
9	2013	히깐카타이 대학교 University of the Thai Chamber of Commerce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10 ³⁰⁾	2014	웃파라딧 랏차밧 대학교 Uttaradit Rajabhat University	한국어교육과정/학사과정
11	2015	차앙라이 랏차밧 대학교	한국어/학사 학위과정

27)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대학입시에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나라가 된다. 태국 대학입시에서 제2외국어 선택과목은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빨리어 등이 있다. 시험은 100문제, 3점수300점을 제시한다.

28) 홍혜련.(2015).자료에 없는 9,10,11번을 조사하여 추가하였다.

		Chiang Rai Rajabhat University	
12	2008	쭈라롱콘 대학교 Chulalongkorn University	한국학/석사 학위과정

〈표 1〉 태국 내 대학 한국어/한국어 교육/한국학 현황

2.2 태국 내 한국어 커리큘럼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 상황은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교는 한국어 전공을 2, 3학년 때 선택하지만 입학할 때 한국어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태국 교육부에 따라 한국어 전공이라면 최소 133학점으로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의 한국어전공 커리큘럼을 보면 총 133학점으로 구성하고 일반교양 과목 30학점, 전공 필수 과목 57학점, 전공 선택 과목 33, 실습 7학점, 그리고 자유 선택과목 최소 6학점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태국에서 1학기는 15-16주로 진행한다. 다음에 치앙마이 랏차밧대, 나레쑤안대와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한국어전공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학년	교과목 유형		과목명	학점
1	1학기	일반 교양 과목		9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1	3
			듣기 말하기 1	3
			한국사회 및 문화	3
	2학기	일반 교양 과목		9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2	3
			듣기 말하기 2	3
			한국어 발음	3
2	1학기	일반 교양 과목		6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3	3

29) 송클라 대학교는 푸껫 캠퍼스는 비즈니스와 관광학과로 개설된 캠퍼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한국어로 개설되었다.

30) 태국 내 최초 한국어교육과정학위로 개설되었다.

3			듣기 말하기 3	3
			읽기 1	3
			쓰기 1	3
				18
	2학기	일반 교양 과목		6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4	3
			듣기 말하기 4	3
			읽기 2	3
			쓰기 2	3
				18
	1학기	자유 선택 과목		6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5	3
		한국어 전공 선택 과목	한국어 관광 1	3
			읽기 3	3
			쓰기 3	3
			한자	3
				21
	2학기	자유 선택 과목		6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6	3
		한국어 전공 선택 과목	한국 문학작품과 단편소설	3
			한국어 관광 2	3
			비즈니스 한국어	3
			번역	3
				21
4	1학기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세미나한국어	3
			한국어 실습준비	1
		한국어 전공 선택 과목	한국어 호텔	3
			통역	3
			한국노래와 드라마	3
				13
	2학기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실습	6

〈표 2〉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

학년		교과목 유형	과목명	학점
1	1학기	일반 교양 과목		9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1	3
			한국어 발음	3

2	2학기	한국사회 및 문화		3
				18
		일반 교양 과목		13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2	3
			한국어 대화1	3
			19	
	1학기	일반 교양 과목		12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3	3
			한국어 대화2	3
			기본 한국 문학	3
		2학기	일반 교양 과목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4	3
			한국어 대화 3	3
부전공			6	
			22	

3	1학기	자유 선택 과목		4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5	3
			한국어 대화4	3
			읽기 1	3
			쓰기 1	3
			부전공	
				22
	2학기	자유 선택 과목		4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6	3
		한국어 전공 선택 과목	읽기 2	3
			쓰기 2	3
			번역	3
부전공			6	
		22		

4	1학기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번역 2	3
			통역	3
		한국어 전공 선택 과목	한국어 호텔	3
			소논문	6
				15
	2학기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실습	6

〈표 3〉 나레쑤안 대학교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

학년	교과목 유형		과목명	학점	
1	1학기	일반 교양 과목		9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1	3	
			한국어 발음	3	
			한국사회 및 문화	3	
					18
	2학기	일반 교양 과목		13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2	3	
			한국어 대화1	3	
			19		
2	1학기	일반 교양 과목		12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3	3	
			한국어 대화2	3	
			기본 한국 문학	3	
					21
	2학기	일반 교양 과목		10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4	3	
			한국어 대화 3	3	
		부전공		6	
					22
3	1학기	자유 선택 과목		4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5	3	
			한국어 대화4	3	
			읽기 1	3	
			쓰기 1	3	
		부전공		6	
					22
	2학기	자유 선택 과목		4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6	3	
		한국어 전공 선택 과목	읽기 2	3	
			쓰기 2	3	
			번역	3	
		부전공		6	
					22
4	1학기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번역 2	3	
			통역	3	
		한국어 전공 선택 과목	한국어 호텔	3	
			소논문	6	
					15

	2학기	한국어 전공 필수 과목	한국어 실습	6
--	-----	--------------	--------	---

〈표 4〉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한 과목을 일주일에 3시간 씩 배우는 데 한 학기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540시간 정도 나온다. 또한 태국 교육부의 규정에 의하면 4학년 대학생들이 4학년 2학기 때는 대학 안에서 수업이 없고 대학교 외부에서 실습 교육을 받으러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다. 그러면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교육을 학습하는 시간은 3년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를 학습하는 시간이 무척 짧다. 수업하는 기간 3년 반 동안 한국어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 경제, 한국 정치, 한국어 역사 등을 다 배워야하는 과목들도 있다.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표를 보면 한국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학습자의 목표를 위해서 한국의 여러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을 개설하였다.

아시다시피 태국 내 태국인 학습자가 교실 외에는 다 모국어로 말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시간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태국인 학습자는 교실 내에 한국어 배우는 시간과 교실 외에는 한국인 강사와 소통하는 정도가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의 전부이다. 김동환(2012)³¹⁾은 이런 태국 내 한국어 학습 상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태국 내 학습자들은 강의 실이나 교실을 벗어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을 거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 의사소통 대상자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들은 더더욱 희소하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교수진 외에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전략 설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배경이 된다.³²⁾ 한국어 능력 수준은 1학년 학습자가 1,2급수준 정도

31) 김동환.(2012).“언어와 문화와 문학교육의 상호성”. 『문학교육학회』, 38 : 37-67

32) 여기서는 한국어 능력의 기준을 보면 국립국어원에 따라 한국어 능력 시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능력 기준을 비교하겠다. 여기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능력 평가에 따라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1년 동안 배우는 정보, 문법, 어휘를 비교한다.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를 학습 활용으로 진행하면 한국어 배우는 입장을 한국의 아동들과 비교할 수 있다. 태국인 학습자가 성인이긴 하지만 한국어 수준은 아직도 초급이다. 또한 한국어를 4년 동안 배우면 한국어 능력 수준이 3-4급 정도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4급수준 학습자는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4급수준 정도 되는 학습자가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3 태국 내 한국 문학의 교육 현황

그 다음은 태국 내 한국 문학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겠다. 태국 내 한국 문학 현황 조사를 위해 먼저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³³⁾. 태국의 11개 대학교들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과목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언어 기준에 따라 제사하고 있다. 다음 표는 각 대학에 개설된 한국 문학과목들이다.

번호	대학교명	한국 문학 과목	학년	과목
1	송클라대학교	Korean Plays	4	선택
		Korean Prose	3	선택

33) 그런데 홈페이지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대학도 있고 제시하지 않는 대학교도 있다. 먼저 송클라대, 부라파대, 쾰라빠진대, 시나카린위룻대, 치앙마이 랏차밧대는 홈페이지 한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였다. 그 다음 마하싸라감대, 나레쑤안대, 히칸카타이대, 옷따라딛 랏차밧 대와 치앙라이 랏차밧 대학교는 한국어 전공 담당자와 직접 전화하여 자세한 자료를 받았다. 송클라 대학교 뻏파니 캄 퍼스는 간짜나 싸하위리아선생님을 연락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 치앙라이 랏차밧대학교는 위라차이 판습선생님을 연락하고 커리큘럼과 한국 문학 강의 방안을 받았다. 마하싸라감 대학교의 있는 까녹꾼 마위양선생님을 연락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학습 방안을 받았다.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3	선택
		Korean Poetry	3	선택
2	부라파대학교	Korean Folklore	3	선택
		Korean Short Story	4	선택
		Korean Literary Works	3	선택
3	쉴라빠컨대학교	Korean Literary Works	4	필수
		Modern Korean Literary Works	4	선택
		Korean Short Stories	4	선택
4	시나카린위룻대학교	Basis Korean Literature	3	필수
5	마하싸라캄대학교	Korean Literature History	3	필수
		Oriental Literature	3	필수
		Academic drama	4	선택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	선택
6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	Korean Folklore	3	선택
		Korean Short Stories and Novels	4	필수
		Korean Song and Movies	4	선택
7	나레쑤안대학교	Korean Novels, shorts stories and Movies	2	선택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2	필수
8	송클라대학교 푸껫 캠퍼스	Literary Works and Korean Society	4	선택
9	허깅카타이대학교	Korean Literature Review	3	선택
		Korean Folklore	3	선택
		Selected · Readings in Korean Literature	4	선택
10	웃따라딕 랏차밧 대학교	Korean Literary Works	4	선택
11	차앙라이 랏차밧 대학교	Korean Literature and Folk Tales	4	선택
12	쭈라롱콘 대학교	없음.	-	-

〈표 5〉 태국 내 한국 문학의 교육 현황

위의 표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교 순서로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문학에 대한 과목은 2학년부터 시작한다. 특히 나레쑤안대학교는 2학년 때부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하나씩 개설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대학의 한국어 문학 과목은 3-4학년에 서 볼 수 있다. 송클라대학교는 한국 문학에 대한 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이다. 한국 문학에 관련된 과목은 4개로 개설되었는데 3학년 3과목이고 4학년 한 과목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모두 선택과목이다. 과목을 살펴보면 한국어 고급 수준에 알맞은 과목이다. 특히 ‘Korean Plays’는 한국 연극에 대한 과목이다. 마찬가지로 부라파대학교, 송클라대학교 푸켓 캠퍼스, 허깅카타이대학교, 웃따라딛 랏차밧 대학교, 차앙라이 랏차밧 대학교에는 3-4학년 학습자를 위한 선택과목을 마련하고 있다. 쉐라빠컨대학교는 4학년 학습자를 위한 과목이다. 한국 문학에 관한 과목들을 3, 4학년에 필수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교는 쉐라빠컨, 시나카린위룻, 나레쑤안,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 등 5개 대학교이다. 대학교들은 대부분 ‘Korean Literary Works’에 대한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태국인 학습자에게 기본적 한국 문학을 학습하는 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 과정이 개설된 11개 대학교들은 한국 문학 작품 과목을 구성하고 있어 태국에서 한국 문학 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문학을 배우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 사회,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선택과목을 제시한 대학에서는 한국 문학 학습을 아직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³⁴⁾ 필자가 그 대학교의 한국어 교수와 면담을 해봤더니 가르치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문학에 대한 교재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유명한 작품이나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학습 활동은 태국어로 번역하고 학습자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강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학 작품 학습 활동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할

34) 필자가 그 대학교의 한국어 교수와 면담을 해봤더니 가르치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문학에 대한 교재도 없다고 한다.

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어서 한국 문학 작품 학습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과 학습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언어 수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이나 학습 방법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어 언어 수준이 중급인 학습자와 고급 수준 학습자에게 작품을 선정할 때는 다르게 마련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 원하는 장르, 원하는 교육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2.4 태국 내 한국 문학 작품 학습 현황

태국에 있는 대학들은 한국어 교재에 구성되어 있는 기초적인 문학 작품을 교육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학교마다 한국어 교재를 다르게 이용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 교육 경험도 다르다. 태국 내 대표적인 4대학교³⁵⁾의 한국 문학 작품은 일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데 다음의 표와 같다.

대학교명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	경희대 (한국어)	
	설화	1. 바보사위설화 (미상) 2. 젊어지는 생물 (이명연) 3. 단군신화 (미상) 4. 선녀와 나무꾼 (미상) 5. 콩쥐 팥쥐 (미상) 6.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미상)
	소설	1. 춘향전 (미상) 2. 토끼전 (미상) 3. 심청전 (미상)
	시	1. 귀천 (천상병)
서강대(서강한국어)		

마하싸라캄대학교	설화	1. 청개구리 이야기(미상) 2. 금도끼 은도끼 (미상) 3. 단군신화 (미상) 4.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미상) 5. 선녀와 나무꾼 (미상) 6. 흥부와 놀부 (미상)
	수필	1. 구두 (계용묵) 2.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득)
	시	1. 말의 힘 (황인숙) 2.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3. 꽃 (김춘수)
뽕클라대학교	연세대 (연세한국어)	
	소설	1. 서편제 (이청준) 2. 매잡이 (이청준)
	수필	1. 봄 (박영란) 2. 작고 작은 세상에서 (경음악) 3. 인연 (피천득) 4. 꿀씨에게 보내는 갈채 (박완서)
	시	1.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2. 추천사 (서정주) 3. 알 수 없어요. (한용운)
시나카린위롯 대학교	서울대 (한국어)	
	설화	1. 거울 (미상) 2. 꿀단지 이야기 (미상) 3. 단군신화 (미상) 4. 흥부와 놀부 (미상)
	소설	1. 옥상의 민들레꽃 (박완서)
	수필	1. 연탄 길 (이철환)
	시	1 . 고향의 봄 (이원수) 2 . 내 마음 (김동진)

		3 . 아침이슬 (김민기) 4 . 연탄 한 장 (안도현) 5 . 웅달샘 (윤석중) 6 . 이 저녁에 (박형준) 7 .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8 .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9 . 서시 (윤동주) 10 . 꽃 (김춘수)
--	--	---

〈표 6〉 태국 내 대학교 한국 문학 작품 학습 현황

위의 표를 보면 태국 내 대학교들이 교육하는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어 교재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에 활용하는 한국 문학 작품의 장르를 살펴보면 치앙마이 랏차밧대, 마하싸라캄대, 시나카린위룻대가 설화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송클라대학교는 연세한국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 설화에 대한 장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소설 같은 장르는 마하싸라캄대학교만 학습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교들이 시를 학습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재들에 시가 수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5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학 학습 요구 분석

이 절에서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접하는 경우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로 활용하였다. 먼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적용을 위해서 설문 대상은 한국어 전공 태국인 학습자로 제한하였다. 태국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 53명, 한국어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학습자 44명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7명 등 총 104명³⁵⁾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국어 문학을 접하는

35)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는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교이고, 송클라 대학교는 태국 최초의 한국어 학과전공을 설치한 대학이다. 시나카린위룻 대학교는 방콕에서 한국어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마하싸라캄 대학교는 한국 문학에 대한 과목이 4과목으로 가장 많은 대학이다.

경우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학을 조사 하였다.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과 목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 요구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한국 문학 작품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

설문 조사는 김금숙(2014)³⁷⁾, 윤여탁(2007)³⁸⁾의 논문을 참고하여 태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잘 맞도록 과정을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태국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의 어떤 장르, 내용, 주제를 가장 학습하고 싶어 하는지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설문 조사 방법은 태국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으로 진행하거나 해당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사이트에 설문지를 올려서 학습자에게 부탁하고 답장을 받았다. 또한 태국에 있는 한국어 강사에게 부탁하여 설문지를 학습자에게 직접 배부하도록 하여 설문 조사를 한 후에 회신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1	학습자의 기본 자료(나이, 성별)
2	한국어 학습 기간
3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5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6	태국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7	한국 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8	한국 문학작품을 배우면 어떤 유형을 배우고 싶습니까?
9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운다면 어떤 내용의 작품을 배우고 싶나요?
10	한국 문학 수업에 어떤 수업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7〉 설문 조사 항목

36) 이 조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부터 조사를 한다.

37) 김금숙.(2014). 앞의 논문. : pp.21-32

38)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본 설문 조사에는 그 동안 대상자들이 받았던 자국어로서의 한국 문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대상자들이 태국에서 한국 문학교육을 아직도 부족한 점과 문학 교육이 필요한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배경, 한국어 학습의 어려운 점, 한국 문학 학습의 필요성, 한국 문학 작품의 관심 장르와 내용 등을 설문조사 항목으로 만들었다. 1-3항목은 대상자의 기초조사를 위해 제시하고 4-7항목은 한국 문학 학습 경험과 한국 문학교육 필요성을 위해 구성하였다. 그리고 8-10항목은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하였다.

2.5.1 조사 대상자의 정보

먼저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다. 대상자들은 모두 태국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로 모두 104명이다. 남성 대상자는 15명이고, 여성 대상자가 89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나이는 17살부터 35살까지 나타났지만 20대 전반 대상자가 가장 많이 응답을 했다. 다음으로 10대 후반 대상자가 그 뒤를 이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6개월에서 7년까지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한국어 학습 기간 3-4년 동안이 응답자의 29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기간이 1-2년인 학습자가 24명이었다. 한국어 학습 기간이 2-3년인 경우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학습 기간이 4년 이상인 학습자들은 22명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한국어 학습 기간		성별		나이	인원
		남	여		
6개월 미만	9	-	5	10대 후반	32
6개월 -1년 미만	4	3	17	20대 전반	48
1년 -2년 미만	24	2	38	20대 후반	18
2년 -3년 미만	16	4	22	30대 전반	4
3년 -4년 미만	29	6	15	30대 후반	2
4년 이상	22	-	7	무응답	-
합계		104			

〈표 8〉 한국어 학습 경험, 나이, 성별

2.5.2 한국어 학습 목적

태국인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역시 한국과 관련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국에는 한국 회사가 오래전부터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 LG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공장을 태국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림 1〉 한국어 학습 목적

먼저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겠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대답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 한국어 전공 학습자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에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의 동향을 보면 대학 진학이나 한국어 교사 등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일반 목적에서 벗어나 학문 목적, 직업 목적 등으로 다양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실제 결과물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³⁹⁾ 현재는 한국회사 취업뿐만 아니라 한류가 퍼져서 여행에 관한 취업도 늘어나 있다. 한-태 여행사는 인기 많은 직장이다.

다음은 ‘한국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39) 안미란·최정순.(2007).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능력 기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 : 207-234

태국에서 한국어 전공은 20년 간 지속되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어 학사 학위 과정으로 끝난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 어학원이나 석사 과정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려는 목적도 많이 볼 수 있다. 태국에서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지만 한국에서 한국어 어학원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면 한국어 능력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으면 한국 회사나 한국 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결혼, 직장)’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태국 중·고등학교 70여 개교에서는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는 2008년부터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한·태 정상회담 이후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매년 60여 명씩 한국어 교사를 태국에 파견하고 있다. 태국은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태국의 중·고등학생에서 한국어 전공이나 제2외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서 한국어 교사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적은 응답으로는 한국 여행으로 나타났다.

2.5.3 한국 문학 학습 배경

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들에 한국문학 작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수업을 통하여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한국 문학 배운 경험	있다	없다	합계
인원	65	39	104
비율	62.5%	3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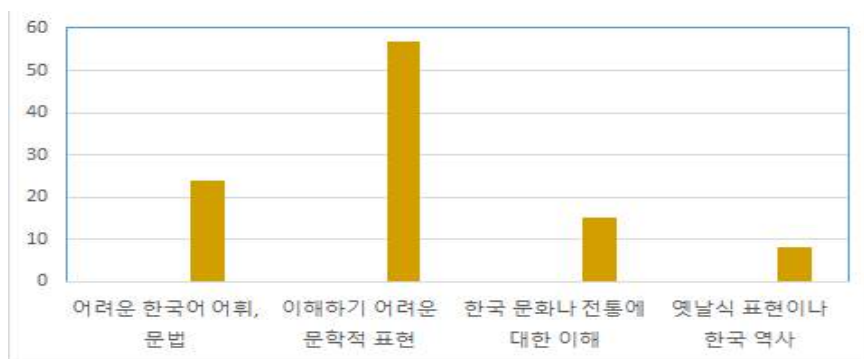
〈표 9〉 한국 문학 학습 경험

학문 목적 태국인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한다.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교재에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가운데는 한국에서 한국 문학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한국어 강사들도 포함하여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 문학을 배워

본적이 없는 학습자도 있다. 대체로 한국어 학습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학습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2.5.4 한국 문학 작품 학습의 어려운 점

외국어 학습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자기 모국어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국인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배울 때 문법, 어휘와 표현 등을 어려워한다. 또한 발음이나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문학에 대한 내용은 일반 언어 학습보다 더 복잡하고 고급 어휘도 많아서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한국 문학 작품 학습 어려운 점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배울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으로 문학적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태국어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어 이유 표현과 태국어 이유 표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이유 표현	태국어 이유 표현
아/어/여 서	เพราะ(ว่า)....จึง
- 기 때문이다.	
-(으) 니까	
-느라고	
-기에	
-길래	
-더니	

-므로	
-ㄴ다고	
-(이)라(서)	
-는 바람에	
-는 통에	
-ㄴ 탓에	
-ㄴ 덕분에	
-아/어/여 가지고	
-고 해서	
등...	

〈표 10〉 한-태 이유 표현 비교

예시 : 가) 저는 배가 아파서 수업을 못 합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ฉันปวดท้องจึงไม่สามารถเรียนได้

나) 저는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เพราะว่าฉันไม่มีเงินจึงไม่ได้ทานข้าว

다) 저는 아침 일찍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เพราะฉันต้องไปโรงเรียนแต่เช้าจึงตื่นนอนเร็ว

라) 저는 토요일에 일하느라고 못 갔어요.

เพราะต้องทำงานวันเสาร์จึงไปไม่ได้

위의 예와 같이 한국어 이유 표현은 여러 가지 있지만 태국어는 이유 표현이 하나 밖에 없다. 시제에 따라 변하지 않고 주어에 따라도 변하지 않는다. 김지혜(2009)에 따르면 표현은 의사소통상에서 화자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꼭 익혀야 할 항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매우 다양한 이유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담화 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아직까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 표현들을 묶어 이들의 특성을 세밀하게 논의한 것은 없다. 특히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한 표현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 표현과 같은 항목을 학습할 때 교사와 학습자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⁴⁰⁾ 이유 표현 외에 일반적으로도 한국어와 태국어 표현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표현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 문학 학습에서 한국어 표현을 당연히 학습해야 한다. 문학 표현을 잘 이해하면 한국 문학 작품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어려운 한국어 어휘, 문법으로 나타났다. 외국어를 배우면 어휘와 문법을 기본지식으로 학습해야 한다. 특히 태국어와 한국어는 언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배울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휘와 문법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이 나오는 순서이다. 반대로 태국어의 어순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로 구성한다. 그리고 태국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어렵다는 답이 많았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마) 한국어 : 나는 밥을 먹어요.
태국어 : ฉัน กิน ข้าว
ฉันกินข้าว

위의 예문을 보면 태국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가 하나 씩 붙어서 한 문장이 나타난다. 또한 태국어는 문장 속에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이다.

세 번째는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도 응답하였다.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의 뿌리에는 차이가 있다. 태국 문화는 왕족과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국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하는 방법, 식사하는 방법, 술 마시는 문화 등에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옛날식 표현이나 한국 역사가 나타

40) 김지혜.(2009).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났다. 한국과 태국은 같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지만 두 나라의 역사는 당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한다.⁴¹⁾

2.5.5 한국 문학 학습의 필요성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배울 때 한국 문학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한국인의 생각, 한국의 사회 배경과 그것이 현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면 한국어 공부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3〉 한국 문학 학습 필요성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 문학을 어느 정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한 응답자가 54명이었다. 문학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7명을 포함 62명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답이 가장 많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역할이 의사소통이나 언어 능력 함양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학습자들의 목표 언어가 유통되는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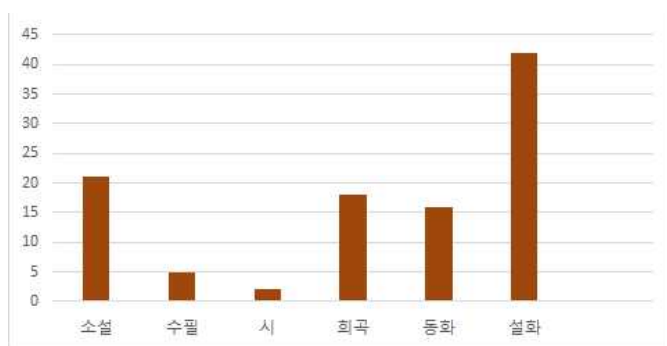
문학을 배울 필요가 ‘보통’이라고 답하는 대상자가 4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는 학습자는 7명이다. 문학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는 대상자는 한국어 전공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임을 볼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를 더 깊이

41) 한국 문학 작품 통해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싶은 답을 제시하면서 한국 역사를 다른 책을 3번째로 배우고 싶어 한다고 답한다.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 문학 학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요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전체 104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 결과로부터 태국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 문학 배우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2.5.6 학습 희망 한국 문학 장르

문학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어떤 장르를 학습하고 싶은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의 장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하는 장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4〉 학습 희망 한국 문학 장르

학습자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 문학의 장르는 설화로, 설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대상자가 42명으로 나타났다.⁴²⁾ 설화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이야기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짧으면서도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태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김민주(2007)에서도 설화는 대다수의 민중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고 향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활방식과 사상, 가치관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한국어 학습자에게 문화적 배경지식을 형성해 줄 수 있다고 했다.⁴³⁾ 태국인 학습자들이 역시 한국인의

42) 김금숙.(2014).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배우고 싶은 한국문학 장르는 1번째로 58.5%응답한다. 이가원(2015)에서 설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응답자가 3번째로 나왔다.18.0%로 1번째의 답은 소설이고 2번째는 드라마, 영화 대본으로 응답한다.

43) 김민주.(2007). “설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가치관과 민담을 알고 싶어해서 한국 설화를 학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특히 태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하느님, 신, 귀신을 다룬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신, 하느님, 귀신에 대한 관심이거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태국인은 불교를 믿지만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신, 하느님을 존경하는 의식을 볼 수 있다.

설화는 교훈이 담긴 사회 문화적 표현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히 언어 교육으로서 효율적인 특유의 가치가 많다. 설화에 빈번히 나타나는 반복은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는데 유용하다. 설화는 자연스러운 운율이 있어서 강세, 박자, 억양 등의 발음을 습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문화적 요소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할 때 필수적인 문화인식을 계발한다. 또한 설화는 인지능력과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태국인 학습자에게 설화를 읽히거나 읽어줌으로써 비교, 대조, 평가와 같은 학습 기술을 활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설화는 또한 분석, 유추, 종합, 요약, 작품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등의 학문적 기술을 습득하기에 적합하다. 설화는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내용중심 언어교육과 의사소통 접근법에 잘 부합된다.

그 다음, 소설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21명이였다. 소설 같은 이야기는 태국인 학습자가 익숙해하는 장르이다. 왜냐하면 태국어 배울 때 태국 소설을 많이 접하게 되어서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학습하는 작품 장르다.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소설을 배우면 태국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많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설의 인물(주인공), 소설의 상황, 모티프, 갈등구조와 결말 등 소설의 구조도 다 똑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익숙해하는 장르이다. 또한 이야기는 삶에 관련된 현실성을 가진다.

Rodrigues, R. J. & Badaczewski, D.(2001)⁴⁴⁾에서는 소설은 수업 현장에서 다른 장르보다 학습자들에게 이야기가 갖는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학교육을 위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텍스트로서 적당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소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으며, 비교적 제한된 문맥 속에서 문학적 요소를 검토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소설에는 문제, 배

44) Rodrigues, R. J. & Badaczewski, D.(2001), 박인가·최병우·김창원. 역(2001).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박이정

경, 인물, 플롯, 어조와 분위기, 시점, 주제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겹쳐있으며, 교사들은 주어진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작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 희곡을 배우고 싶어 하는 대상자는 모두 18명이었다.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K-POP을 모르는 태국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어떤 태국인 학습자는 한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희곡은 무대 위에 활동하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한국인이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을 잘 파악하고 희곡을 읽으면서 다른 문학 작품보다 더 흥미를 느낄 될 것이다. 박경하(2007)에서 희곡은 기본적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이며,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고 현재화된 인생 표현의 문학이라고 한다. 독자들은 희곡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문학의 갈래보다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게 된다. 인물의 말과 행동 및 표정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이 장면이 무대 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는지, 각각의 장면에 적절한 음향 효과는 무엇일지, 독자는 일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무대를 상상해가며 희곡을 읽어나가야 한다. 이 점이 독자로 하여금 희곡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희곡 갈래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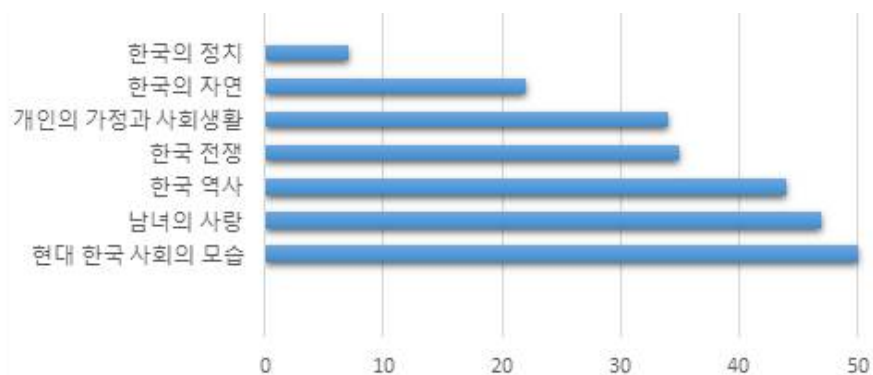
또한 동화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습자가 16명으로 답했다. 태국인 학습자가 동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는 언어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줄거리가 복잡하지 않아 학습자가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필과 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적은 응답을 보였다. 수필과 시를 별로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가 고급스러운 기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5.7 학습 희망 한국 문학 작품의 주제 및 내용

〈그림 5〉는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항목의 결과이다. 특히 문학 작품을 배우

45) 박경하(2007), “학습자 중심 희곡 교육 방안”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게 되었을 때 어떤 내용을 배우면 가장 좋을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예를 들어 한국 가정에 대한 내용과 개인 사회생활을 포함한다. 특히 태국인 학습자들 대부분이 청소년이라서 남녀 사랑에 대한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거기에 한국 역사나 한국 전쟁도 구성해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면 한국전통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 학습 희망 한국 문학 작품의 주제 및 내용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주제와 내용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룬 작품을 배우고 싶어하는 응답이 50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습자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어른과 어린이의 사고방식, 가족 관계의 역할, 남녀 관계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모습이 태국보다 강하다. 한국 가족은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회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가장 알고 싶어 한다. 한국 사회 배경을 잘 알게 되면 한국 사회를 인정하고 한국 사람의 공감을 얻는다.

둘째는 ‘한국 남녀의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48명이 답을 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송하는데 드라마의 내용들이 다 남녀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을 배우는 학습자도 남녀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 속에 표현 된 사랑을 글자로 배우면 한국어가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언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셋째는 한국 역사를 다룬 작품이 45명이었다. 외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우며 그 나라의 배경까지 알게 되면 한국어 배울 때 이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태국인도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싶어 한다. 특히 역사가 이어져서 현대 모습까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모두 알고 싶어 한다.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의 현재 모습을 인터넷이나 드라마, 방송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한국 역사에 대한 모습을 알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보통 태국에서는 한국에 관한 역사나 옛날이야기가 항상 인기를 얻는다.⁴⁶⁾

넷째 한국의 전쟁을 다룬 작품과 개인의 사회생활을 다룬 작품에 대한 항목에는 모두 35명이 답을 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과 북한에 대한 뉴스가 자주 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전쟁이나 중일 전쟁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 그 전쟁 후 한국 사람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 알면 한국 사람의 느낌을 더 잘 이해하고 작품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사람이 일상생활의 모습과 전쟁을 다룬 내용 잘 알게 되면 한국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고, 사회의 모습들을 더 잘 파악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역사나, 한국 전쟁을 다룬 문학 작품 학습이 필요하다.

‘개인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다룬 작품’이라고 답한 학습자는 한국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 나온 장면에서 남자가 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유교의 영향을 통해서 남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생활 방식도 알고 싶어 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상황을 궁금해 한다. 또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한국에서 알맞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으며 한국인

46) 예를 들어 2006년 공중파 TV인 채널 3에서 방송된 ‘대장금’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태국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입에 변화를 가져옴. ‘히준’, ‘이산’ 등 그 동안 긴 호흡 탓에 꺼려하던 장기 시리즈들이 속속 수입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태국인 학습자가 시각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더 깊게 배우고 싶어 한다.

의 생활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2.5.8 효과적인 한국 문학 수업 방식

한국어를 학습할 때 여러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태국인 학습자에게 어떤 방식이 가장 알맞은 방식인지 찾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특히 태국 내 학습 방식은 한국 내에서의 학습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태국인 학습자가 교실 안에서만 한국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교사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학습 하는 학습자가 실생활에서도 한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 수준도 높아지고 한국어 의사소통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그러나 태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교사의 강의를 많이 활용하는 문학 교수-학습 방안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자료들을 이용하면 한국 문학 배우는 목적도 더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한국 문학을 배우면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겠다.



〈그림 6〉 효과적인 한국 문학 수업 방식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우는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국에 사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강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교실 내에서만 한국어를 접하고 교실 외에서는 자국어로 이용하고 자국의 사회 문화

속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에 비해 교사가 강의를 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학습 활동의 효과가 높다.

그 다음으로 수업에서 영상자료 감상 하는 방법도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현대는 인터넷을 편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알고 싶은 지식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작품이나 한국어 학습 자료를 편하게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기본 학습은 읽기 기술 능력이다. 따라서 읽기 학습 방안도 좋지만 감상으로 파악하게 될 때는 영상을 학습하면 더 좋다. 학습자가 영상으로 보면 듣기 학습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시청각으로 지식을 배우면 읽기 활동보다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과 태국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방법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면 개인적인 지식과 그 나라의 지식을 비교할 수 있어서 배운 효과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식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비교한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다른 지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모습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와 토론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발표와 토론은 학습 방식에도 효과가 있지만 학습자의 기억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이 준비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능력도 좋아진다. 토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지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 작품을 교수-학습할 때 여러 방식으로 구성하면 학습자의 이해능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Ⅲ. 한국 문학 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기준과 선정 사례

3.1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 선정 기준 논의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Collie와 Slater(1987)는 문학 텍스트의 풍부한 문맥이 언어 학습을 촉진시키고 개개의 어휘나 통사적인 항목들을 더욱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며 문학 교육을 통해 실제적이고 문맥화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글의 많은 자질에 친숙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⁴⁷⁾ 그러므로 문학 작품 선정에는 그에 따라 기준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특히 학자에 따라 작품 선정 기준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Littlewood(1984)⁴⁸⁾는 작품의 선정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보여주었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어휘와 문법 구조의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고전 문학 작품과 같은 구어체(colloquial)를 피하고 일상적인 언어와 관련된 문체를 가지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되고 주제가 잘 나타나는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Lazar(2000)⁴⁹⁾는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의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47) 김연희.(2010). “시와 수필을 활용한초·중급 한국어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이성지.(2006).에서 재인용.

49) 이성지.(2006).에서 재인용.

첫째,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 한국어를 배우는 목표, 이유, 외국어의 종류, 교수요목에 문학의 코스의 유형(Type of course)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유형(Type of students)으로 나이, 지식 성숙도, 감성적 이해도, 흥미나 문화적 배경, 문학에 대한 지식, 언어 숙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문학 작품과 관련된 기타 요소들로 문학 작품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유용성, 문학 교육을 위한 활용가능성, 문학 작품의 길이, 교수요목과의 조화를 그 기준으로 들었다.

Thomas K. Adeyanju(1978)⁵⁰⁾는 성공적으로 문학 작품을 사용하기 위한 8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현대 작품으로 문화의 가치가 풍부한 작품을 선택한다.

둘째, 작품이 충분히 문화적 요소가 담겨있다면 내용이 그다지 흥미미적일 필요는 없다.

셋째, 교실에서 수업하기에 너무 긴 작품과 어려운 문체는 피해야 한다.

넷째, 작품은 학습자에게 흥미 있는 구성을 가져야 하며 문학적 배경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작품을 읽으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잃앨 수 있으므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간단하게 요약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들의 관심사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네 번째 학습자의 흥미와 연관이 있다.

일곱째, 학습자들이 수용 가능한 심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50) 이성지.(2006).에서 재인용.

여덟째, 암시와 참조뿐만 아니라 소개되는 개념과 상황의 범위도 학생들로 하여금 약간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된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적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곽병선(1988)⁵¹⁾은 일반적인 내용 선정과 조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학이론의 기본 개념을 선정해야 한다. 문학이론의 기본 개념이란 모든 문학 작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을 말한다.

둘째, 문학작품의 모든 유형(시, 소설, 전기, 희곡, 수필)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모든 유형의 작품 형식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문학의 기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인물, 장면, 사건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작품 일수록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이해하며,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다섯째, 한국 민족의 이념, 의욕, 건전한 태도와 도덕 등이 반영된 작품이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작품을 읽으며, 작품 속의 인물의 행위와 동기에 공감하고, 작가의 정신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정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켜 주는 데 적합한 것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작품에 사용된 어휘, 문장의 길이, 복잡성 등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윤영(1999)⁵²⁾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51) 곽병선 외.(1988). 『교과교육의 원리』, 서울 : 갑을 출판사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우선 흥미가 있는 작품을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흥미와 재미를 가진 작품이더라도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문학 수업에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셋째, 외국어를 배우는 언어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문학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해서 문학작품을 선별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현대 작품이 좋다.

일곱째, 주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여덟째,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윤여탁(2001)⁵³⁾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으로 한국어의 어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나 한국의 사회,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문학 작품의 문체로는 문법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반복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시적 언어를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한다.

김연희(2010)⁵⁴⁾는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으로 학력과 나이, 학습의 목표,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학습자 요인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 문장 구성, 문장 길이, 글의 길이 등의 문장 요소와 난해한 정도를 텍스트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제, 글의 어조와 분위기에 관한

52) 윤영.(1999). 앞의 논문.: p.40

53) 윤여탁.(200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제문제”, 『국어교육연구』, 8 : 242-245

54) 강현희.(2010). “수필 수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체적 요소 등을 작가 요인으로 살피고, 교실에서의 활용도 및 문화적 소통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작품 선정 기준
Littlewood (1984)	어휘와 문법 구조의 난이도. 구어체(colloquial). 일상생활과 관련성 학습자의 수준.
Lazar(2000)	한국어 배우는 목표. 문학의 코스. 학습자의 유형. 문학 교육을 위한 활용한 가능성. 교수요목과의 조화.
Thomas K. Adeyanju (1978)	문화의 가치. 문화적 요소. 문체. 흥미 있는 구상. 요약금지. 심리적인 내용. 약간의 노력.
곽병선 (1988)	모든 유형.(시, 소설, 희곡, 설화, 수필)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일성. 흥미가 있는 작품. 상상력. 한국인 태도와 도덕.

	인물의 행위와 동기. 정신으로 바람직한 방향. 학생들의 발달 수준.
윤영(1999)	흥미 있는 작품. 가치가 있는 작품 보편적인 주제. 한국의 모습과 생활. 문화의 특성. 언어능력. 현대 작품.
윤여탁 (2003)	국어의 어법. 한국 사회, 문화. 문체. 한국인의 사고방식.
김연희 (2010)	학습자의 배경. 학습의 목표. 흥미 있는 작품 어휘, 문법 난이도. 작가 요인. 문화적 소통 요인.

〈표 11〉 작품 선정 기준

위의 표에 나타난 작품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볼 수 있다. 교육 과정에 고려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Lazar(2000)는 학습자의 지식의 배경을 강조하여 작품 기준을 선정한다.

곽병선(1988)은 모든 문학 작품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문학이론의 기본 개념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영(1999)은 현대의 작품을 선정 기준으로 구성한다. 김연희(2010)는 작가의 요소도 작품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작품 선정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연구자마다 언급하고 있는 작품 선정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흥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인의 모습과 일상생활을 담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셋째, 한국 문화를 담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첫째, 최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흥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배우면 재미있고 다양한 지식을 알게 되어 한국어, 한국인, 한국이미지에 대해 흥미롭고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한다.

둘째, 한국인의 모습과 일상생활을 담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모습의 특징을 알면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이 쉽고 한국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 쉽게 이해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무엇인가 할 때 “빨리 빨리”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또한 한국인이 일상생활을 보면 아침부터 외출을 나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이나 옷을 잘 챙긴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많이 이용하는 말이 “우리”라고 한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가족 등 꾸준히 들을 수 있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작품을 통해 알게 되면 한국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문화를 담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이점은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배워야 한다고 한다.⁵⁵⁾ 특히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라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문화 간 상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수가 한국 사회에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⁵⁶⁾ 외국인 학습자에게 언어를 가

55) 외국어의 학습을 통하여 외국의 문화에 접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언어는 전달의 도구이므로 일방통행은 아니다. 문화의 상호교류가 국가적 견지에서 본 외국어 교육의 의의라면, 개인적으로는 널리 국제적 시야에서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인간의 양성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르치는 일이 언어에 대해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 언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두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층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활동의 배경인 문화교육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⁵⁷⁾

넷째,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어울리는 작품이 아직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등급별로 제시된 텍스트 목록을 검토한다.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텍스트 분류를 제시하는 데 대분류에 포함된 세부항목들의 공통점을 묶어 상위의 중분류를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문학 텍스트가 포함된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현 방식		등급						
			구어	문어	1	2	3	4	5	6	7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노래	노래	v			●	●				
	연극	연극	v							●	●
	영화	만화 영화	v					●	●		
		국내 영화	v						●	●	
		외화	v						●	●	
	드라마	드라마	v	v				●	●		
	동화	전래동화		v				●	●		
		창작동화		v			●	●			
		교훈적인 글/우화		v				●	●		
	수필	수필		v				●	●		
	시	시		v				●	●		
	소설	소설		v					●	●	
	설화, 민담	설화, 민담		v					●	●	
	희곡	희곡		v						●	●

〈표 12〉 등급별 문학 텍스트

위의 표를 보면 한국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등급이 제시되었다. 문학 텍스트는 대부분 한국어 능력 수준 중급이상 등급으로 구성하였다.

56) 교육과학기술부.(2010).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57) 신주철.(2006).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 53

동화는 어린 학습자를 위한 장르이기 때문에 3-4급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동화는 어린이를 위주로 한 서정적이거나 또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서사적인 요소를 가진 흥미로운 산문문학이라고 하였다.

4-5급을 구성하는 문학 텍스트는 만화 영화, 드라마, 동화, 수필, 시 그리고 소설이다. 4-5급 언어 수준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 문법, 표현을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담고 있었다. 수필, 시, 소설의 장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어적으로 쓰는 어휘가 많아서 초, 중급 학습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시를 학습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휘, 문법, 표현을 많이 알아들어야 한다.

다음 6-7급 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르는 연극, 소설, 설화, 민담 그리고 희곡 순서이다. 이런 작품을 학습할 때는 고급어휘, 문법, 표현을 풍부하게 알아야 하고 한국 사람의 사회 문화의 배경 지식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희곡이나 연극 같은 장르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물의 갈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문학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의 사회문화, 한국의 역사까지 알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3.2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사례

앞서 살펴본 여러 학자의 작품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외국인 학습자와 어울리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태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작품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

첫째, 흥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하는데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태국에 없는 지식이나 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보통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하는 경우는 읽기 수업 시간이다. 각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문학에 대한 과목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읽기 수업은 2학년 학습자부터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태국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서 1학년의 경우는 기초 문법, 어휘나 표현을 배우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과목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데 만약 그 문학 텍스트의 내용이나 언어 수준이 초급 정도로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한국어 공부에 흥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흥미는 수업 구성 방식과 교사의 수업 진행 방법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좌우될 수 있지만 작품의 선정을 통해서도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학습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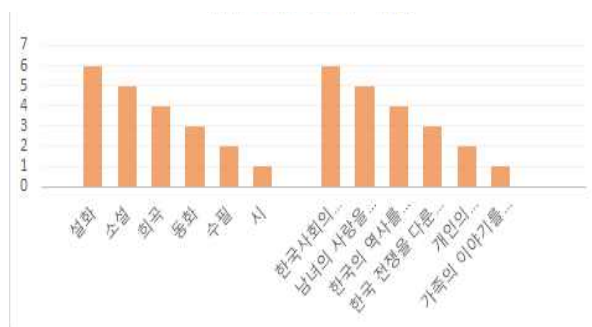
둘째, 한국인의 모습과 일상생활을 담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태국과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날씨도 다른데 태국에는 여름과 우기 2계절 밖에 없다. 한국은 4계절이 있어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도 다르게 나타난다. 태국은 날씨가 더워서 태국 사람들은 길거리를 많이 안 걷는다. 반대로 한국은 날씨가 태국과 비교해 많이 덥지 않아서 한국인의 걷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태국은 믿는 종교도 다르다. 태국은 불교국가로 주민의 93% 정도가 불교를 믿는다. 한국은 뿌리 깊은 유교주의 국가이고 농경국가이었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는 문학 작품의 인물형으로 당대 사회의 인간들의 행동과 현실에 바탕을 둔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람의 삶과 생활을 알면 한국어도 더 이해하며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더 자연스럽게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관심을 계속 갖게 하고 더 흥미롭게 학습하게 한다.

셋째, 한국 문화를 담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빠질 수 없는 항목은 문화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가치가 풍부한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태국에 있는 학습자는 한국 대중매체를 통한 한류 드라마, 영화, 가요, 오락프로그램 덕분에 한국문화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늘게 되었다. 물론 한국어 학습 교재들에 한국 문화를 담은 내용도 있지만 문학을 통해서 한국 문화 학습을 다르게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자가 시청하여 감동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 나온 사랑은 독자의 상상을 통해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감동하

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을 학습하여 작품의 이해 능력이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면 문화 학습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태국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 문학을 구성하는 과목은 보통 3, 4학년 학습자를 위한 것이다. 3, 4학년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중급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한국 문학 작품 학습이 가능하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여러 유형을 선정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문학에 대한 수업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과목 학습을 통해서 여러 유형을 학습하면 한국 사회,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에 더 익숙해져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학 작품을 여러 유형으로 학습하면 그 작품의 내용도 다양하고 한국 배경도 다양하게 알게 되므로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작품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태국인 학습자가 관심을 갖는 내용과 유형별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태국인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문학 작품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국인 학습자가 알고 싶어 하는 장르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태국인 학습자의 학습 희망 어울리는 문학 작품 장르와 내용

위의 그래프를 보면 태국인 학습자는 설화를 가장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보면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인이 어떤 신화⁵⁸⁾와 어떤 민담을 믿는

가? 궁금해 한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도 신화나 민담을 넓게 믿는 편이다. 그래서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인이 믿는 신화를 알게 되면 한국인의 믿음까지도 알고 한국인의 사회 배경을 깊이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인의 성격, 생각, 생활을 파악하게 되면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더욱 쉽게 공감하게 된다. 또한 설화와 신화의 신성성과 위엄성 및 전설의 신빙성과 역사성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국인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은 3번째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 역사를 다룬 작품’이다. 그러므로 설화(단군신화, 해모수신화, 주몽신화, 삼성혈설화 등) 가운데 역사적 내용을 담은 문학 작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소설을 2번째로 공부하고 싶은 장르로 꼽았다. 한국 소설(소나기, 춘향전, 사랑 손님과 어머니, 수난이대 등)의 특징을 보면 작가가 한국의 시대 모습을 많이 반영하는 내용을 담는다. 태국인 학습자는 소설을 중학교 때부터 많이 접하게 되어 익숙해한다. 왜냐하면 태국어 교육과 한국의 교육이 비슷하게 읽기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어 태국어 수업에서도 태국 소설을 읽는다. 그래서 태국인 학습자는 소설 읽기에 능숙하기 때문에 한국 소설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태국에서 한류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다. 한국 희곡(원고지, 파수꾼, 소)같은 유형은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감각이 들어서 한국 희곡도 배우고 싶다는 답을 3번째로 하였다. 또한 20세기 한국에 대한 동영상(영화, 드라마)도 태국인 학습자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덕분에 희곡을 학습하고 싶어 하는 영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희곡은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상상력도 높아질 것이다. 무대 위에 있는 분위기를 상상하면 작품의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것이다. 또한 희곡에 나타나는 대화나 대본으로 이용하는 어휘들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화(전래동화는 흥부와 놀부, 금도끼와 은도끼, 해와 달, 토끼와 거북이, 심청전 등이 있다), 『강아지 똥』, 『몽실언니』의 내용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

58) 신화는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에겐 우주의 창생과 종말에 관한 우주신화와 천지·일월·성신에 관한 천체신화 및 건국신화와 국왕신화 등이 있다.

이기 때문에 플롯은 대학생들이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 텍스트 등급을 보면 동화가 한국어 능력 수준 3급부터 5급까지 구성하는 장르이다. 중급 수준으로 동화 장르를 학습하면 한국 어린이에 대한 배경을 잘 알게 될 것이다.

태국인 학습자가 수필을 배우고 싶은 장르로 선택한 이유는 작품의 길이가 대체로 짧은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태국인 학습자가 수필을 배울 때 읽는 시간이 학습 활동이 비교적기 때문에 수필을 5번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는 태국어 수필 학습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익숙해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수필 쓰기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 수필을 배우면 한국인의 개인 모습과 한 개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태국인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장르로 가장 나중에 선택한 것은 한국의 시이다. 시를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는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태국어 시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시를 문어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시인의 시를 쓰는 목적을 파악 못 하면 시 해석도 못 한다. 게다가 시의 내용은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가 시를 해석할 때 시인의 목적과 비유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화나 한국 역사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를 해석할 때 한국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과 달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학을 배우면 시를 마지막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국 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렵지만 시를 잘 파악하면 한국 문학 작품을 깊게 이해하고 문화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학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등급별로 제시된 텍스트와 같이 맞추고 작품 선정 기준과 문학 작품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태국인 학습자에게 좋은 기준을 제안하겠다.

학년	한국 문학 작품 제안
1	설화
2	소설
3	수필
4	시, 희곡

〈표 13〉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장르 선정 제안

위의 표를 보면 1학년 학습자는 한국어를 140시간 정도 학습한다. 첫 학기 때는 한국 기본 지식을 학습한 다음에 2학기 때 학습자가 한국어에 익숙해지면서 긴 텍스트, 단순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한국 설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 활동으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2학년 학습자는 한국어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화가 가능하니까 한국 소설이나 단편소설을 이용한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2학년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 따르면 한국어 읽기 수업은 필수 과목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학년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 능력 시험의 평가 기준에 따라 2-3급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1,500-2,5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설화나 한국 수필을 학습 활동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3학년 학습자는 자기가 선택한 전공의 필수 과목만 학습하기 때문에 한국어 전공을 선택한 학습자도 한국어만 배운다.⁵⁹⁾

4학년 학습자의 경우는 첫 학기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2학기 때에는 수업이 없고 대학 외에서 실습과목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4학년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 수준이 보통 3-4급 정도 되어서 한국에 대한 과목들이 거의 다 한국어 고급 수준 정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 시나 한국 희곡을 학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사례를 제시

59) 태국에서 학교마다 전공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 랏차밧 대학교에는 1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시나카린위룻대나 나레쑤안대학교는 2학년 때 전공과목을 선택한다.

하기 위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1 한국어 강사 추천 작품

Ⅱ장에서 태국인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 문학 작품의 내용과 장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품 선정 기준을 설정해 보았다. 구체적인 작품 선정의 단계에서는 우선 한국어 강사들에게 설문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을 의뢰한 한국어 강사들은 태국인 학습자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강사 및 한국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이다. 한국어 교수 경험이 있는 강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작품 추천을 의뢰한 것은 외국인 학습자를 자주 만나거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당연히 어학원이나 교육원의 한국어 강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 문학도 가르친다. 그러면 태국인 학습자에게 어울리는 한국 문학 작품도 추천할 수 있다. 특히 태국에서 문학 작품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 강사가 한국 작품을 잘 알고 태국인 학습자가 어떤 작품을 배우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 장르와 문학 작품 내용, 주제로 나누어 태국인 학습자를 위해 추천하는 작품을 조사하였다. 그 대상은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의 강사 9명과 스페인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강사 2명⁶⁰⁾이고,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9명이다. 태국에 있는 강사는 한국 문학 작품을 가르쳐본 적이 있는 강사들이다.

주제, 내용 \ 장르	설화	소설	희곡	수필	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					
남녀의 사랑					
한국 역사					
한국 전쟁					
개인의 가정과 사회생활					

〈표 14〉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추천 의뢰 내용

60)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2 년 동안이고 현재는 스페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위의 표는 태국인 학습자의 문학 작품을 배우고 싶어 하는 주제, 내용과 문학 작품 장르를 합쳐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설문 조사한 항목이다. 조사할 때는 한국어 강사들에게 작품 주제와 장르에 따라 여러 주제나 알고 있는 주제의 작품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조사에 응답한 한국어 강사가 추천하는 작품은 다음의 표와 같다.

주제, 내용 \ 장르	장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
소설		- 갑을 고시원 채류기 (박민규) - 달콤한 나의 도시 (정이현) - 원미동 시인 (양귀자) - 해산 바가지 (박완서) - 복덕방 (이태준)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배수아) -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희곡		- 오발탄 (이범선) - 연변엄마 (김은성) - 너무 놀라지 마라 (박근형)
수필		- 자반을 먹으며 (유병석) -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주제, 내용 \ 장르	장르	남녀의 사랑
설화		- 선녀와 나무꾼 (미상) (2) - 견우와 직녀 (미상) (2) -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 (미상)
소설		- 춘향전 (미상)(3) - 내 마음의 옥탑방 (박상우) -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3) - 동백꽃 (김유정)(3) - 오래된 정원 (황석영) - 소나기 (황순원)(6)

	-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공지영) - 모순 (양귀자) - 광장 (최인훈)	
희곡	- 결혼 (이강백) -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원작)	
수필	- 인연 (피천득)	
시	- 이별 (원태연)(1) - 세월이 가면 (박인희) - 진달래 꽃 (김소월)(5) - 방문객 (정현종) -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 님의 침묵 (한용운) (2)	
주제, 내용	장르	한국의 역사
설화		- 단군신화 (미상)(4) - 주몽신화 (미상)(4) - 박혁거세 신화 (미상)
소설		- 칼의 노래 (김훈)(4) - 뿌리 깊은 나무 (이정명) - 태백산맥 (조정래)(2) - 몽실 언니 (권정생) - 짜장 찜뽕 탕수육 (김영주) - 장마 (윤홍길) - 현의 노래 (김훈) - 아리랑 (조정래) - 토지 (박경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희곡		- 왕의 남자 (김태웅)
수필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리영희)
시		- 청포도 (이육사) -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 풀 (김수영)

주제, 내용 \ 장르	장르	한국 전쟁
소설		- 불신 시대 (박경리) - 수난시대 (하근찬) (8) - 오발탄 (이범선) - 그 남자네 집 (박완서) - 광장 (최인훈)
희곡(시나리오)		- 한강은 흐른다 (유치진) - 웰컴투 동막골 (장진, 박광현, 김중) (2)
수필		- 어느 학도병의 편지 (김현준)
시		- 초토의 시 (구상) - 검은 신이여 (박인환)
주제, 내용 \ 장르	장르	개인의 가정과 사회생활
설화		- 해가 된 오누이 (미상) - 콩쥐 팥쥐 (미상)
소설		- 운수 좋은 날 (현진건) - 날개 (이상)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 빈처 (현진건) - 청춘예찬 (민태원) - 고향 (이기영)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 가시고기 (조창인)
희곡		- 원고지 (이근삼) - 태양을 향하여 (차범석)
수필		- 은전 한 닢 (피천득) - 구두 (계용묵)(2) -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 닭 타고 가면 되지 (미상) - 지각인생 (김도운)

시	-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 연탄재 (안도현) - 자화상 (박형진) - 향수 (정지용) - 개봉동과 장미 (오규원) - 시 한 송이 꽃 한 마디 (이수현) -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	---

〈표 15〉 한국어 강사 추천 작품 61)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 강사가 추천한 작품들은 어렸을 때 국어 과목에서 배웠던 작품들이 많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에 활용하면 좋은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이나 유명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강사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작품은 전쟁에 대한 소설인 『수난이대』로 8명이 추천해주었다. 그리고 설화 같은 장르는 「단군신화」와 「주몽신화」가 4명의 추천을 받았다. 남녀 사랑을 대상으로 한 소설은 『소나기』로 6명이 추천하였다. 그리고 시 장르는 「진달래 꽃」을 5명이 추천하였다. 그 다음은 개인의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2명이 「구두」를 추천하였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작품을 다양하게 교육하려면 장르에 따르면서 현대 한국 사람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작품이나 빈도⁶²⁾ 높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한국어 강사의 추천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된 작품이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된 작품들은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배운 작품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학습하면 한국 사람의 지식 배경을 통해서 한국 사람과

61) 괄호 안의 숫자는 추천 빈도수이다. 숫자가 없는 작품은 1인이 추천한 경우이다.

62) 국제통용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는 “빈도는 전체 빈도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장르별 빈도로 제시한다. 문어나 국어의 차이, 사용 환경의 차이를 제시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장르별 빈도를 산출하는 것은 어휘 영역에서 밝혔듯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균형성 있는 1차 자료, 즉 말뭉치 구축이 미비하여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의 의사소통에 도움도 될 것이다. 한국어를 학습할 때 더 긍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면 공감도 클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된 작품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어 강사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된 작품의 결과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3.2.2 한국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앞의 선행 연구 검토를 보면 작품 선정 할 때 대부분⁶³⁾ 한국 국어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분석하고 선정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작품은 자국민을 교육하기 위해 선정된 작품이므로 학습의 대상이 외국인이 아니다. 그러나 문학이 언어로 쓰여 있다는 점과 언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중요한 학습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한국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문학작품이 동일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⁶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은 오랫동안 학계의 전문가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 심사숙고하여 선정한 작품들로 문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검증된 작품들은 그 학습의 대상이 다르지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⁶⁵⁾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에게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하고 작품 선정 요소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어 교과서 읽기 작품⁶⁶⁾중에 태국인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맞추어 제시하겠다.

63) 나정선.(2008), 김금숙.(2014), 이가원.(2015), 김혜영.(2013)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선정한다.

64) 나정선.(2008). 앞의 논문.

65) 김정자.(2014).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6) 창비 출판사의 읽기 교과서 중등학교 1, 2, 3과 고등학교 및 한 한국어 읽기 연구회에서 펴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를 분석하고 제시하겠다.

주제, 내용 \ 장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
설화	- 수삽석남 (미상)
소설	- 보리 방구 조수택 (유은실) - 하늘은 맑건만 (현덕) - 일용할 양식 (양귀자) - 코끼리 (임명묵) - 삼포 가는 길 (황석영)
희곡	- 국물 있습니다 (이근삼) - 성난 기계 (차범석) - 원고지 (이근삼) - 만선 (천승세)
수필	- 왜 그 때 소나기가 내렸을까? (조지욱) - 괜찮아 (장영희) - 사람들은 왜 모바일 게임을 즐길까? (이도영) - 어리서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신영복) -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성석제) -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신영복)
시	- 빗방울 (서정숙) - 선풍기 바람 (하상욱) - 딱지 (이준관) - 의자 (이정록) - 송사리 (이문구) - 못 난 사과 (조향미) - 밴드와 막춤 (하종오)
주제, 내용 \ 장르	남녀의 사랑
설화	- 도미 설화 (미상) - 오봉산의 불 (미상)

	- 지귀 설화 (미상)
소설	-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 춘향전 (미상)
희곡	- 결혼 (이강백)
수필	-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김대중) - 원이 아버지께 올리는 편지(이응태의 부인)
시	- 뫼버들 가려 꺾어 (홍량) -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 제비꽃에 대하여 (안도현) - 첫사랑 (고재중) - 행복 (유치환) - 사랑하는 별 하나 (이성선) - 진달래 꽃 (김소월) - 님의 침묵 (한용운) - 가시리 (미상)
주제, 내용 / 장르	한국 역사
설화	- 신라 시조 혁거세왕 (미상) - 지귀 설화 (미상) - 연오랑 세오녀 (미상) - 온달전 (미상)
소설	- 꺼삐딴리 (전광용) - 양반전 (박지원)
희곡	- 새야 새야 파랑새야 (차범석)
수필	- 미완성의 결작 (오주석)
시	- 단심가 (정몽주) - 광야 (이육사) - 제망매가 (월명사) -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섭)
주제, 내용 / 장르	한국 전쟁

설화	- 연오랑 세오녀 (미상)
소설	- 수난이대 (하근찬) -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 오발탄 (이범선) - 장마 (윤홍길)
희곡	- 산불 (차범석) -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오영진)
수필	- 안중근 의사 자서전 (안중근)
시	- 유년의 달 (허영자) - 초토의 시1 (구상) - 북에서 온 어머니님 편지 (김규동)
주제, 내용 장르	개인의 가정과 사회생활
설화	- 화왕계 (설총) - 삼태성 (미상) - 손순 매아 (미상)
소설	- 야, 춘기야 (김옥) -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 (오승희) - 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 돌다리 (이태준) -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희곡	- 소 (유치진) -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오영진) - 태양을 향하여 (차범석) - 춘풍의 처 (오태석) - 산돼지 (김우진) - 이영녀 (김우진) - 파수꾼 (이강백)
수필	-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 (이철우) - 고추, 김치의 색깔을 바꾸다

	(전국지리교사모임) - 막내의 야구 방망이 (정진권) -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 (김송기) - 다시 시작하기 (장영희) - 밥으로 가는 먼 길 (공선옥) - 흥터 (최운정) - 아버지의 선물 (공선옥) - 재능 없는 사람이 없다 (김규동) - 소년 시절의 맛 (성석제) - 비닐우산 (정진권) - 수오재기 (정약용) - 한 그루 나무처럼 (윤대녕) -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신영복)
시	- 신문지 밥상 (정일근) - 성장 (이시영) - 그 한 마디 말 (김장호) - 이럴 땐 (임길택) -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 아버지 (임길택) - 유리창 (정지용) - 흰둥이 생각 (손택수) - 향수 (정지용) -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서정주) - 엄마걱정 (기형도)

〈표 16〉 국어 교과서 수록 문학 작품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아는 주제나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대화 분위기가 매우 좋다.

또한 서로 협상을 할 때도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 도움에 된다.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에 대한 지식을 알면 서로 더 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인이 중,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문학 작품을 기본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작품들은 학계의 인정도 받았고 학습 활동도 오래 진행되어 왔다. 국어 교과서 읽기 작품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작품들은 모두 한국 문학 작품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며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한국어능력 습득, 한국 사회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동체가 지나고 있는 정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태국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이해하면 한국 사회,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다.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에 따라 중·고급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이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볼 수 없다. 보통 태국에서는 한국어 출판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을 스스로 공부하기가 힘들다. 또한 한국 문학과 태국 문학이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태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장르와 내용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강사 추천 작품, 공통 교육으로서의 중등과 고등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과 태국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작품을 검토하여, 태국인 학습자가 학습하고 싶은 내용과 유형을 맞추고 한국어 능력 수준과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제한된 학습 시간으로 많은 작품을 접하지 못하는 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문학 목록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정선(2008)도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위한 문학작품 목록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점, 대학(원)에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과서 수록 작품들이 대화 속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⁶⁷⁾ 그러나 태국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에 한국 문학 작품이 이미 수록되어 있어서 학습자가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제외하고 언어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른 작품으로 선정하면

67) 나정선.(2008). 앞의 논문.

서 여전히 태국인 학습자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으로 선택한다. 한국어 강사 추천 작품과 국어 교과서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그 작품은 태국어, 태국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르 주제, 내용	설화	소설	희곡	수필	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	수삽석남 (미상)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원고지 (이근삼)	구두 (계용묵)	유리창 (정지용)
남녀의 사랑	선녀와 나무꾼 (미상)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결혼 (이강백)	인연 (피천득)	님의 침묵 (한용운)
한국 역사	주몽신화 (미상)	태백산맥 (조정래)	‘이’ (김태웅)	미완성의 결작 (이주헌)	제망매가 (월명사)
한국 전쟁	연오랑 세오녀 (미상)	수난이대 (하근찬)	산불 (차범석)	안중근의사 자서전 (안중근)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섭)
개인의 가정과 사회생활	콩쥐팍쥐 (미상)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태양을 향하여 (차범석)	아버지의 선물 (은희경)	엄마 걱정 (기형도)

〈표 17〉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을 선정 기준 제안

작품 양식	작품의 장르	작품의 내용	작품 제안
서사	설화	한국의 역사를 다룬 작품	주몽신화 (미상)
	소설	한국의 전생을 다룬 작품	수난이대 (하근찬)
서정	시	남녀의 사랑을 다룬 작품	님의 침묵

			(한용운)
극	희곡	개인의 가정과 사회생활	태양을 향하여 (차범석)
교술	수필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	구두 (계용묵)

〈표 18〉 장르별 문학 작품 선정 68)

3.2.3 선정된 작품의 선정 이유

3.2.3.1 「주몽신화」

한국 신화에는 한국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국 신화는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내용이다. 한국 신화의 내용은 교훈적 인생의 나침반이 된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믿음이나 역사에 대해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모습은 많이 못 보는 한국의 옛날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국어교육이나 문학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일부로 한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구성한다. 왜냐하면 한국 신화가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신화에 관심이 많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신화 내용을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생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몽신화」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인데 「단군신화」와 함께 문헌신화로 한국 사람에게 매우 널리 알려진 신화이다.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드라마 〈주몽〉이라는 작품과 함께 한류문화를 타고 중앙아시아까지 퍼진 인기 있는 신화가 되었다. 〈주몽〉드라마를 보는 학습자가 「주몽신화」 작품을 학습하면 흥미롭고 학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 긍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대국가인 고구려의 건국신화라는 특성 때문에 역사부분을 잘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태국 사람이 믿는 신과 비교할 수도

68) 「주몽신화」, 『수난시대』, 「님의 침묵」, 「구두」은 강사 추천 작품이고 「태양을 향하여」은 교과서 수록 작품이다.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태국인 학습자가 배우면 적절한 작품이다. 또한 설화 동영상을 통해 학습자의 시각과 청각적 자극을 유발하고 영상을 바탕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수업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학습자가 학습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주몽신화는 현재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아 온라인에서 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3.2.3.2 『수난이대』

『수난이대』는 1957년에 발표된 하근찬의 대표작으로 전쟁으로 인해 신체적 훼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수난이대』의 학습목표는 갈등, 구성 등의 문학 감상 방법보다는 역사적 상황과 작가의 분단극복 의지 파악이 될 수 있다. 즉, 현대에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작품의 전쟁 상황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의 소통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의 전체 목록 중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작품이다. 『수난이대』의 사건은 6·25전쟁에 고통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팔을 잃고 아들은 다리를 잃은 전쟁의 비극이다. 이 두 개 사건은 비극적 성격을 지니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겪었던 아픔에 대한 은유이며, 반면에 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 될 수 있는, 서로 돕는 가족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특히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구성한 작품에서 외국인이 한국 역사를 알 수 있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현대 상황과 모습을 접할 수 있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은 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품들을 선정하면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을 학습하면 좋겠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면서 태국인 학습자에게 학습 기준, 학습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을 선정했다.

3.2.3.3. 「님의 침묵」⁶⁹⁾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과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은 한용운의 대표작이며, 한국 현대시의 명편으로 꼽힌다. 시는 특징적인 말의 쓰임새를 통해 산문이나 통상적인 언어의 경우와는 달리,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고, 그 의미는 작품의 상황과 장면, 또는 화자의 태도에 의해 미묘하게 조절되어 있다. 「님의 침묵」은 ‘서정 장르의 특징’, ‘이별의 정한’, ‘삶의 다양성’, ‘보편성의 관점’이라는 학습목표와 관련 성취기준을 두고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즉 작품의 단순한 특징인 ‘역설적 표현, 이별의 슬픔, 여성 화자의 특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특징과 작품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같이 전체 작품에 대한 이해와 다른 작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특징을 찾아내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⁷⁰⁾ 이는 작품의 심도 있는 학습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제재 선택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으면 태국인 학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왜냐하면 「님의 침묵」에서 쓰는 어휘는 현재에 많이 이용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컷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라는 말이 매우 매력적인 용어이다. 또한 「님의 침묵」시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랑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다. 이 작품은 또한 임은 떠나가고 없지만 다시 만날 것을 믿고 계속 사랑하겠다는 노래로, 다양한 비유와 유장한 리듬감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⁷¹⁾ 한용운은 승려이기 때문에 「님의 침묵」을 해석할 때 불교 사상을 볼 수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이다. 이는 태국의 지리적 위치가 백인세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 탓이기는 하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단결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불교를 믿어서 「님의 침묵」을 학습하면 불교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을 학습하면 한국과 태국

69) 윤여탁.(2007). 앞 책 인용에서 2004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문항의 구성을 보면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의 제목을 쓰도록 한 주관식 살문에 대한 결과의 현대 시에 대한 항목은 「님의 침묵」 2번째로 결과가 나왔다.

70) 양해경.(2016). “한용운 시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 이남호.(2001).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대학교과서주식회사

불교 문화차이를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 승려는 아침마다 탁발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태국 불교 의식이 한국 불교와 다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태국인 학습자가 배우기에 아주 적절한 작품이다.

3.2.3.4 「태양을 향하여」

차범석은 한국 사회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혼란기의 세대 반영에 주목했다. 「태양을 향하여」는 1962년 10월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차범석의 희곡 작품이다. 「태양을 향하여」 희곡은 4막으로 되어 있는 장막극이다. 새로움을 찾아 몸부림치는 젊은 세대의 고민과 새로운 물결로 인해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 가는 아버지의 불안과 초조를 한 가닥의 애수로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6·25전쟁 이후 전환기를 맞이한 한 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고통과 파멸의 위기를 한국 가정 또는 가족의 논리로 극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제목이 시사하듯이 신구 세대의 갈등 속에서도 새 세대의 출발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심리적 갈등이 날카롭게 그려져 있고, 현대적 일상어를 압축성 있게 구사하고 있어, 사실주의의 면모를 보인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세대인 부모세대와 신세대인 자식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회적 실상을 극화하는 데 남다른 힘을 쏟았다. 이 작품은 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취직도 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새 희망을 갖게 되는 등 얻은 것이 많으나 슬픈 작품이다. 새 희망은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다시 한 번 살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태양은 밝음과 희망 화합 등을 상징하는 어휘이다. 「태양을 향하여」에서 비록 경애는 죽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으며 가족들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태양’은 삶의 돌파구이자 긍정적인 세계로의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대배경은 그간 다수의 논자들에 의해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을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나 대립’으로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⁷²⁾ 최·노인은 60세로 이 가족의 가장이며, 장가들 때 부친이

72) 조용부, (2011). “차범석 희곡의 세대간 갈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어준 낡은 기와집에서 47년을 살아오면서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신식 문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가족에 관한 사고방식은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사람과 사고방식을 잘 반영해주는 문화이다. 일반 일상생활에서 자주 못 보는 문화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가족에 관한 사고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에서 가족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버지나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태국 가족은 어머니의 역할이 많아서 어머니가 가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태국이 전쟁했을 때 여성무장이 몇 명이 나온 기록도 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사회생활에서 여자가 남자와 비슷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여자의 역할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옛날부터 남자가 중심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3.2.3.5 「구두」

수필의 제재는 개인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든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나온 상황을 쓰는 것이다. 이 「구두」 수필은 작가의 경험을 서사적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극적인 사건 전개가 소설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생동감을 잘 살리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어느 날 이른 저녁에 창경궁 옆의 담을 따라 걸어가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 스무 살쯤 된 한 젊은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주인공은 ‘긴장과 불안을 보여 준다’가 맞는 것 같다. 이 작품에서 계속 ‘또각또각’이라는 소리가 작품 전체의 긴장감을 주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여자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구두 소리이기 때문이다. 소리가 없었다면 여자가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리 없이 말로만 그 상황을 표현했다면 긴장감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여자주인공은 긴장되고 불안해서 길옆에 난 골목으로 재빨리 몸을 돌려서

들어갔다. 「구두」수필은 한국 현대 개인 사회생활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태국에는 날씨가 더워서 한국 사람처럼 많이 안 걷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인 나라이다. 태국은 집마다 오토바이가 다 있다. 한국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길에 다니는 모습은 태국보다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태국은 날씨가 더워서 구두를 잘 안 신고 일상생활에서 슬리퍼를 많이 신는다. 특히 밤에 길에서 걷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또한 태국인은 슬리퍼를 신는 생활이라 구두를 잘 안 신고 구두 수선 집도 태국에서 잘 못 본다. 태국 슬리퍼의 특징은 가볍고 오래 신으면 바로 버리는 문화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 「구두」는 한국 사람의 걷는 생활과 구두를 이용하는 생활 모습을 잘 반영하게 되는 작품이다. 또한 태국과 한국은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생활 모습도 다르다. 한국에는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한국 사람은 가까운 곳에 갈 때 걷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대로 태국에는 날씨가 더워서 태국 사람은 길을 잘 안 걷고 가까이 곳에 갈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문화이다. 그래서 「구두」수필을 학습하면 한국과 태국의 일상생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작자의 경험을 글자로 반영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작자의 느낌으로 이해하고 작품을 잘 파악할 것이다.

IV.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원리

Carter& Long(1991)⁷³⁾은 문학교육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언어 모형 (The language Model), 둘째, 개인 성장 모형(The Personal growth Model), 셋째는 문화 모형(The cultural Model)이라고 한다.

① 언어 모형 (The language Model)

언어 모형은 문학 지도의 정당성은 우선 언어 개발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문학은 언어 조작을 위한 특별한 어휘, 구조의 지도와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언어를 문학적 매개물로 보며 문학이 언어로부터 만들어지고 학습자들이 언어 내에서, 또는 언어에 의해 잘 읽는 방법을 터득할 때 더욱 더 문학으로서의 문학 텍스트에 잘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점에서 이모형은 학습자 중심, 활동중심 접근방식을 띠며 언어가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언어형태와 문학적 의미관계 사이의 해석, 행간의 속뜻을 이해하는 전략이 최고의 지도 목적이라고 한다.

② 개인 성장 모형(The Personal growth Model)

이 모형은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트의 독서와 꾸준히 몰입을 달성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개인의 성장’은 매우 보상적인 일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적 성장은 복잡한 문화적 가공물(artefacts)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터득할 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성장은 자기 충족적인데 텍스트를 통한 목표 사회와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자극시켜 주기 때문이다. 문학 지도의 목적은 그들이 처한 제도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또는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도록 문학을 장려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73) Carter& Long(1991), 『Teaching Literature』, New York : London

언어 모형과 같으나, 보다 학습자 중심적이다. 개인 성장 모형의 전반적인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주제와 화제를 그들 자신의 체험과 관련시킴으로써 읽기를 위한 동기유발을 촉진시켜주는 일이라고 한다.

③ 문화 모형(The cultural Model)

문학은 인간의 의미 있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문학 교육은 학습자가 역사적 시기에 걸쳐있는 표현의 영역, 보편적인 가치와 타당성의 영역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을 대표한다.⁷⁴⁾ 이 모형은 외국인 학습자가 학습하는 언어권의 문화나 전통을 이해한 후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개인적인 감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감동은 언어에 대한 관계 학습에 대한 흥미를 일으킨다. 학습자가 자신의 시대와 다른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감상하게 하는데, 이는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방법론에서는, 보다 교사 중심적이고 문화 전수적인 교육 방식과 관계가 깊다. 이는 문학에 관한 연구를 다루는 모형으로서, 테스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텍스트가 수단 내지는 도구로 인용될 뿐이라고 한다.⁷⁵⁾

콜리(J.collie)와 슬레이터(S.slater)⁷⁶⁾는 Carter& Long(1991)의 세 모형을 기반으로 아래의 4가지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①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 문학 작품은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초급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고급스러운 문장을 보아야 하는데 묘사하기, 서사하기, 풍자하기, 비유하기 등의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을 익히려면 신문, 광고문 등에서 보충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문장을 문학 작품들에서 익히게 된다.

② 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 문학 작품은 문화적 풍요를 보여준다. 문학 작품 속에 담긴 문화 맥락은 문화 이해에 유익하다.

74) 임경순.(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론』, 서울 :도서출판사

75) 김순자.(2013).에서 재인용.

76) J.Collie and S.Slater(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③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문학 작품 속에는 언어 자료가 풍부하다. 어휘, 표현, 문체 등이 다양하여 학습 대상 언어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유익하다.

④ 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 :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는 대상 언어를 통해서 상상력의 세계를 넓히고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다.⁷⁷⁾

윤여탁(2007)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언어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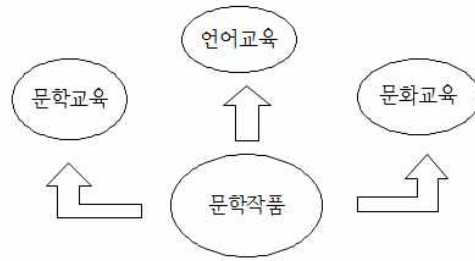
②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문화 능력 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③ 문학 교육의 목표를 한국학 또는 한국 문학의 차원에서의 접근하여 한국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을 목표로 구성: 한국 문학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 교수-학습함으로써 문학 능력을 함양하고, 세계 문학 속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모국어 문학과 목표 언어인 한국 문학을 비교 학습하는 관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의 한 양태로서 한국 문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⁸⁾

나정선(2008)은 문학 작품을 활용한 언어 교육은 언어 교육이라는 의미를 넘어 문화 교육과 문학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확장된 통합의 재료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학 작품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 작품에서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한국의 관습을 접하게 되어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낯설게 느끼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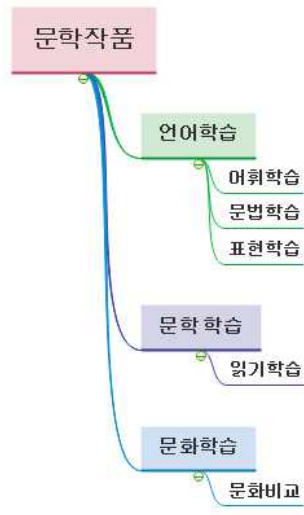
77)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14(1):131-152

78) 윤여탁.(2007). 앞의 책. pp.76~81.



〈그림 8〉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통합 형식

위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문학 작품 학습 모형을 살펴 이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 교육, 언어교육, 문화 교육을 통합한다. 이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연구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목적을 선정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설문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작품 속의 문학적 표현과 고급스러운 어휘, 문법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면 기본적으로 어휘, 문법, 표현을 충분하게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외국인들은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언어 능력을 높이는 것이 큰일이다. 또한 태국 학습자가 한국 문화나 한국 전통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과 태국의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 학습 방안에 한국 문화 학습하는 과정도 구성해야 한다. 설문 조사에서 제시한 방법의 강의, 교사의 강의, 영상자료 감상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공통점을 파악하면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겠다.



〈그림 9〉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 모형

4.1 언어 자료로서의 교수-학습 원리

4.1.1. 어휘 학습

문학에는 여러 어휘들이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급과 중급에서는 다의어를 학습하지만 문학에 사용되는 상징 어휘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고급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중의적인 어휘를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전략 분류는 크게 의미발견 전략과 기억강화 전략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 분류는 다시 세부적인 분류로 나뉜다. 의미 발견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접할 때 그 의미를 알아내고자 하는 데에 쓰이는 전략이며, 기억 강화 전략은 학습한 어휘, 습득한 어휘 지식을 보다 장기적으로 보존하고자하는 데에 쓰이는 전략이다. 따라서 어휘 전략은 새로운 단어를 학습자의 기억 장치 내부에 받아들이고 이를 최대한 길게 보존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⁷⁹⁾ 외

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작품을 이해하기 전에 그 작품의 어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 중-고급 수준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 지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휘 학습 방법이 초급 학습자와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겠다.

첫째, 어휘의 여러 의미 파악하기

문장 안에 나열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숨은 내용을 추측하고 문맥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어휘의 숨은 뜻을 추측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학습자는 그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고 다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 쓰는 용어가 대부분 문어체이므로 학습자는 문어체에 익숙해질 수 있다.

둘째, 어휘 기억 능력

문학 작품을 이해하면 감동을 받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고급 어휘일수록 일상에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학에서 받은 감동과 감정을 기억하면 그 단어가 각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어휘의 정확성

한국어는 표준어, 방언이 있기 때문에 어휘 이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한다. 모든 언어는 서로간의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였다. 그래서 한국어에 있는 외래어와 한자는 태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 한국어와 한자어에서 파생된 의미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1.2 문법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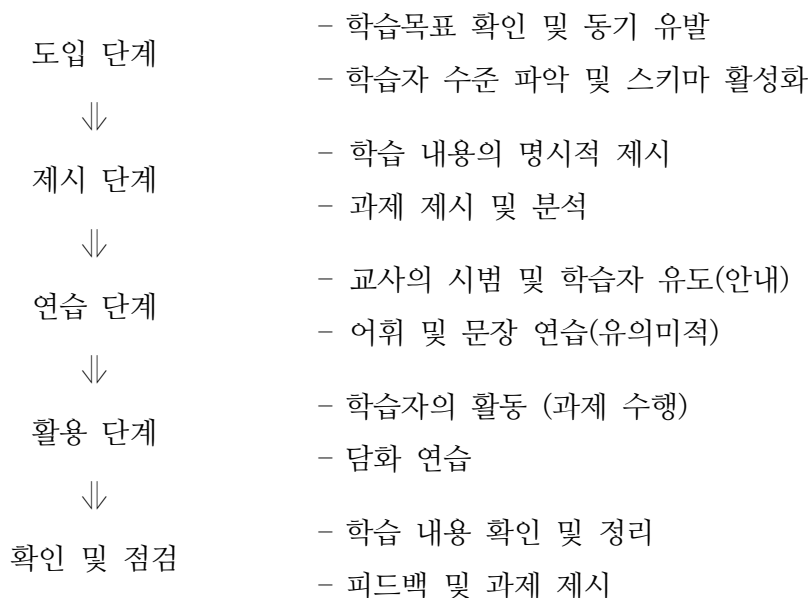
W·T·Littlewood(1984)에는 제 1언어(First Language)와 제 2언어(Second Language)의 개념을 갈라서 사용하여왔는데 제1언어는 모국어로 배우는 것이고 제2언어는 외국어로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79) Schmitt, N. and McCarthy, M. (eds.) (1997),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제 2언어이다. 태국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는 이중 언어 화자와 달리 한국어에 대한 내재문법이 없다. 태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어를 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없이 한국어로 읽고, 한국어로 문법을 이해해 표현하는 과정이 문법 학습에 필요하다. 그리하여 문학 작품을 통해 문법 학습 방법도 구상해야 한다. 한국어 수준별로 다양한 문법과 어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일반적인 문법 학습과 문학 작품의 문법 학습은 다르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에서는 문법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에서는 특히 시에서 문법을 파괴해 의미를 강조한다.

우형식(2012)⁸⁰⁾에서는 일반 문법 학습 모형은 문법적 정확성과 의사소통의 유창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시하겠다.



〈그림 10〉 일반적 문법 학습 모형

80) 우형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 99-128

위에서는 문법 학습 목표에 따라 다섯 단계의 학습을 구성한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문법을 교육할 때 도입 단계에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과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도입 단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면 제시 도입 단계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제시 단계는 학습내용의 명시적 제시를 하는 단계이다. 문법의 의미, 문법의 사용 상황 맥락 속에서 문장이나 상황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연습 단계는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다르다. 다양한 예시로 구성하면 학습자의 문법의 지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활용 단계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담화 차원의 연습과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유의한다.

제시 단계	- 학습 내용을 제시
↓	
연습 단계	- 어휘 및 문장 연습
↓	
확인 단계	- 학습 활동

〈표 19〉 문학 작품 통해 문법 학습 모형

그 다음의 문제는 문법을 가르칠 때 문학 작품에 나오는 문법을 다 가르치면 학습 목표와 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하는 목적은 언어 학습, 문학 학습 그리고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가장 핵심으로 나오는 문법을 고려해 교수 학습할 것이다. 그래서 작품의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기 전에 문학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 문학 작품을 분석하면서 교수-학습 방안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4.1.3 표현 학습

외국인이 한국어 표현을 학습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은 충분한 문맥 없이 그저 외우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배경 지식의 부재와 난해함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표현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표현을 지도하기 위해 학습 자료로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문학작품을 활용하고자 한다.

4.2 문학 활동 자료로서의 교수-학습 원리

4.2.1 읽기 학습 활동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작품 선정과 수업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목적 학습자의 한국어교육과 같이 전체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평균을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 학습자의 구어 사용 능력과 일상에서의 배경 지식 습득이 전반적인 한국어 학습 능력이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미리 배우기 학습단계를 지나면 작품에 나온 어휘, 문법, 표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흥미를 갖게 되어 수업 진행을 편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습득한 구어 능력이 문어 능력의 빠른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품 간 난이도의 폭을 일반 목적 학습자에 비해 조금 더 크게 적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 신장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EFL⁸¹⁾상황에서 문학 텍스트에서 읽기 방법은 세 가지 범주인 ① 감상범주, ② 이해범주, ③ 확대범주로 통합 가능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상단계 - 읽기 활동에서 최우선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학습자가 문학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민감한 인식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감상활동은 학습자들이 내용과 문학적 기예의 견지에서 분별 능력을 연마할 때 오는 체험의 즐거움에 기초를 둔다. 두 번째 예로서, 비유적 표현이 감상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 마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언어는

81) 김진수.(2007). 『영어 학습지도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방법』, 서울 : 한국문화사, p.35

기지의 세계와 이미지의 세계 모두를 시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는, 책의 포맷이 주요한 감상활동의 기초를 제공할 수가 있다. 네 번째로서, 삽화가 감상활동의 기초를 제공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 상상력이 감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상상력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섯 번째, 감정의 이입이 중요하다. 다른 요소들로서는 외국인들의 경우 호기심과, 모험심, 정보,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제공하는 책에 흥미를 갖게 될 때 감상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

② 이해단계 - 이는 듣고 읽혀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Steinbeck(1951)은 ‘책의 설계구조는 작가의 마음에 의해 통제되고 형태화된 실재의 한 형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이전의 인생체험과 문학과의 체험으로부터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단서를 갖게 된다. 이는 일종의 스키마라고 할 수 있다.

③ 확대단계 - 흔히들 ‘내면화 단계’라 부르는 것으로 스토리를 뛰어넘어 이해 단계와 즐거움을 확장시키는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계속 읽고자 하는 욕구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문학은 다양한 어휘를 제공한다. 따라서 후에는 그들은 좀 확장된 어휘력과 문형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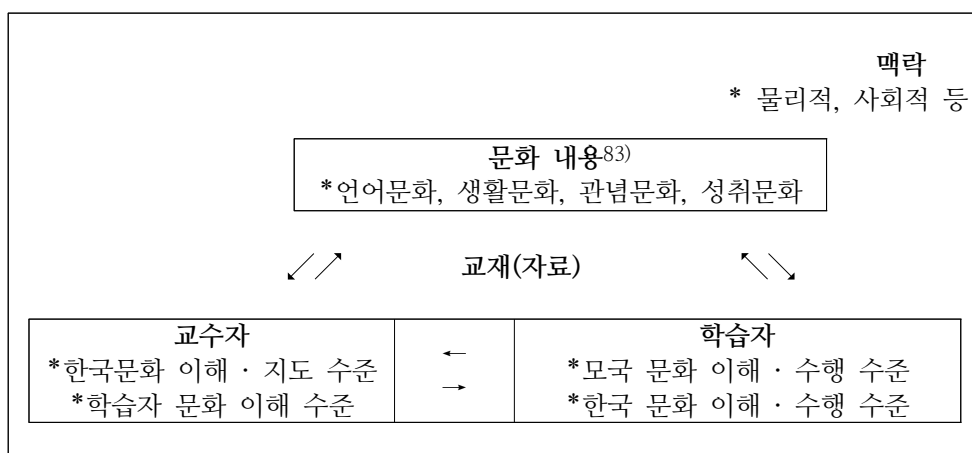
4.3 문화 자료로서의 교수-학습원리

윤여탁(2002)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넘어서 문화능력의 함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문학 관련 제재가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문화 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 수단 등을 풍부하게 제공해준다고 하였다.⁸²⁾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며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학습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언어 교육 중심의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시각, 즉 실제 언어 학습에 근거해 문화를 미시적이고 귀납적으

82) 윤여탁.(2002).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어교육학』, 10(2) : 149-176

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 수업 모형을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가, 문화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의 증가로 나타낸다. 김경순(2006)에는 문화 수업 모형은 교육의 핵심 구성요소인 교수자, 학습자, 내용, 교재(자료), 맥락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11〉 문화 학습 모형

한국 문화의 내용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뿐 아니라 교수들의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 수준, 학습자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작용하고, 학습자들의 자국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어 문학 작품의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이 크게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방안은 중요하다고 한다.⁸⁴⁾ 문학 작품의 배경 지식을 넓혀 문학 작품의 이해를 돕는 문화 교육 방안과 같이 제시되어 있는

83) 강승혜 외.(2010). 『한국 문화 교육론』. 서울 : 형설, p. 27

84) 김대행.(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국어교육연구』.12 : 157-180

논문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방안의 목적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보다는 문학 작품의 이해에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단면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학은 문화적 요소를 심도 있게 다루고 드러내므로 이러한 예술 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1 문화 비교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의 문화 비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서 더 나아가 문학 작품을 통해 태국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문화 비교는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한국 사람의 생각, 일상생활을 더 깊이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한국 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태국 문화도 더 깊이 파악할 것이다. 또한 한국 문학을 학습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의 배경은 외국인의 한국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학습하면서 한국 문학과 태국 문학을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의 목록이 중요하다. 다음은 3장에서 선정한 작품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 작품 속에 포함된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 비교 목록을 제시하겠다.

문학 작품	문화 비교
「주몽신화」	한-태 신의 특징
『수난이대』	‘업다’와 ‘안다’ 비교
「님의 침묵」	승려의 생활 비교
「태양을 향하여」	한-태 주택의 특징
「구두」	기후에 따른 복식 문화 차이

〈표 20〉 작품을 통해 한-태 문화 비교

V.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사례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언어적인 접근, 문학적인 접근, 문화적 접근일 것이다. 이때 외국인 학습자에게 온전히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문학 작품 선정은 단순히 교사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의존해 전달해버리면 학습자의 창의적인 작품 수용도, 더 나아가 다른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감상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고는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수업 유형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동료 학습자와 함께 다양한 활동도 해 보면 여러 가지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에 적합한 장르로 설화, 소설, 시, 희곡과 수필을 선정한다. 이것은 문화, 언어 기능을 활용하여 재미와 의의를 느끼게 하며, 학습자를 궁극적으로 ‘능동적인 문학인’으로 길러내는 일일 것이다.

또한 읽기의 성취기준은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독서 감상문 읽고 책의 내용 알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등이다. 쓰기는 일의 절차와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쓰기, 어떤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쓰기, 감상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쓰기 등이다. 이러한 읽기와 쓰기의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문학교육의 성취기준은 ‘문학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문학작품에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이해하기’,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리기’,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등이다.⁸⁵⁾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읽기의 성취기준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전 읽는 방법 익히기’,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글쓰기가 제시한 의견

85) 전미라.(1999). “현대시의 내재적 분석 방법론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기행문을 읽고 여정과 감상을 정리하기’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을 할 때는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쓰는 방법이 있으며, 제안하는 글쓰기, 마음을 나누는 편지쓰기, 그림책 만들기 등을 실제로 할 수 있다. 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살려 암송하기를 요구한다, 또 문학의 구성요소에 주목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면서 문학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작품 이해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한다. 문학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는 것도 문학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언어활동이 거의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통해 배운 한국에 대한 지식과 관용적 표현 등을 주제 토론 등 방식으로 직접 의사소통 능력을 연습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학습 방안을 통해 한국 언어교육으로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국인 학습자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들의 등급에 맞도록 문학 작품 텍스트를 선정한다. 이는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언어 수준, 문화 수준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태국인 학습자의 언어 기준과 같이 학습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 속에 반영하는 한국 문화를 태국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5.1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목표 설정

5.1.1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학습 활동

외국인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을 구성하는 어휘, 문법과 표현을 미리 배워야 하는 단계로 제안한다. 학습자가 어휘, 문법과 표현을 미리 학습하면 작품을 학습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언어 영역으로 학습 활동하는 경우는 읽고 말하기, 읽고 쓰기, 읽고 듣

기를 독립적으로 교수-학습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것은 언어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방안이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며 듣기와 쓰기, 읽기와 말하기 등 4가지 언어 영역으로 학습 활동을 진행하면 학습자가 한국어를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느낌, 생각, 활동으로 더 파악하고 언어 학습할 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흥미를 제공해주고 한국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

5.1.2 문학적 이해 학습 활동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을 이해하도록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교수 학습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작품의 주제,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물, 작품의 배경이나 상황, 작품의 갈등 분석은 학습자가 이해하면 작품의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학 이해와 감상으로 국한되는 학습자의 수동적 수용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문학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문학 향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5.1.3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학습 활동

한국 문학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문화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인의 문화 영역을 알게 되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잘 알게 되어서 한국 문학 작품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방안을 만들기 전에 문화 학습 등급을 알면 태국인 학습자에게 이에 맞는 한국 문화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 한국 문화를 등급별로 제시한 것이다.

등급	내용
1급	1.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2급	1. 한국인의 행동 양식(인사법, 손짓, 몸짓 등)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주생활(주거, 건축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3. 한국인의 식생활(음식, 음주, 식사 예절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4. 한국의 교통 문화(교통, 운송, 길 찾기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5. 한국인의 경제 활동(화폐, 구매 등)을 이해한다. 6. 한국인의 예절(예법에 맞는 의례적 행동)을 이해한다. 7. 한국의 기후(날씨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8. 한국인의 의생활(한국인의 옷차림, 한복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3급	1. 한국인의 여가 문화(여행, 취미 생활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가족 관계, 친족 호칭 등을 이해한다. 3. 한국인의 개인적 활동(동아리, 친목 모임)을 이해한다. 4. 한국인의 사회적 활동(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을 이해한다. 5. 한국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한다. 6.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안다. 7. 한국의 문화유산(무형 문화: 노래, 춤 등)을 이해한다. 8. 한국인의 가족 제도(대가족, 핵가족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4급	1. 한국인의 세시 풍속을 이해한다. 2. 비언어 행위(가슴을 치다 등)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3. 기본적인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관습(제도, 관습, 의식, 의례 등)을 이해한다. 4. 한국의 문화유산(유형 문화: 도자기, 사찰 등)을 이해한다. 5. 한국의 교육 제도를 이해한다. 6. 한국의 대중문화(가요, 영화 등)를 이해한다. 7. 한국의 국가 상징물(태극기, 애국가 등)을 이해한다.
5급	1. 대략적인 한국의 역사를 이해한다. 2.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역사적 인물, 현대 유명 인사 등)을 이해한다. 3. 한국의 교육 문화의 특징(입시, 학원, 교육열 등)을 이해한다.
6급	1. 한국의 특징적인 역사(식민 지배, 한국전쟁, 분단 상황 등)를 이해한다.
7급	1. 한국인의 종교, 철학, 윤리, 민간신앙에 반영된 가치관을 이해한다.

	다.
--	----

〈표 21〉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등급별 문화 영역의 목표 기술

5.2 설화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5.2.1 학습 목표에 따른 「주몽신화」의 텍스트 분석

한국의 신화에는 한국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국 신화는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생부터 배웠던 내용이다. 한국 신화의 내용은 교훈적이고 인생의 나침반이 된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의 현대 모습을 많이 못 보긴 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한국의 옛날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국어교육이나 문학교육, 일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는 한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구성한다. 왜냐하면 한국 신화가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신화에 관심이 많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에 신화 내용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몽신화」는 한국의 건국 신화의 하나로 ‘고구려’ 건국신화이다. 태국인 학습자는 「주몽신화」를 배우면 한국 역사와 같이 연결해서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몽신화」 86)

1. 주몽의 어머니 유화

먼 옛날, ‘동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 동부여의 왕은 금와였다. 어느 날 금와 왕이 우발수 강가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다.

“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금와 왕이 여인에게 물었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인이 금와 왕에게 말했다.

“그런데 왜 혼자 울고 있느냐?”

금와 왕에게 울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했다.

“저는 동생들과 물 밖에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놀라서 도망갔지만 저는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해모수였습니다. 해모수는 자기가 하늘나라 임금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모수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해모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모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서서 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매도 없이 남자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화의 이야기를 들은 금와 왕은 유화가 불쌍했다. 그래서 유화를 도와주고 싶었다. 금와 왕은 유화를 자기 궁궐로 데려갔다.

2 알에서 태어난 아이

금와 왕은 유화를 궁궐에서 살게 했다. 궁궐 안쪽에 있는 방을 주고, 방안에만 있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햇빛이 유화를 따라다녔다. 유화는 햇빛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햇빛이 계속 유화를 비추었다. 얼마 뒤에 유화는 배가 불러 왔다. 그리고 얼마 뒤에 유화가 큰 알을 하나 낳았다. 유화가 알을 낳자 금와 왕은 깜짝 놀랐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좋은 일이 아니다!”

금와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었다. 그런데 개와 돼지가 그 알

을 피해서 다녔다. 금와 왕이 알을 길에 버렸다. 그러자 짐승들이 알을 밟지 않으려고 피해서 다녔다. 금와 왕이 알을 들판에 버렸다. 이번에는 동물과 새들이 알을 감싸 주었다.

정말 이상한 알이었다. 금와 왕은 알을 가져 와서 깨뜨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와 왕은 알을 깨뜨릴 수 없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알이 깨지지 않았다. 금와 왕은 알을 형겔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다. 얼마 뒤에 남자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

3. 활을 잘 쏘는 아이, 주몽

알에서 나온 아이는 매우 빨리 자랐다. 그 아이는 재주가 많아서 못 하는 게 없었다. 아무리 먼 거리에서 활을 쏘아도 백발백중이었다. 아이는 활과 화살도 직접 만들었다. 동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다.

금와 왕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재주가 주몽보다 못했다. 나이가 어린 주몽이 무엇이든지 왕자들보다 더 잘 했다. 그래서 왕자들은 주몽을 미워했다. 왕자들에게 주몽은 눈엣가시였다.

어느 날 금와 왕의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나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주몽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금와 왕은 맏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금와 왕이 맏아들에게 말했다.

금와 왕이 주몽에게 일을 맡겼다. 말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다. 주몽이 말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빠른 말을 한 마리 골랐다. 주몽이 다른 말들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었다. 그러나 자기가 고른 말에게는 먹이를 조금만 먹였다.

어느 날 금와 왕이 말들을 보러 왔다. 살찐 말들이 많이 있었다. 금와 왕이 주몽을 칭찬했다. 금와 왕은 살찐 말들을 골라 왕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제일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금와 왕에게 받은 말을 잘 먹였다. 주몽의 말은 동부여에서 가장 빠르고 튼튼한 말이 되었다. 주몽이 피를 내어 가장 빠른 말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왕자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왕자들은 영리한 주몽을 더 미워했다. 왕자들이 주몽을 죽이기로 했다.

4. 동부여를 떠나는 주몽

주몽의 어머니는 주몽을 걱정했다. 왕자들이 주몽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몽의 어머니가 왕자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주몽을 불렀다.

“지금 왕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서둘러 이곳을 떠나라.”

유화가 주몽에게 말했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랐다.

주몽은 궁궐을 떠나는 게 두려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어머니,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몽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너는 재주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살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유화가 아들에게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곧 떠나겠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주몽은 세 친구와 함께 동부여를 떠났다. 그런데 왕자들이 주몽을 쫓아왔다. 주몽 일행은 빨리 말을 달려서 도망갔다. 얼마 후에 주몽 일

행이 강가에 도착했다.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주몽 일행은 배가 없어서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뒤에서는 왕자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다급해진 주몽이 물을 향해 소리쳤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손자입니다.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몽의 말이 끝나자마자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가 물 위로 떠올랐다. 물고기와 자라가 자기 몸으로 다리를 만들었다. 주몽 일행은 지나가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주몽을 쫓아오던 왕자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다.

5. 고구려를 세운 주몽

무사히 강을 건넌 주몽 일행이 졸본에 도착했다. 주몽은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졸본을 수도로 정했다. 그리고 강가에 작은 초가집을 지어 궁궐로 사용했다. 갑자기 동부여를 떠났기 때문에 화려한 궁궐을 지을 수 없었다.

주몽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정했다. 그리고 ‘고’씨를 자신의 성으로 삼았다. 고주몽은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고주몽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리고 기원전 19년, 고주몽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마흔살 때였다.

1)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⁸⁷⁾

동부여 = 고구려 북쪽에 있었던 나라(59-410)

86)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25나라를 세운 사람들 단군산화, 주몽신화, 박혁거세 신화』, 서울 : 학이 시습

8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했다.<http://stdweb2.korean.go.kr/main.jsp>

활쏘기 = 활을 쏘는 일이다.

쫓겨나다 = 다른 사람이 내쫓아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되다.

애를 쓰다 = 힘쓰다. 노력하다.

없애다 = 죽이다.

영리하다 =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

서두르다 = 빨리 하려고 급하게 움직이다.

다급해지다 = 매우 급해지다.

자라 = 거북과 비슷한 동물이고 등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아주 느린 동물이다.

(나) 문법⁸⁸⁾

① 기 위해서 =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② (이)기로 하다 = 앞의 말이 나타내는 행동을 할 것을 결심하거나 약속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③ ㄴ/은 지 =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 표현⁸⁹⁾

백발백중 = 백 번 쏘아 백 번 맞힌다는 뜻으로, 총이나 활 등을 쏠 때마다 원하는 곳에 다 맞히다.

2) 문학적 이해 학습을 위한 분석

(가) 인물

① 주몽 : 해모수와 유화의 자식이다. 주몽은 재주가 많아서 못 하는

88)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했다.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89)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했다.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게 없었다. 특히 활을 잘 쏜다. 그리고 고구려 나라를 세운 왕이다.
- ② 해모수 : 하백의 딸 유화와 정을 통해 주몽을 낳았다. 해모수는 태양을 뜻하며 태양승배 종족의 유풍에서 유래되었다.
- ③ 유화 : 수신 하백의 딸로서 물 밖에 나와서 놀고 있었는데 해모수의 꾀에 빠져 정을 통해 하백에게 버림받게 되고 금와 왕을 만났으나 금와 왕이 유화를 이상이 여겨 어두운 방 안에 가두었으나 햇빛이 비춰 잉태하게 되니 주몽이 태어났다.
- ④ 금와 왕⁹⁰⁾ : 금와라는 이름은 바로 금빛나는 개구리 모양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 태자로 책봉되어 해부루를 이어서 부여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태백산 남쪽의 우발수에서 하백에게서 쫓겨난 하백의 딸 유화를 발견하고 궁중으로 데려왔다.

(나) 상황

「주몽 신화」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로, 주몽의 혈통과 신이한 탄생 과정, 시련과 영웅적 투쟁을 통한 건국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어 영웅 일대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주몽신화」는 여러 학자에 의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읽는 책뿐만 아니라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 사용 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에서 성공적인 활용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 만큼 신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서사구조가 탄탄하다는 반증이다. 「주몽신화」는 한국 역사로서의 고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역사로서 신화, 원시종교로서의 믿음, 신화 자체로서의 문학적 측면을 볼 수 있다. 주제에 있어서는 인간 세계에 대한 신들의 관심,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세 주의적 세계관 등이 두드러진다.

(다) 모티프

김문태(2004)에서는 이 작품은 고주몽이라는 영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는가를 다룬 건국 신화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영웅의 일대기가 서술의 초점이 된다. 또한, 이 글은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나는 「난

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참고했다. <http://www.doopedia.co.kr>

생 신화」에 해당되며, 이른바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드는 ‘어별성교’의 유명한 모티프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상 서사적 폭이 광대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화에는 고대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이 신화가 단일한 모티프 화소였다기보다 여러 모티프가 모여 완성된 하나의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 갈등구조

이 신화에서 유화는 지신인 하백의 딸이고, 해모수는 천신인 천제의 아들이다. 따라서 내용에서는 서사적 폭이 광대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백은 유화에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집에 쫓겨났다. 또한 금와 왕의 왕자들이 주몽을 미워해서 주몽을 죽이려고 한다. 이러한 신화 속에는 고대인들의 세계관, 자연관, 우주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현대를 사는 인간들 역시 세계의 신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세주의적으로 신화를 볼 수 있다.

(마) 결말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금와 왕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많아서 금와 왕의 왕자들보다 능력이 많다. 금와 왕의 왕자들은 주몽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화가 미리 알아서 주몽을 다른 곳으로 서둘러 가라고 했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동부여로 나갔다. 동부여 가는 길에 큰 강에 도착한다. 주몽을 돕기 위해서 물고기와 자라가 자기 몸으로 주몽에게 다리를 만들어줬다. 주몽은 졸본에 도착하고 나라를 세웠다. 주몽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 왕위에 오른 지 19년만에 하늘에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았다.

3)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학습 활동

(가) 시대 배경과 관련된 문화

신화는 창작하고 향유한 집단의 문화를 반영하는데, 이 신화에서도 당대인의 여러 가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천신(천제)과 수신(하백)에 대한 신성 의식은 한국 사람이 고대부터 천신과 수신을 숭배했음을 보여 주고, 주몽이 활쏘기에 능했다는 점에서는 당시가 유목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화가 햇빛을 받고 잉태한 점에서 당대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도 지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신화는 통해서 고대 한국들의 자연물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다.

(나) 인물의 행동과 말과 관련된 문화

「주몽신화」에서 주몽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주몽은 비록 출생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능력도 탁월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은 일반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주었다.

5.2.2 「주몽신화」의 교수-학습 사례

이 작품은 고주몽이라는 영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는가를 다룬 건국 신화이다. 그러기에 영웅의 일대기가 서술의 초점이 된다. 이 작품은 건국 신화로 유명한 모티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화가 단일한 화소 보다 여러 화소가 모여 완성된 하나의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곧, 금와 전설, 해모수 신화, 난생신화 등이 적절히 배합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고구려의 세력 범위가 광활하였다는 것도 연관 될 수 있다.

이 신화에서 유화는 수신인 하백의 딸이고, 해모수는 천신인 천제의 아들

이다. 따라서 동명왕의 부계는 ‘천제-해모수-동명왕’이며, 모계는 ‘하백-유화-동명왕’으로 「단군 신화」와 비교할 때 모계가 지상의 웅녀에서 하백의 딸로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으며, 내용상 서사적 폭이 광대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신화 속에는 고대인들의 세계관, 자연관, 우주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에 있어서는 인간 세계에 대한 신들의 관심,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세 주의적인 세계관 등이 두드러진다.⁹¹⁾

1) 학습 대상과 수업 차시

태국인 학습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4학년으로 3학점 학부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습의 목표

- (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 (나) 태국인 학습자가 「주몽신화」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인의 정서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다) 「주몽신화」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한국 사람의 신념을 알게 된다.

3) 학습 과정

- (가) 「주몽신화」에 나온 어휘, 문법, 표현을 먼저 학습한다.
- (나) 「주몽신화」 내용을 읽기 활동을 진행한다.
- (다) 학습자에게 한국과 태국 신화를 비교한다.

4)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학습자가 「주몽신화」를 학습하기 전에 어휘, 문법, 표현을 먼저 학습을

91)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지음. (2006). 『고전』, 서울 : 디딤돌, p.280

해야 한다.

※ 다음 어휘의 의미를 추측 해보십시오.

동부여	데려가다	중매	쫓겨나다	비추다
짐승	밟다	들판	감싸다	애를 쓰다
없애다	영리하다	서두르다	가로막다	다급해지다

※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고 빈칸에 넣어보십시오.

비추다	없애다	애를 쓰다	쫓겨나다	들판
-----	-----	-------	------	----

- 1)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2) 유화는 햇빛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햇빛이 계속 유화를 비추었다.
- 3) 금와 왕이 알을 들판에 버렸다.
- 4) 아무리 애를 쓰도 알이 깨지지 않았다.
- 5) 주몽을 없애야 합니다.

(나) 문법

① (이)기로 하다 = 앞의 말이 나타내는 행동을 할 것을 결심하거나 약속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보기〉

탐 : 제인씨, 오늘 저녁에 뭐 해요?

제인 : 수진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어요.

- 1) 토마스 : 탐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탐 : 제인하고(영화 보다)

- 2) 제인 : 탐 씨 오늘 우리 한잔 하자!

탐 : 미안해요. 올해는(술 마시지 않다)

3) 제인 : 탐씨는 전공을 아직도 안 정했어요?

탐 : 저는(한국어, 전공하다)

4) 제인 : 오늘 저녁에 뭘 할 거예요?

탐 :.....(테니스를 치다)

②-ㄴ/은 지

받침 없다/ ㄴ	-ㄴ 지	받침 있다	-은 지
오다	온 지	끝다	끝은 지
사귀다	사귀는 지	듣다	들은 지
놀다	논 지	짓다	지은 지
만들다	만든 지	돕다	도운 지

※ 보기와 같이 해보십시오.

보기 : 2016년에 김하나는 졸업했다. (졸업하다)

» 김하나는 졸업한지 2년 됐어요.

1) 2014년에 김경아는 결혼했다.

»

2) 2015년에 8월에 쏜니는 한국에 왔다.

»

3) 2013년에 김진수는 한국어를 가르쳤다.

»

4) 2016년에 강소현은 헬스에 다녔다.

»

5)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 살았다.

»

※ 그림을 보고 답을 하십시오.

1) 김와나는 대학교를			4년 되었습니다.
2) 강성희는 영어를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3) 박성민은 태국에			3년 되었습니다.
4) 솜차이는 일본어를			5년 되었습니다.
5) 나정희는			3년 되었습니다.

(다) 표현

※ 다음 보기를 보고 뜻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골라보십시오.

칠전팔기	이심전심
백발백중	십시일반

- 1).....100번 쏘아 100번을 맞히다.
- 2).....마음과 마음이 통하다.
- 3).....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구제하기 쉽다.
- 4).....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말이다.

5) 문학 작품 읽기 학습 활동

(가) 읽기 전 학습 활동

태국인 학습자에게 「주몽신화」를 이해하도록 「주몽신화」의 구조와 나타나는 인물을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

부여의 왕인 금와 왕의 신이성과 부여의 천도.
☞
금와 왕에게 해모수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유화.
☞
주몽의 신이한 탄생과 뛰어난 능력.
☞
부여의 왕자와 신하가 주몽을 시기하자 유화가 떠날 것을 권함.
☞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남.
☞
고구려의 건국

〈표 22〉 「주몽신화」의 정리

(나) 읽기 학습 활동

교사는 학습자에게 「주몽신화」작품을 전체로 나눠준다. 학습자에게 10분 정도 시간을 내주고 작품을 읽은 후에 내용을 확인한다.

(다) 읽고 듣기 활동

학습자에게 「주몽신화」를 읽게 하고 학습자가 더 흥미롭게 공부하도록 듣기 활동으로 진행한다. 듣기 활동 내용으로 「주몽신화」애니메이션을 보여 준다. 학습자가 「주몽신화」를 본 후에 내용을 복습하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한다.

(라) 듣고 답하기 활동

※ 동영상을 보고 답을 하십시오.

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부여에서 빠져 나와 고구려를 세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활을 아주 잘 쏘아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 단국

(㉡) 주몽

(㉢) 왕건

(㉣) 대장금

2) 주몽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 일반사람처럼 병원에서 태어났다.

(㉡) 알에서 태어났다.

(㉢)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 말에서 태어났다.

(마) 읽고 정리하기

학습자에게 「주몽신화」를 읽은 후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정리하도록 한다. 그룹으로 진행하고 학습자 3-4명 정도가 같이 정리하고 교실 앞에 나와서 친구에게 발표해준다.

① 해모수 = 천제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 고도에 내리어 놀게 하니, 이름이 해모수이다. 해모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오룡거를 타고, 종자 100여인은 모두 백곡을 가지고, 채색 구름이 그 위에 뜨고 음악 소리가 구름 가운데서 울렸다.

② 유화 = 「동명왕 신화」에서 해모수의 아내이자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는 주몽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인물이다. 유화는 남편들(해모수, 금와)로부터 버려지거나 폐쇄된 공간에 갇히는 등 시련을 겪으면서도 아들 주몽의 생명을 지켜 낸다. 건국 신화에서 강인함과 뛰어난 능력으로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협력하고 인내하는 보조자로서 제시되고는 했다.

③ **금와 왕** = 부여 금와 왕은 알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나 실패를 하였고 결국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에게 돌려주었다.

④ **금와 왕의 아들(왕자들)** = 금와 왕의 일곱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다.

⑤ **주몽** = 알 속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부여를 탈출하여 고조선의 유민세력과 규합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고구려 명칭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면 돌로 성을 쌓아 만든 요새를 구루라고 하는데 이 성을 잘 쌓는 사람들을 당시에 “구려”라고 불렀다고 한다. 후에 고구려 동명성왕 주몽이라고 도시를 왕실의 성으로 하면서 고구려라고 칭하게 되었다.

6) 문화 비교 활동

(가) 한국 신

한국의 종교에서 신은 성스러운 존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인간 생존이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신은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본질적인 정신세계를 의미하며, 숭배하고 외경하는 대상 또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불교에서의 신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귀신** : 크게 나누어 인신과 자연신이 있다. 인신은 사람이 죽은 뒤에 육체와 분리된 상태의 혼백·혼령, 자연신은 태양신·산신·수신 등 자연물에 의부해 존재한다는 각종 신이다.

② **천신** : 하늘에 계시는 상제(上帝), 하느님을 비롯한 각종 신이다.

③ **불(佛)신인** :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초능력을 겸비한 존재 또는 그 경지를 지칭이다.

④ 정기·정수한 기운 : 인간과 우주에 편만 된 맑은 기운 등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의 본질과 특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종교적 전통과 신화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⁹²⁾

(나) 태국 신

태국사람이 믿는 신은 대부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 태국인의 불교의 부처님은 힌두교에 있는 여러 신들이 보호해서 세상에 내려왔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불교의 신인 부처님이 힌두교의 여러 신과 결합된 개념의 신이다.

① 프라프롬신 : 창조주와 자비는 창조주로서 우주의 모든 것을 낳고 배다를 낳았다. 브라브롬신은 네 얼굴이 있고 각 손에는 연꽃, 책, 라디에이터, 백조 또는 거위를 들고 있다. 태국 사람들은 다른 신들보다 먼저 숭배 한 신이다.



② 비슈누신 (Vishnu) : 나라를 만드는 신은 모든 세 세계를 질서 정연하게 책임지는 신이다. 힌두교의 신념에 따라 세 세계의 수호자. 왕의 옷에는 황금 왕관이 장식되어 있으며, 트라이던트 트링크를 들고 있는 4 개의 옐로 옷을 입고 있지만, 가장 흔한 광경은 나이트의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연꽃이 있거나 전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 태국 호텔 앞, 백화점 앞이나 중요한 장소는 대부분 프라프롬우상이 개설되어 있다.



92)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를 참고했다. <https://terms.naver.com>

③ 어머니 테라신 : 지구의 여신이고 어머니는 세상과 땅을 낳았다. 힌두교의 모토에서 지구는 어머니가 세상과 땅을 낳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원한다. 그것은 자연의 신으로 여겨지고 “타리트스리(Tarrithithri)”라는 여성은 “지구의 지지자”를 의미이다.



④ 프라피카네수운신 : 힌두교 신들 중 지식의 신이다. 이는 몸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코끼리의 얼굴이다. 학교, 대학교들에 프라피카네수운신의 우상이 설치되어 있다.



태국과 한국은 신에 대한 범주가 다르다. 한국은 종교의 개념으로 통일되는 것에 반해 태국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각 신의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른 신들은 태국 사람의 일상생활에 기원의 대상으로 깊이 박혀 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인 프라피카네수운신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은 우상이 곳곳에 있지 않다. 절에 가거나 무속인의 집에 가야 볼 수 있다. 여러 신의 형상을 집에 두고 생활 곳곳에서 신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태국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태국 학생의 의식 깊이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일상 문화에서 이해되거나 만나기 어렵다.

한국인의 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문학 작품과 신화,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태국인은 전통적인 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설화나 민담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수월하다. 이런 개념적 접근에 단군신화, 주몽신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3 소설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5.3.1 학습 목표에 따른 『수난이대』의 텍스트 분석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의 전체 목록 중에는 자국어에 익숙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학 작품들도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 역사를 배워본 적 없는 외국인은 한국 전쟁을 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가 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현대 상황과 모습을 접할 수 있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품들을 선정하면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선택하는 것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난이대』는 하근찬의 단편소설이다.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아버지 박만도는 일제(일본 제국)시대에 징용에 끌려가 남양의 어느 섬에서 동굴을 파다가 왼쪽 팔을 잃어버린 불구자로서, 지극히 평범한 촌부이다. 아들 진수는 6·25에 참전해 한쪽 다리를 잃고 상이군인이 되어 귀향한다. 이들 『수난이대』는 그대로 한국 민족이 겪어온 수난이자 역사의 비극을 통한 인간정신의 고양 내지 휴머니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밑바닥에 깔고 있다. 소설 마지막에서 부자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은 바로 수난과 비극을 극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상황의식의 표출이 골자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독자가 느끼는 감명은 그와 반대로 구체적인 묘사와 진솔한 인간정신에 놓인다. 이처럼 하근찬의 작품은 서민의 애환, 즉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인물들을 다룬다. 그럼에도 이들은 끝내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노력한다. 좌절을 이겨내는 그들에게는 우리 전통사회에 면면히 흘러오던 인정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도 휴머니즘 계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⁹³⁾

93) 이광식.(2002). 『한국현대문학 작문사전』, 서울 : 가람기획, pp. 603-604

『수난이대』 줄거리⁹⁴⁾

만도는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몹시 마음이 들떠있다. 그는 일찌감치 역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나온다는 말이 약간 걸리기는 했으나, 설마 아들이 자기처럼 되지는 않았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는 한쪽 팔이 없었다.

기차역에서 아들이 탄 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만도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떠올려 본다. 그게 벌써 지금부터 십이삼년 전의 일이었다. 일제에 강제 징용을 당한 만도는 어딘지도 모르고 고향을 떠났다. 만도가 도착했던 곳은 남양의 어떤 섬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행장 닦는 일에 동원되었다. 비행장이 완성되고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번엔 산허리에 굴 파는 일이 주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고 불을 당기고 나서려는 순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고 말았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엉겁결에 다시 굴로 들어가 엎드리고 말았다. 그 순간 다이너마이트의 폭음과 함께 의식을 잃고 말았다. 만도는 깨어났을 때 눈앞에는 누구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멀려서 기차소리가 들렸다.

꽤액, 기차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집어 들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땡땡땡... 종이 울리고, 잠시 후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이 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의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만도는 안달이 나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뒤에서 "아부지!"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펴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질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기 무슨 꼴이고. 이기!”

“아부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꺾꺾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 그래 댔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댔심니꼬. 수류탄 쏘가리에 맞았심더.”

“수류탄 쏘가리에?”

“예.”

“음....”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 버립디더. 병원에서예.”

“.....”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노니 첫째 걸어 땡기기에 불편해서 툭 죽겠심더.”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땡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렇까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을 니가 하고, 나땡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다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 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등어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그것을 본 진수가.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 한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불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 쥐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불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멍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수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

진수는 펍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을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아,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으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찡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거리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부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았을텐데....’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94) 김병철·김성동·박재혁·신영산.(2013). 『중학 국어교과서 소설 읽기』. 서울 : 문예춘추사, pp.117-134

1)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동원되다 = 어떤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람이 모아지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가 집중되다.

영겁결 =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이다.

산모통이 = 산기슭의 쭉 내민 귀퉁이다.

울렁거리다 =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서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다.

두리번거리다 =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를 자꾸 휘둘러 살펴보다

펼럭거리다 = 바람에 빠르고 힘차게 잇따라 나부끼다.

쏟아지다 = 어떤 일이나 대상, 현상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다.

지팡이 = 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이다.

개천 = 개골창 물이 흘러 나가도록 길게 판 내다.

외나무다리 = 한 개의 통나무로 놓은 다리이다.

불구 =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이다.

부자 = 아버지와 아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나) 문법

① 르/을 수록 = 어떤 상황이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짐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② 곤하다. = 어떤 상황의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 표현 : 의성어, 의태어

활활	벅벅	꽤꽤	쑥쑥	휘청휘청	달랑달랑
획획	간질간질	굵적굵적	쿵쿵	픽픽	땡땡땡
꾸역꾸역	성큼성큼	척척	절름절름	흑흑	느릿느릿

2) 문학적 이해 학습을 위한 분석

(가) 작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한국의 수난 역사가 어떻게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자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근찬은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수난이대』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이 작품은 일제하의 제2차 세계대전과 6·25동란이라는 전란과정을 통해서 민족적 수난을 집약한 문제작이다. 주요 작품으로 단편 『낙뢰』, 『나룻배 이야기』, 『왕릉과 주둔군』, 『삼각의 집』, 『죽제비』 등과 장편 『야호』, 『산에 들에』 등이 있다. 1973년 단편집 『수난이대』, 『산울림』, 『검은 자화상』 등 다수를 출간했다. 한국 역사적 상황에 연관된 현실인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른바 실존주의의 영향과 전후 파적 취향이 소설에 지적 허영 내지 관념적 난삽을 적지 않게 유행시켰던 50년대 후반에, 무지하고 가난한 시골 사람들 이야기가 생활 속의 절실한 인정과 역사적 수난의 아픔이며, 그 아픔을 이기고 일어서는 삶의 강한 집념인 점에서 창작의 당연하고도 새로운 본령을 일깨웠다. 1970년 한국문학상, 1983년 유주현문학상, 1998년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⁹⁵⁾

(나) 인물

『수난이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2명이다. 만도와 진수이다. 이 두 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만도는 진수의 아버지이며, 일제(일본 제국)시대 징용에 끌려가 남양

95) 이광식.(2000). 『한국현대문학 작은 사전』. 서울 : 가람기획, p.603

군도에서 비행장 공사를 하다가 팔 한 쪽을 잃어버렸다.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지만, 삶의 의지가 강하고 낙천적이며 익살기가 있는 인물이다.

② 진수는 만도의 아들이다. 6·25에 참전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상이군인이 되어서 귀향하였다. 아버지 만도와 마찬가지로, 가기가 거대한 폭력의 희생물이라는 역사인식은 없지만,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려는 의지의 소유자이다.⁹⁶⁾

(다) 상황

하근찬은 『수난이대』에서 한국 민족이 근대 이후 겪어야 했던 두 큰 전쟁인 제2차 세계 대전과 6.25전쟁을 연결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점이지만, 전쟁을 다룬 그 많은 작가들 중에서 두 전쟁을 합쳐서 연결시킬 줄 안 사람은 거의 없었던 점을 상기할 때, 하근찬의 밝은 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더구나 그것을 부자 2대의 수난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한 순간의 1회적인 비극이 아니라 민족의 근본 문제임을 암시했다. 두 번의 대전과 2대에 걸친 비극을 단지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시켜 감동적으로 극화할 수 있었다는 데서 그의 소설가로서의 구성 능력이 돋보인다. 전쟁이나 역사가 인간에게 남겨 준 처절한 아픔과 불행을 열을 올려 부르짖거나 설익은 주제 의식으로 외치려 하지 않고, 다만 제시하기만 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역할과 영역을 차분히 지켰다는 점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라) 모티프

만도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바람이 나서 마중을 나간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바로 이 대합실을 통해서 예전에 일본으로 강제 징용 가던 일을 회상한다. 마침내 기적 소리가 나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대합실을 뛰쳐나간다. 그러나 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그때 등 뒤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데, 그 순간 만도는 실망했다. 아들이 한쪽 다리를 잃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2대에 걸쳐 일어난 민족의 수난을 그저 한탄하고, 그

96)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지음.(2006), 『소설』. 디딤돌 : 서울, p.209

렇지만 울분과 슬픔을 달래며 집으로 향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나무다리에 이르자 두 부자는 난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리가 성한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그 대신 팔이 성한 아들은 고등어를 든다. 이 순간 두 부자는 안정을 되찾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마) 갈등구조

주인공 박만도는 일제 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자기 아들인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뻐했다. 아침부터 역으로 가서 아들을 마중하러 나왔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나온다는 아들의 상처에 대해 걱정한다. 마침내 아들을 만났는데 진수의 한쪽 다리는 잘려져 있었다. 만도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진수에게 화를 냈다. 집에 가는 길에 외나무다리에 이르러 만도는 진수에게 업히라고 한다. 진수는 아버지가 들고 있던 고등어와 지팡이를 각각 한 손에 들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다. 만도는 용케 몸을 가누며 무사히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다.

(바) 결말

『수난 이대』에서 불구의 아버지가 불구의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이라든가 외나무다리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적극적인 삶의 생각과 자세로 바뀐다는 점에서도 이 장소가 심상치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세계가 긴장했었다. 이러한 전쟁 때문에 이 소설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농민이 수난을 당하는 슬픔을 그린 가슴 아픈 소설이다.

3)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학습 활동

(가) 시대 배경과 관련된 문화

① 6·25 전쟁⁹⁷⁾

97) 김은숙·차예진·김지혜.(2014). 『한국사 바로가기 (하)근·현대편』. 서울 : 좋은 책신사고, p.192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각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38도선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950년 전후 한반도는 안팎으로 정세가 불안하였다. 남한 사회는 대구 폭동,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등 좌·우익의 갈등으로 매우 혼란하였다. 한편 소련은 원자 폭탄을 개발하였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국·공 내전에서 승리하여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애치슨 선언).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 전쟁을 감행하였다.

(나) 인물의 행동과 말과 관련된 문화

『수난이대』에서 중요한 인물이 2명이며,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말하기에는 어린이가 어른에게 대화할 때 꼭 높임말을 말해야 한다. 반대로 어른이 어린이에게 말하면 계속 명령 말투로 말한다. 필자의 입장으로는 여기서는 한국의 연공서열제도(seniority system)에 대한 문화는 태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를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언어와 관련된 문화라서 외국인이 배우면 수업할 때 더 흥미롭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태국은 가족 사이에는 반말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한국 가정에 대한 관계도 볼 수 있다. 집이 어려워도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여 도와줘야 한다.

(다)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화

『수난이대』의 갈등구조에 따라 집에 가는 길에 외나무다리에 이르러 만도는 진수에게 업히라고 한다. 진수는 아버지가 들고 있던 고등어와 지팡이를 각각 한 손에 들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다.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은 ‘업다’나 ‘업히다’하는 행동을 많이 볼 수 있다. ‘업다’의 의미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붙들어 매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5.3.2. 『수난이대』의 교수-학습 사례

태국인 학습자는 한류로 한국의 현대 문화와 한국 사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식민 시대를 겪은 근대 역사는 알지 못한다. 근대 시대에 한국은 태국과 비슷한 침략을 경험했다. II장에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역사와 한국 전쟁을 3번째와 4번째 순으로 학습하고 싶어 한다고 응답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계속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잘 모른다.⁹⁸⁾ 그러므로 한국 문학을 통하여 한국 역사와 한국 전쟁을 같이 교육을 하면 한국어나 한국 사람의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어 한국어 의사소통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 대상자의 수준을 보면 『수난이대』 작품은 외국인 학습자의 고급 수준의 성인 학습자를 학습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태국인 학습자가 태국에서 학습하는 자료들에는 한국의 전쟁에 대해 많이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 학습자가 그 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람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쟁 때는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한국 소설을 통하여 한국 전쟁을 학습하면 태국 사람이 한국 전쟁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 사회생활도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1) 학습 대상과 수업 차시

태국인 학습자는 대학교 재학 중인 3-4학년으로 3학점 학부수업을 기준으로 학습 한다.

2) 학습의 목표

- (가) 소설 『수난이대』를 통하여 한국 근대사에 있었던 전쟁을 이해한다.
- (나) 소설 『수난이대』 내용을 잘 이해하면 한국 역사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다.

98) 태국은 1760년에 미얀아마와 전쟁을 했는데 미얀아마의 15년 동안 자치령 했다. 그 때는 태국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진행한다. 그런데 현재 태국사람 전쟁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학습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다) 소설 『수난이대』의 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면 가족에 대해 문화 비교를 할 수 있다.

3) 학습 과정

(가) 진단 단계

교사가 학습자에게 소설의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추측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교사 = 『수난이대』의 의미가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들 = 모두 어렵다고 답한다.

교사 = 그럼 수난과 이대로 나누고 다시 추측해 보세요.

학생1 = 첫 학생은 ‘가난하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수난과 가난하디의 발음이 비슷해서 의미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추측한다.

학생2 = 다음 학생은 수난은 물에 대한 뜻으로 추측한다.

학생3 = 수 = 물이라고 답하다. 이대는 현대이라고 답한다.

학생4 = 수난 여기서 수 = 물, 난 = 가난 그래서 수난은 물 때 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답한다. 이대는 현대라고도 답한다.

교사 = 수난이대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먼저 ‘수난’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함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이대’는 두 대, 두세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팔을 잃은 아버지 박만도와 한국전쟁 당시에 부상하여 다리를 잃은 그 아들의 수난이대 주제인 작품이다.

4)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①. 다음 어휘는 태국어 뜻을 찾고 연결해 보십시오.

1)..... 전사하다

๓. สถานี

2)..... 통지	ㄴ. หมายศาล
3)..... 펄럭거리다	ㄷ. โบกสะบัด
4)..... 빼근하다	ㄹ. คืบ
5)..... 정거장	ก. ถนนริมทุ่ง
6)..... 뺨	ข. เสียชีวิตในสงคราม
7)..... 가량	ค. สหพันธรัฐ
8)..... 들판	ด. คำพูดที่แปลก
9)..... 들길	จ. ดึง
10)..... 아찔하다	ช. การประกาศให้ทราบ
11)..... 연방	ฉ. การคาดคะเน
12)..... 엉터리	ญ. ทุ่งหญ้า

② 다음 단어를 골라서 빈칸에 넣어 보십시오.

빼근하다	아찔하다	펄럭거리다	엉터리	가량	뺨	전사하다
------	------	-------	-----	----	---	------

- 1) 그의 말이 전혀 아니었다.
- 2) 달리기를 했더니 이렇게 팔다리가
- 3) 그 애가 너보다 적어도 두..... 정도는 더 크다.
- 4) 옆집 큰아들은 전쟁에 끌려다가 결국
- 5) 그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나) 문법

- ① ㄹ/을 수록 = 어떤 상황이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짐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예 : 앞 문장의 상황이나 정도가 더 심해질 경우 뒤 문장의 결과나 상황도 그에 비례하여 더하거나 덜하게 됨을 나타낸다.

〈보기〉

1. 한국어를 배울수록 더 어려워지다.
2.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 수난이대를 읽다/ 새로운 감동을 주다.
- 몸이 늙다/ 마음은 어리다.
- 그 친구 만나다/ 더 좋아하다.

〈보기〉

가: 한국 생활이 어때요?

나: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살면 살수록 편해요. (살다)

1) 가 :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를 요즘도 만나요?

나 :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_____괜찮은 여자인 것 같아요.
(만나다)

2) 가 : 조나단 씨, 김치를 좋아해요?

나 : 네, 처음에는 매워서 잘 못 먹었는데 _____맛있어요.
(먹다)

3) 가 : 한국어가 어렵지요?

나 : 어렵긴 하지만 _____재미있는 것 같아요.
(배우다)

4) 가 : 마마두 씨, 어젯밤에도 한국 드라마 봤어요?

나 : 네, 밤 12시까지 봤어요.
한국 드라마는 _____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다)

5) 가 : 어기 씨, 다음 주에 또 여행가요?

나 : 네, 여행은 _____또 가고 싶은 것 같아요.(가다)

※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1) 처음에는 한국에 사는 게 불편했는데 _____ 좋아요.

2) 잠을 _____ 더 자고 싶네요.

3) 피아노를 _____ 더 잘 치고 싶어요.

4) 이 책은 _____ 재미있어요.

5) 많이 _____ 건강해진다고 해요.

② 곤하다 = 어떤 상황의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 : 같은 상황이 반복됨을 나타낸다.

1. 조나리는 가끔 그 학교에 가곤 했어요.

2. 작년에 남자친구가 자주 전화를 하곤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꺾아 주시다	운동하다	팔다	싸우다	줄리다
--------	------	----	-----	-----

1) 한국어 수업 할 때마다.....

2)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께서는 수박을..... 곤 했어요.

3) 스트레스가 쌓이면 저는 헬스에 가서.....곤해요.

4) 동생하고 자주.....곤해요.

5) 더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잘곤 한다.

※ 곤하다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보십시오.

1) 가 : 남자친구를 만나면 뭘 해요?

나 : 보통은 같이..... 곤 하지요. (산책하다)

2) 가 :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면 뭘 했어요?

나 : 용돈을 받으면..... 곤 했어요. (맛있는 것을 사다)

3) 가 :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어떻게 연습했어요?

나 : 수업 끝난 후에.....(한국 드라마 보다)

4)가 :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나요?

나 : 아니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몰래.....(과자 먹다)

(다) 표현

※ 다음 어휘를 선택하고 빈칸에 넣어 보십시오.

물씬물씬	활활	벽벽	꽤꽤	쭈쭈	휘청휘청
달랑달랑	획획	간질간질	금적금적	쿵쿵	픽픽
땡땡땡	꾸역꾸역	성큼성큼	척척	절름절름	흑흑
이기적이기적		끼우똥끼우똥		느릿느릿	우글우글

1) 생선 비린내가 난다.

2) 부채를 들어 허공에서 부쳐 대며 을생은 한숨을 쉬었다.

3) 누룽지를..... 굽다.

4) 소리를 질러가며 인부들을 몰아친다.

5) 물이잘 빠진다.

6) 쓰러지지 아니하고 걸어간다.

7)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소리를 낸다.

8) 배가 고팠던 것은 아니었으며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우동을 명희는 먹는다.

9) 노인은 몸을 일으켰다.

10) 햇볕도 없는 이 길은 땅에서 더위가 솟아 올라오는 것 같아
땀이 전신에서 솟는다.

5) 문학 작품 읽기 학습 활동

(가) 읽기 전 학습 활동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역사나 한국 전쟁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먼저 한국의 역사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6·25 전쟁

① 북한군의 남침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선전 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였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다. 전쟁 초기 승리를 장담하였던 이승만 정부는 서울을 떠나 대전을 거쳐 대구로 후퇴하였고, 결국 부산으로 수도를 옮겨야만 하였다.

②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고 28일에는 서울을 되찾았다. 이후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③ 중국군의 개입

그러나 대규모의 중국군이 북한을 돕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다. 어로써 6·25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정면 대결로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중국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다. 이것을 1·4후퇴라고 불렀다.

④ 전선의 교착과 정전

이후 전력을 보강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선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때부터 국군·유엔군과 북한군·중국군은 38도선 일대에서 고지를 빼앗고 빼앗기는 지루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소련의 제의로 정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정전 회담에서는 휴전선 설정과 포로 교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포로를 기습적으로 석방하여 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결국 휴전선 설정,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군사 정전 위원회 설치, 포로의 의사를 존중한 포로 교환 등에 합의하고 회담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1953.7.27.).⁹⁹⁾

(나) 읽기 전 학습 단계

학습자에게 수난이대 전채의 내용을 요약한 그림을 보여준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수난이대』에서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는 교재 속의 인물 삽화 『수난이대』의 인물의 성격과 그림을 같이 보여준다.

교사 = 『수난이대』에서 나오는 인물이 2명인데 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관계를 추측해 보세요.

교사 = 인물의 직업이 무엇 입니까?

학생1 = 한 명은 군인입니다.

학생2 = 한 명은 일반 사람입니다.

교사 = 사진을 보고 인물의 결점을 말해 보십시오.

학생3 = 젊은 사람은 다리가 없습니다. 노인은 팔이 없습니다.

교사 = 그리고 두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 1 = 형제입니다.

학생 2 =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99) 김은숙, 차예진, 김지혜.(2014). 『한국사 바로가기 (하)근·현대편』, 서울 : 좋은 책신사고, p.192

교사 = 『수난이대』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보여준다.

박만도		만도는 진수의 아버지이며, 일제 (일본 제국)시대 징용에 끌려가 남양 군도에서 비행장 공사를 하다가 팔 한 쪽을 잃어버렸다. 성격은 급하고 직선적이지만 수난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삶의 의지가 강하고 낙천적이며 익살기가 있는 인물이다.
진수		진수는 만도의 아들이다. 6·25에 참전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상이군인이 되어서 귀향하였다. 아버지 만도와 마찬가지로, 가지가 거대한 폭력의 희생물이라는 역사인식은 없지만,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하려는 의지의 소유자이다.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잔잔히 엿보이는 인물이다.

〈표 23〉 『수난이대』 인물의 성격

(다) 읽기 학습 활동

교사가 학습자에게 『수난이대』 줄거리를 나눠주고 읽기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라) 읽기 후 학습 활동

학습자가 『수난이대』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읽고 답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부분은 숙제로 진행할 것이다.

※ 『수난이대』를 읽고 답하십시오.

1) 박만도는 어느 전쟁에 참전했습니까?

.....

2) 진수는 어느 전쟁에 참전했습니까?

.....

3) 박만도는 진수를 마중하러 나오는 길에 무엇을 샀습니까?

.....

4) 박만도는 전쟁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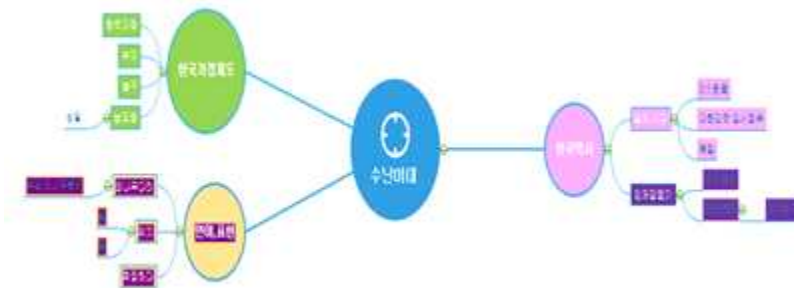
.....

5) 진수도 전쟁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

(마) 『수난이대』 읽고 요약하기 활동

학습자 그룹별로 『수난이대』 전체 내용의 요약 활동은 mind map으로 진행하고 인물의 관계까지도 요약할 것이다.



〈그림 12〉 『수난이대』 mind map의 내용 확인

수난이대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넌. <----- 고등어를 들고 아버지 등에 업힘. ----->	
박만도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 왼팔을 잃음.		박진수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 한쪽 다리를 잃음.

〈그림 13〉 『수난이대』의 인물의 갈등 구조

(바) 『수난이대』 읽고 말하기 활동

학습자가 강의실 앞에 나오고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를 할 것이다. 『수난이대』의 갈등 구조를 설명할 것이다.

『수난이대』 갈등구조

주인공 박만도는 일제 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자기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뻐했다. 아침부터 역으로 가서 아들을 마중하러 나왔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나온다는 아들의 상처에 대해 걱정한다. 아들을 만나면서 진수의 한쪽 다리는 잘려져 있는 것을 알았다. 만도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진수에게 화를 냈다. 집에 가는 길에 외나무다리에 이르러 만도는 진수에게 업히라고 한다. 진수는 아버지가 들고 있던 고등어와 지팡이를 각각 한 손에 들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다. 만도는 용케 몸을 가누며 무사히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다. 용머리재가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사) 『수난이대』 읽고 듣기 활동

학습자에게 『수난이대』의 더 이해하고 감동을 더 깊게 주기 위해서 『수난이대』¹⁰⁰⁾를 동영상으로 보여줄 것이다.

(자) 『수난이대』 읽고 쓰기 활동

학습자에게 『수난이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문으로 쓰는 활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수난이대』 감상문

아버지 만도는 6.25전쟁 때 군인으로 징집된 진수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기차역으로 마중하러 나갑니다.

만도의 팔은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징집되었다가 폭탄을 맞아 한쪽 팔을 잃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볼 모습에 들떠 있던 만도, 그러나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말에 약간의 불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박만도는 진수의 모습을 보고 만도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진수의 다리한 쪽이 없어진 것입니다. 진수 또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도 잠시, 이 두 부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을 등에 업고, 업힌 아들은 아버지 손에 들려 있던 고등어 봉지를 듭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넌으로써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
.....
.....

100) 『수난이대』는 국어교과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6) 문화 비교 활동



‘업다 , 업히다’의 뜻은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동여매어 붙어 있게 하는 상태이다¹⁰¹⁾를 말한다. 한국 사람에게 업거나 업히는 행동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해온 행동이다.

소설 『수난이대』에서 ‘업는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한 쪽 팔이 없는 아버지는 다리를 잃은 아들을 자연스럽게 업는다. 아버지 등에 업힌 젊은 아들은 염치가 없지만 양팔로 아버지의 목을 잡는다. 아버지는 아들의 엉덩이를 남은 한 쪽 팔로 받친다. 『수난이대』에 나오는 업거나 업히는 행동은 아이를 업는 어머니의 행동과 동일하다. 아이가 업어달라고 울면 포대기를 이용해 바로 아이를 업는 어머니의 모습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반면 태국 사람들은 ‘업는 행동’은 알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 태국에서는 엄마는 아이를 앞으로 안고 다닌다. 남녀가 애정 표현을 할 때도 손으로 ‘끌어 안는 행동’을 한다. 가끔 어릴 때 친구끼리 업기도 하지만 게임이나 장난을 할 경우에 짧게 업는다. 그러므로 태국 학습자에게 『수난이대』에 그려진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을 업는 시대적 아픔과 더불어 육아를 할 때 ‘업는 행동’이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임을 교육할 수 있다.

사람 관계	한국	태국
엄마-아이		

10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참고한다.

형제		
남녀		
친구-친구		
부모님-자식		
신랑-신부		

〈표 24〉 한-태 문화 비교

5.4 시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5.4.1. 학습 목표에 따른 「님의 침묵」의 텍스트 분석

한용운의 시집이다. 1926년 동서관에서 간행되었다. 대표시 「님의 침묵」을 비롯해서 「독자에게」, 「최초의 임」, 「칠석」, 「잠 없는 꿈」 등 9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집 속에 수록된 일련의 시들은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기법으로 이루어진 서정시이면서, 그 속에는 깊은 사상성과 일체에 대한 저항의식, 민족에 대한 애정이 짙게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시집 속에 수록된 시들은 모두 ‘님’이 침묵하는 시대에 쓰여진 것들로서 여기에서 ‘님’이란 우리로 하여금 무한히 동경케 하는 영원자, 혹은 절대자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시집 속의 작품들을 통해 그의 종교적·사회적 활동의 전체를 관류하는 어떤 근본적인 존재방식에 대한 반성과 증언의 대상을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실이 부재하는 세상에 있어서의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슬픔과 고뇌가 희망과 의지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시가 형이상학적이고 명상적이면서도 종교적·민족적 전통에 뿌리박은 고도의 역사의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은유와 역설을 탁월하게 구사함으로써 현대시적 면모를 확보한 점, 시어면에서 충청방언을 활용하고 개인 시어를 구사해 민중적 정감을 드러낸 점, 이미지면에서 식물적·광물적·천체적 이미지 등을 섬세하게 조형해 시적인 심미감각을 고양시켜 준다는 점 등이 한용운 시의 특징으로 꼽힌다.¹⁰²⁾

「님의 침묵」¹⁰³⁾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 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102) 이광식.(2000). 앞의 책. pp.614-615.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1)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이별 = 서로 갈리어 떨어지다.

맹세 =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다.

날카롭다 = 소리나 냄새 따위가 감각에 거슬릴 만큼 강하다.

염려하다 =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침묵 =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다. 또는 그런 상태이다.

(나) 문법

① 던 =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② ㄴ 후에 = ‘-(으)ㄴ 후에’, ‘명사 + 후에’를 이용하여 어떤 행
위의 시간적 순서를 표현할 수 있다.

103) 오연경·이종은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시』, 경기도 : 창비

(다) 표현

만나자 이별 = 서로 만나자마자 곧 헤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희망을 믿는다 =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2) 문학적 이해 학습을 위한 분석

(가) 작가

한용운¹⁰⁴⁾은 1879~1944 시인·승려·독립운동가. 본명 봉완, 법명 용운, 호 만해. 충남 홍성 출생. 그는 불교계의 대덕이었으며, 탁월한 불교운동가이기도 했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던 중 동학혁명에 가담했으나 실패하자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에서 불문에 귀의했다. 이어 1908년 전국 사찰대표 52인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에서 원종 종무원을 설립한 후 일본에 가서 신문명을 시찰했으며 <불교유신론>을 발표해 한국불교의 혁신을 꾀했다. 또한 불교 활동을 하면서 대중의 개화·계몽에 힘쓰는 한편, 창작에도 힘을 기울였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독립선언 준비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조선 독립의 서>를 집필, 그의 독립사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간행해 문단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 시집에는 「님의 침묵」이하 모두 8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사상적 깊이와 예술적 차원의 높이로 만해는 한국 현대시 사상 가장 빛나는 시인 가운데 한사람이 되었다.

(나) 시적 배경

이 시는 ‘님’과의 이별과 이별의 슬픔을 재회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성은 불교의 특징을 반영했다. 불교는 마음을 중심으로 믿으며 헤어지면 당연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은 슬퍼도 마지막으로 행복도 또 올 것이라고 ‘님’은 연인일 수도 있지만 식민지하에서 방황하는 민족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또한 빼앗긴 조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104) 이광식(2000), 앞의 책, p.613

아울러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념이거나 진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내용은 이별이나 사랑의 고통 그 자체를 노래한 것이라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깨닫기’로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먼저 고통을 받고 나중에 다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편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별과 그 고통 속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님과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크고 빛나는 만남을 성취한 생성과 극복의 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님의 침묵」이라는 표지에서 침묵의 의미는 단순한 명상의 침묵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몸부림과 깨달음이 융솟음치는 생성의 적극적 침묵인 것이다.¹⁰⁵⁾

(다) 시상의 전

시의 화자는 ‘님은 갔다’고 말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화자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1-4행은 ‘이별’이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흥미롭게 익힐 수 있는 표현은 ‘첫 키스의 추억’이다. 다음은 5-6행은 슬픔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그리고 7-8행은 슬픔을 희망으로 구성하는 상황이다. 7행은 화자는 너무 슬퍼서 인생에서는 절망으로 생각했는데 8행으로 넘어가면 화자가 아직도 희망을 믿는다. 9-10행은 다짐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인 의지로서 ‘님’은 자기와 함께 있음을 강조한 감정이 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갔는데 또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의 조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떠났던 집을 당연히 다시 돌아와야 하듯이. 그리고 한용운의 조국에 대한 비유로 보면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지만, 시인 자신은 조선을 독립된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 시의 주제 해석

한용운의 시는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님의 침묵」은 ‘님’을 떠나보내는 연인의 정한을 노래한 시이다. 그러나 한

105)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 『님의 침묵』

용운의 시세계에서 ‘님’은 해석하기에 따라 ‘조국, 부처, 연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효나(2014)는 ‘한용운 시의 초월적 현실인식과 대응’을 ‘님’의 중심으로 「님의 침묵」을 살펴보았다. 화자의 이별을 대하는 태도에서 만해의 시는 이별 한 후의 자세 또는 이별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김홍규(2005)는 「님의 침묵」의 주제를 해석하는 방향은 시인의 경험으로 해석하며 한용운의 괴로운 시대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시민의 상황 속에서 고통 받던 민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상황을 볼 수 있다.

3)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학습 활동

(가) 한국의 승려의 특징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출가 수행자를 일컫는다. 스님 또는 중이라고도 한다. 스님은 스승님의 준말로, 불교를 깊이 신봉했던 삼국시대 이후 승려들은 사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임무를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뜻에서 스승님, 승님 등으로 불리어지다가 스님이 된 것이다.¹⁰⁶⁾

(나) 한국어 호칭어 ‘님’

한국말에서 나보다 높은 어른을 더 높은 어른 앞에서 지칭할 때는 존칭하기 위해서 ‘님’을 붙이고 사용하는 것이 예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님’의 의미는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5.4.2 「님의 침묵」의 교수-학습 사례

보통 태국에서 시를 교육할 때 일반적으로 교육 하는 방법은 시를 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이다. 태국인 학습자는 시를 배울 때 자신의 경험으로 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를 학습할 때 시의 특성이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포용하는 구체적 삶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106) 안계현.(1982). 『한국불교사연구』, 서울 :동화출판공사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의 여건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앞에서 본시의 이미지 이해 과정에 따라 주요 현대 시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시의 이미지 교육 내용들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적 사유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위해 현대시에 나타나는 전통적 이미지들을 언어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연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미지의 표상 방식 고찰을 통해서 이미지 표현의 관습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표상의 매개로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시에서 반복되는 이미지를 통해 그 이미지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¹⁰⁷⁾ 그런데 태국에 거주하는 학습자 중에서도 문화 교육의 목표는 상이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문화 교육의 방향인 상호 문화적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문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화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문화 간 비교, 혹은 일회적 체험 활동을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회나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가 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먼저 시에서 나타는 어휘, 문법, 표현을 잘 이해하고 익히며 다음 단계는 시에서 나타난 문화를 알면 한·태 문화까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시를 잘 해석하면 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 학습 대상과 수업 차시

학습 대상자는 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으로 3학점 학부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습의 목표

- (가) 「님의 침묵」을 쓴 작가의 배경을 이해한다.
- (나) 문법 ‘-던’을 알고, 시의 감상 포인트인 그리움을 해석할 수 있다.
- (다) 시의 주제인 ‘이별’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다.

107) 손예희.(2014). 『상상력과 현대시 교육』, 서울 :역락도서출판. p. 212

3) 학습 과정

- (가) 「님의 침묵」에서 나타나는 어휘와 문법, 표현을 먼저 학습한다.
(나) 「님의 침묵」을 해석을 할 수 있고 감상문을 쓸 수 있다.
(다) 「님의 침묵」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님의 침묵」을 통해 한국과 태국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4)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① 다음 어휘들의 의미를 추측해보십시오.

깨치다	향하다	차마	떨치다	황금	맹세
차디찬	티끌	날카롭다	추억	운명	지침
염려하다	경계하다	이별	터지다	원천	까닭

② 다음 어휘를 고르고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넣어 보십시오.

맹세	날카롭다	염려하다	이별	침묵
----	------	------	----	----

- 1) 나는 어색한 (——)을 참을 수 없었다.
- 2) 어머니는 늘 나의 건강을 (——).
- 3) 친구들과 (——)의 정을 나누었다.
- 4) 그는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
- 5)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는 다투지 않기로 (——).

(나) 문법

① 던 =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 ‘던/ 았/였/였 던’을 선택하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1) 몇 년 전에 키가 작았던 조카가 지금은 키가 커요.
- 2) 이곳은 저는 자주 가던 식당이다.
- 3) 이 가방은 언니가 쓰던 가방입니다.
- 4) 나는 한 번 봤던 영화인데 더 한 번 보고 싶다.

(다) 표현

‘이별에 관한 속담’

- ① 만나자 이별 = 서로 만나자마자 곧 헤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정들자 이별 = 만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 헤어진다는 말이다.
- ③ 살아 생이별은 생초목에 불붙는다. = 살아 있으면서 서로 이별하는 것은 불이 잘 붙지 않는 생초목조차 불붙을 만큼 애간장이 타는 일이라는 뜻으로, 생이별은 차마 못할 일임을 이르는 말이다.
예) 시의 ‘이별’의 느낌을 표현하십시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오.

‘님’

- ① 의존명사로 구성한다.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뒤에 붙인다.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예문 : 홍길동 님/길동 님

- ② 접사로 구성한다.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이고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예문 : 사장님/총장님.

- ③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이고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예문 : 달님/별님/토끼님/해님.

- ④ 옛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이고 그 대상을 높이고 존

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예문 : 공자님/맹자님/부처님/예수님.

5) 문학 작품 읽기 학습 활동

(가) 읽기 전 학습 활동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된 작가의 배경을 이해하면 학습자가 시의 주제와 여러 어휘의 중의적인 의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용운

한용운은 1896년 홀연히 집을 나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면서 수도하다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노령 시베리아 등지를 여행하기도 하였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내 저항문학에 앞장섰다.

1944년 입적하였다. 불교학교 교원,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상무위원, 불교청년회 회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경성지회 회장, 만당 당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조선의 불교계 및 독립운동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점을 평가 받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고, 1967년 탑골 공원에 용당만해대선사비가 건립되었다.

「국어 교과서 작품분석」

(나) 읽기 학습 활동

「님의 침묵」 자료를 나눠주고 학습자는 5분 정도 시를 정독한다.

그 후에 시를 읽고 생각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한다.

가) 시의 제목에 있는 ‘님’이 상징하는 대상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① ‘님’은 누구입니까? / ‘님’은 무엇입니까?

나)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② 슬픈 내용일까? / 재미있는 내용일까?

다) 각 행을 아래와 같이 교사가 설명한다.

① 각 행의 분위기

1 행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 이별한 님을 부름

2 행 :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이별하는 장면

3 행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 이별당한 사람의 감정

4 행 :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이별하는 마지막 장면 회상

5 행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 이별한 님의 모습을 회상

6 행 :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슬픔을 토로

7 행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 고통을 끝나고 희망을 암시

8 행 :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희망을 다짐

9 행 :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짐하며 강조

10 행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현실의 안타까움

② 중심어 ‘님’에 대한 이해

1 행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님이 떠난 것에 대한 절망이다.

행 :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님은 그리움 대상이다.

3 행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 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은 약하게 부는 바람이다.

4 행 :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님과 보낸 시간을 강하게 보여줌.

5 행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 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나의 절대성을 강조

6 행 :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세속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간과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7 행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¹⁰⁸).

= 새로운 미래(삶)에 대한 희망을 불교 예식으로 형상화

8 행 :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불교의 회자정리

9 행 :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시 만난다는 불교의 깨달음을 통해 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다.

10 행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108) 태국에서 승려되기 전에 의식이 있다. 부모는 자식의 머리를 삭발해주고 희색 옷을 입는다. 부모의 은공을 돌려주기 위해 독경하는 의식을 거행하다. 그 의식이 끝나고 절에 가서 승려로 되는 의식을 진행한다. 태국 남자들에게 출가는 부모에 대한 보은의 의미이며 효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식이 출가하여 승려수업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은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다. 태국 옛말에 '헨 차이 파르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황색 옷자락 끝을 잡고 극락에 들어간다는 말로, 황색 옷자락은 태국의 승복을 의미하며 자식이 승려수업으로 공덕을 쌓으면 부모는 극락에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며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다) 읽기 후 학습 활동

중심어 ‘님’이 지시하는 뜻이 태국의 불교문화와 연결되고 한국의 식민지 역사와 연결된 이중적인 의미를 확인한다.

- ① 사랑하는 여인 = 평범한 남자의 입장에서 ‘님’은 ‘사랑하는 여인’! 이 시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연가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조국 =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으므로 시인의 ‘님’은 조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하였다.
- ③ 부처 = 시인의 직업이 승려이므로 시인의 ‘님’이 부처를 의미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깨달음을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알 수 있다.

(마) 「님의 침묵」의 감상문 쓰기

학생의 느낌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님의 침묵」 감상문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연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볼 수 있다.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과의 이별이 슬프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이별이 찾아온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별이 찾아온다 한들 그들과의 재회를 기약하며 믿고 기다린다.

.....
.....

6) 문화 비교 활동

한국불교총람에 의하면, 한국의 승려 수는 총 2만 8,489명으로 남자가 2만 4,903명, 여자는 3,586명이다.¹⁰⁹⁾ 이와 달리 태국은 93%가 불교 신자이며 전국에 3만 개의 사원이 있고 승려 수만도 30만에 육박하는 명실상부한 불교국가이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도 사원이 가득 차 있다.

한국의 불교는 세계불교의 보편성과 한국 고유의 특수성을 함께 보여준다. 한국 승려들의 일상생활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승가의 전통적인 관습과 그것에 관계된 율장에 기록된 종교 의식이 수천 년간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하였다. 그런데 인도 승가 규율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승가 규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¹¹⁰⁾

태국 승려는 아침마다 탁발을 한다. 탁발 의식에서 돈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국 승려는 태국 승려와 같이 아침에 음식을 받아서 식(食)을 해결하지 않고, 공양을 받는다. 공양을 받을 때 돈을 받기도 한다. 또한 태국 승려는 아침과 점심, 두 끼를 먹는다. 대신 육류로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녁에는 생수나 두유 등 음료만 마실 수 있다. 한국 승려는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지만 육식을 금지하고 있다.

태국 승려는 일반인과 같은 장소에서 앉을 때 약간 높은 단상에 앉는다. 일반인과 같은 높이의 바닥에 앉지 않는다. 여자와 합석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스쳐도 안 된다. 한국에서 승려는 손님으로 온 여자 옆에 앉아도 되고 악수를 하는 등의 약간의 접촉은 허용된다.

태국의 초등교육기관은 대부분 사원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태국인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불교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승려들의 사회적 역할은 미미한 정부시설(학교·의료시설·경찰·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고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한다. 승려들은 건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 절을 세울 때에 건축에 관한 목공·타일·벽돌 쌓기·시멘트 제조·의학적 재료구성까지 습득한다. 이렇듯 태국의 불교는 민중

1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1998). <http://encykorea.aks.ac.kr>

110)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승려의생활’을 정리하고
참고했다.<http://www.culturecontent.com>

의 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사원은 태국 사회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태국 국민들은 출산·결혼·장례 등 모든 일상생활을 불교의식으로 하고 있으며, 절은 주민의 집회장이자 병원, 양로원 구실도 하고 있다.

5.5 희곡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5.5.1. 학습 목표에 따른 「태양을 향하여」의 텍스트 분석

이 작품은 새로운 현대 문물로 인하여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 가는 아버지의 불안과 초조, 새 것을 찾아 몸부림치는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갈등을 중심으로 최 노인 일가가 역경을 극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¹¹¹⁾

「태양을 향하여」¹¹²⁾

〈차범석〉

「태양을 향하여」 역시 개작 동기를 공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차범석은 국립극장 전문극단이었던 ‘신헤’의 이해랑 선생의 조언에 따라 “차분하고도 허무가 감도는” 작품으로 개작의 방향을 잡았으나 “막상 탈고하여 극장에 가져다줬더니 서항성 극장장께서 「불모지」라는 제목을 개제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왔다.”고 전한다. 이는 5.16혁명이 일어난 직후라 좀 더 밝고 의지적인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는 국립극장의 의도인데 이에 대해 차범석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런 점에까지 신경을 써야만” 했으므로 「태양을 향하여」로 제목을 바꾸었다고 한다.¹¹³⁾ 따라서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과 「태양을 향하여」의 결말 구조는 어느 정도 ‘국립극장’이라는 공간의 의도에 맞춰진 것이라 할 수 있다.¹¹⁴⁾

111)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2006), 앞의 책 p.47

112)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2006), 『극수필』, 서울 : 디딤돌, pp.46-47

113) 차범석.(1975). 『제3희곡집 환상여행』, 서울 : 어문각, p.346.

1 막

경우 : 오빠! 너무하세요./ (경수의 얼굴에서 삼시간에 핏기가 가신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경재 : (울음 섞인 소리로) 남이야 죽건 말건 형 혼자만 잘 살면 제일이야? 비겁해.(하며 벽에다 얼굴을 대고 운다)

어머니 : 경수야! 이제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돼. 너마저 가버리면 우린 못 산다.

경운 : 오빠,(눈물을 삼키며) 그 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지만.....(사이) 경애 언니가.....죽었어요./

경수 : 뭐....., 경애가?

경운 : 두 주일이 지났어요..... 오빠가 집을 나가던 날.....

경순 : (속삭이듯) 그게 정말이냐?

경운 : 건넌방에 들어가 보세요..... 참말보다 더 큰 사실이 있다.
(경수가 급히 신을 벗고 들어가려 하지, 최 노인은 막는다.)

최노인 : 안 된다. 너는 내 아들도 경애의 오래비도 아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 어서 나가거라.

경수 : 아버지! /

최노인 :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라니까. 우리 집하고는 아랑곳없으니, 네 마음대로 부산이고 군산이고 어서 가. 가라니까.

어머니 : 경수야, 제발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선 너를 미워하신 건 아니야! 경애가 영화배우 되는 걸 찬성은 안 했지만, 혹시나 하고 바랐던 부모 앞에서 저런 죽음을 당한데다가... 또 너까지 보름 동안이나 소식이 없이 (흐느낀다.).... 그런데 어찌면, 너는 아버지 생각은 안 하고서...../

경수 : 어머니! 저는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살아 보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떠나는 것뿐이에요. 새 출발하기 위해서죠
(중략)

2 막

경운 : 오빠! 이제 아시겠지요, 네? 오빠가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이제 다 가지게 되었는데, 또 어딜 가시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경애 언니가 죽었을 때도 오빠 이름을 더 크게 부르셨어요.

오빠를 찾으셨어요./

어머니 : 암, 그렇고말고!

경재 : 형! 형마저 가지게 되면, 우린 일 년 내 해도 안 비치는 이곳에서 곰팡이처럼 살다가 죽어요./(경수는 눈물이 그칠 새 없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들고, 여러 사람을 돌아보더니, 아버지에게 시선을 멈춘다)

경수 : (조용히) 아버지! 용서하세요. 저는.....
(최 노인은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을 살살 젖는다. 그 이상 말하지 말라는 표시다 그러나 울고 있는 것이다.) (중략)

경수 :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이 집을 지키겠어요. 아무리 햇볕이 안 들고, 난쟁이 같은 집일망정 내 손으로 지켜 나가겠어요./

어머니 : 여보! 들으셨수? 뭐라고 한 마디 하세요.

최 노인: 내가....., 내가....., 무얼 말하겠소? 젊은 애들의 의사에 따르지

경재 : 예? 아버지가요? (중략)

3. 막

어머니: 괜시리 헛걸음만 했지. 어서 일루 와 앉어.

춘자 : 괜찮아요. 참 이거.(하며 취직 통지서를 내밀며) 축하합니다.....

경수 : 고마워요. (하며 편지를 끄집어내서 읽는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간다.) 역시 이 친구만은 신의를 지켜 주는군. 지금 세상에든 역시 신의는 살아있었군.

어머니 : (경애 생각이 나는지 울먹거리며) 며칠만 더 일렀던들....., 우리 식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오죽 좋아..... 어유....., 불쌍한 것.....

최노인 : 불쌍할 것도 없어! 모두가 제 타고난 팔자인걸! 식구 하나 줄었

어도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소? 응?/

춘자 : (조심스러우나 또렷하게) 아주머니, 제가 경애 대신 식구가 되겠어요.

어머니 : 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춘자 : 사실은 그 동안 몇 번이고 찾아와 뵈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저께 밤에 경애 오빠를 만나고 나서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차츰 흥분이 눈물로 변하며) 경애 오빠가 이렇게 변한 것은 모두 저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 춘자야, 그런 소리 마라.....

춘자 : (간절하게) 저는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니와 오빠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번만은 제 의사대로 하겠어요.

경수 : (애기의 초점이 자기에게 옮겨지는 것을 느끼자) 춘자! 안 돼. 춘자는 오빠 말을 따라야 해.

춘자 : 싫어요. 싫어요.

경수 : 고집부리지 말고 어서 돌아가.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남이 다 가진 팔도 없는 놈이야

춘자 : 제발 제게만은 그런 소리 말아 주세요. 제가 좀 더 의지가 강했던들, 경수 씨를 이렇게 타락의 길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코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어요. 앞으로 그 두 배, 세배의 속죄를 하게 해 주세요. 저에게 남은 일은 그것뿐이에요.(하며 마룻바닥에 손을 짚으며 흐느껴 운다.) /
(모두들 감동되어, 아무 말이 없다)

4. 막

경운 : 오빠! 춘자 언니의 마음을 받아 줘야 해요. 그보다 더한 호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 그렇고말고..... 춘자가 우리 식구가 되어 주기를 우린 진작부터 바라고 있었단다. 네가 전쟁터에 있을 때부터 말이다. 그러니.

경운 : 오빠! (중략)

경재 : 그럼, 춘자 누나도 우리와 함께 있겠단 말이군요. 네? 햇별이 흔

한 집에서 말이어요.

경수 : (빙그레 웃으며) 그래.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다시 한 번
살아 보자, 경재야.

어머니 : (좋아서) 경수야!

최 노인 : (기쁨과 괴로움이 뒤범벅이 되어) 이려고 있을게 아니라,
춘자는 어서 집에 가봐야지. 어른들이 기다리실 텐데.....
경재야, 정류장까지 바래다 줘라...

경수 : 제가 가겠어요! (하며 나간다.) /

춘자 :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중략)

(두 사람이 대문을 향해 나가자 경운, 경재도 따라나선다. 대문
밖에서 서로 작별하는 인사말이 들려온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한층 쓸쓸해 보인다. 최 노인은 길게 한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와 시선을 마주친다.)

어머니 : (조용히) 경애는 갔지만, 두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우.

최노인 : (눈을 감고서) 이사를 하려면 짐이 많을 거야.....오십
년 간 살아온 걸!(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애상적인 음악이
흘러나온다)

-막-

1)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태양 =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며 온도가 매우 높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다.

고집하다 =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티다.

삼시간 = 매우 짧은 시간이다.

핏기 = 사람의 피부에 감도는 불그스레한 피의 기운이다.

침묵 =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다.

비겁하다 = 비열하고 겁이 많다.

참말 =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다.

찬성 =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가 옳거나 좋다고 판단하여
수긍하다.

곤란하다 =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렵다.

쓸쓸하다 = 외롭고 적적하다.

작별하다 =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다.

(나) 문법 :

- ① 다가 = 어떤 행동이나 상태 등이 중단되고 다른 행동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② 었/았던 =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를 다시 떠올리거나 그 사건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 관용 표현

백방으로 노력하다.

백방 = 여러 가지 방법이고 또는 온갖 수단과 방도. ‘여러 방면’,
‘온갖 방법’으로가 순화어이다.

눈물을 펄펄 쏟다. = 울 때 눈물을 계속 흘리는 상황이다.

새 희망을 갖게 되다. =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이 되는 상태이다.

2) 문학적 이해 학습을 위한 분석

(가) 작가

차범석¹¹⁵⁾은 1924~2006극작가이다. 전남 목포 출생.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1949).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막희곡 「귀향」이 당선되어 등
단했다. 이후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없이는」, 「산불」, 「열대어」 등의 역작

115) 이광식.(2000). 앞의 책. p.555.

들을 꾸준히 발표했으며, 1963년부터 1983년까지 20년간 「극단산하」의 대표로서 한국의 신극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 인물¹¹⁶⁾

① 최 노인은 60세로 이 가족의 가장이며, 구식 혼구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찾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다. 장가들 때 부친이 지어준 낡은 기와 집에서 47년을 살아오면서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신식 문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현대적인 문명의 물결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것을 고집하다가,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가족을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② 장남 경수는 26세로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다녀온 제대 군인이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몸으로 귀향한 후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취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나 목적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비정한 세태를 원망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부정적이다. 성격이 직선적이고 결단성이 있으며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 하지 않는다.

③ 장녀 경애는 23세로 오로지 배우가 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에 물들어 있으며, 그러한 세상의 부조리를 이용하려 한다.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감성적인 성격으로, 허영심이 많고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④ 어머니는 57세로 장남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실 순응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⑤ 차녀 경운은 20세로 출판사 식자공 일을 하여 받은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실상 이 가족의 경제적 책임자이다. 온순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⑥ 막내인 경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성실하고 유머가 있으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하며, 신세대 젊은이답게 어른

116)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2006). 앞의 책.

에 대한 예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편이다.

⑦ 춘자 경수의 애인이다.

(다) 행동

경수는 최 노인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최 노인은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을 살살 젖는다. 그 이상 말하지 말라는 표시다 그러나 울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은 못 하고 눈물을 펄펄 쏟고 계속 울었다. 아버지에게 조르는 시선을 보냈다. 그 행동은 누가 봐도 너무 답답하고 말이 못 나올 것 같다. 특히 가족들이 용서를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도 내세워 쉽게 용서를 해줄 수 없다.

최 노인의 행동은 고집이 세고 삶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른 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시대의 조류에 밀려 전통이 붕괴되는 것 또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드디어 최 노인이 마음을 바꿔서 사업을 그만두고 집을 팔기로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극적인 전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최 노인이 신세대를 인정했기 때문에 고집하지 않고 집을 팔아버렸다.

(라) 대사

제 1막에서 최 노인이 경수에게 거절하는 대화이다. 최 노인과 경수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해결의 조짐을 보이는 부분이다. 경수가 집으로 돌아와 경애의 죽음을 확인하고 후회해서 경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최 노인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도 경애 오래비도 아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 어서 나가거라.’ 라고 말한다.

경수는 그 아버님의 말에 너무 놀라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런 대화는 누가 들어도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 미워서 자기 아들의 얼굴도 이제 보고 싶지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마) 구조 : 갈등구조

발단 : 종로에서 근 50년이나 재래식 혼구 대여업을 하는 최 노인 일가는

신식 혼인이 유행하게 되자 장사가 잘 안 된다.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그런데 다 경애는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말썽이고, 군대에 간 경수는 부상을 당하여 의수를 하고 돌아온다.

전개 : 경애의 일과 세금 문제로 집안이 더욱 곤란해지는 가운데 경수와 약혼했던 춘자는 경수를 멀리한다. 한편 이웃에 5층 빌딩이 들어서자 최 노인네 집은 햇볕도 안 들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세금은 계속 나온다.

위기 : 가장 주요한 핵심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세대인 부모 세대와 신세대인 자식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회적 실상을 극화하는 데 남다른 힘을 쏟았다

절정 : 상이군인 경수는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의 상태로 지내다 가출을 하고 경애는 카메라 테스트 비용까지 떼이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 결국 자살하고 만다. 파멸 직전에 이른 가계는 경운의 박봉으로 겨우 이어 간다.

결말 : 가출했던 경수가 돌아와 취직을 하게 되고, 춘자도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안 팔겠다고 고집하던 최 노인네 집을 팔 작정을 하고 이사 갈 새 집을 보아 둔다. 마침내 파멸의 위기에 처했던 최 노인 일가에 화합의 서광이 비치게 된다.

(바) 주제

차범석은 한국 사회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혼란기의 세대 반영에 주목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세대인 부모 세대와 신세대인 자식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회적 실상을 극화하는 데 남다른 힘을 쏟았다. 이 작품은 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취직도 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새 희망을 갖게 되는 등 얻은 것이 많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다. 새 희망은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다시 한 번 살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태양은 밝음과 희망 화합 등을 상징하는 어휘이다. ‘태양을 향하여’에서 비록 경애는 죽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으며 가족들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태양’은 삶의 돌파구이자 긍정적인 세계로의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3)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학습 활동

(가) 시대 배경과 관련된 문화

이 작품은 한국 사람의 가족에 관한 사고방식과 가족의 관계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 노인의 역할을 잘 볼 수 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집안의 일을 다 결정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부모님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한국 문화에서 ‘남자’를 가정의 가장 중심으로 생각한다.

(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화

이 작품 속에서는 인물들의 갈등이 최 노인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그런데 최 노인이 집을 팔고 싶지 않았다. 한국 사람에게 집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게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해 학습하면 한국 사람의 사회생활배경과 한국 사람의 집 문화를 알게 되어 도움이 될 것이다.

5.5.2 「태양을 향하여」의 교수-학습 사례

태국인 학습자는 한류 때문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희곡을 3번째로 학습하고 싶어 하는 답을 했다. 왜냐하면 드라마, 영화, 희곡 대본을 학습하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사람의 성격,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1) 학습 대상과 수업 차시

태국인 학습자는 대학교 재학 중인 4학년으로 3학점 학부수업을 기준으로 학습 한다.

2) 학습의 목표

- (가) 희곡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나) 「태양을 향하여」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다. 한국 사람에게 집은 사는 집도 포함하고 가족의 비유이기도 한다.
- (다) 희곡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 배경, 결말을 파악하고 한국 사람이 가정 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3) 학습 과정

(가) 진단 단계

- ① 첫 번째 사진(드라마)은 어떤 미디어냐고 두 번째(영화) 사진과 어떻게 다른지 묻는다.
- ② 첫 번째 사진과 3(연극), 4(희곡) 번째 사진도 또 같은 질문으로 진행한다.
- ③ 학습자에게 어떤 미디어를 가장 좋아하는지 질문한다.
- ④ 미디어에 따라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⑤ 한국 드라마, 영화 말고 한국 연극을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본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을 바로 강의하면 학습자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미리 어휘, 문법, 표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교육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미리 어휘나 문법을 알면 문학의 내용을 상상할 수도 있다.

태국인 학습자 대부분은 한류 덕분에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많이 알고 있지만 희곡은 처음 들어본 어휘이기 때문에 희곡의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한국 희곡이라는 문학 장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모국어로 알면 희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강의 분위기도 더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다.

4)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① 다음 어휘들은 무슨 뜻 인지 추측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 강의 하는 방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의 뜻을 먼저 추측한다면 사진으로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전자사전을 사용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될 것이다.

※ 어휘를 연습해 보세요.(어휘의 뜻을 추측해 봅시다)

삼시간	핏기	침묵	비겁하다	참말
찬성	곰팡이	고집하다	집일망정	곤란하다
구세대	신세대	화해	식구	만능하다
타락	시선	작별하다	쓸쓸하다	

※ 다음은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말입니다.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 1) 그 소식은에 뜨르르 퍼져 나갔다.
- 2) 얼굴에서가 짙 가시다.
- 3) 나는 어색한을 참을 수 없었다.
- 4) 나이든가 젊은이들에게 널리 쓰이는 은어를 이해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 5)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하면 제가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 다음 어휘와 의미를 연결해 보십시오.

1).....경영하다	㉠ 활자를 원고대로 조판하는 사람이다.
2).....눈부시다	㉡ 빛이 아주 아름답고 환홀하다.
3).....테두리	㉢ 죽 둘러서 친 줄이나 금 또는 장식이다.
4).....슬하	㉣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 뿐인 영화이다.
5).....간신히	㉤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다.
6).....허영	㉥ 아버지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7).....식자공	㉦ 겨우 또는 가까스로
8).....살림	㉧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이다 .
9).....성실하다	㉨ 정성스럽고 참되다.
10).....애타다	㉩ 한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다.

(나) 문법

① 다가 = 어떤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낸다.

- 철수가 일을 무리하다가 결국 병이 났다.
- 나는 밥을 먹다가 토했다.
- 말레이시아에서 살다가 싱가포르로 이사 왔어요.

※ 연습 : 추억이 담긴 사진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 가다, 만나다

돈을 열심히 모으다가 이제는 부자 됐다.



1) 못을 박다, 손을 다치다.



2) 과장이다, 부장이다.



3) 놀다, 낙제하다.



② 았던 / 었던 =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를 다시 떠올리거나 그 사건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 한국에 올 때 공항에서 만났던 사람을 아직도 기억해요.
- 옛날에 친구하고 처음 만났던 곳이다.
-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에 입었던 옷이 다 젖었어요.

※ 연습 : 추억 남긴 사진에 대해(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 지난주에 가봤던 커피숍입니다.





- 1).....
 2).....
 3).....
 4).....

(다) 표현

※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어울리는 표현을 선택해 보십시오.

백방으로 노력하다, 눈물을 펄펄 쏟다, 치열한 갈등, 어서 나가거라 , 지혜와 타협
--

- 1) 나는며, 커피를 질금질금 마시기도 하고, 더러는
 질금질금 마셔요.
 2) 방법은 찾고 있는데 솔직히 복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중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저쪽에서 탈레탈레 걸어오는 것이 분명 둘째 같구나!
 4)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밥이나 짓이다.
 5) 두 사람은 서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문학 작품 읽기 학습 활동

(가) 읽기 전 학습 활동

- ① 학습자에게 「태양을 향하여」에 대해 무슨 뜻인지 추측하고 토론 활동

을 한다. 학습자의 대답을 듣고 「태양을 향하여」의 뜻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학습자에게 「태양을 향하여」를 예측하여 토론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 사진은 어떤 상황입니까?

◆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생깁니까?

학습자에게 희곡 읽기 전 단계로 진행하겠다. 희곡의 대본 채우기 학습 활동을 하겠다.

※ 빈칸에 어울리는 문장을 넣어 보십시오.(그룹 활동)

경운 : 오빠, (눈물을 삼키며) 그 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지만,(사이) 경애 언니가..죽었어요.

경수 : 1).....

경운 : 두 주일이 지났어요. 오빠가 집을 나가던 날 ..

경수 : (속삭이듯) 그게 정말이냐?

경운 : 2).....

-경수가 급히 신을 벗고 들어가려 하자, 최 노인은 막는다.-

최 노인 : 안 된다. 너는 내 아들도, 경애의 오라버니도 아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 3).....

경수 : 아버지!

최 노인 :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우리 집하고는

아랑곳없으니, 네 마음대로 부산이고 군산이고 어서 가.

가라니까.

어머니 : 경수야. 제발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선 너를 미워하신 건

아니야! 경애가 영화배우 되는 걸 찬성은 안 했지만, 혹시나

하고 바랐던 부모 앞에서 저런 죽음을 당한데다가..., 또

너까지 보름 동안이나 소식이 없어..,
 (흐느낀다.) 그런데 어쩌면, 너는 아버지 생각은 안 하고서....
 경수 : 어머니! 저는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살아 보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떠나는 것뿐이에요. 새 출발하기 위해서죠.
 경운 : 오빠는 안 가셔도 돼요. 4).....
 경수 : 뭐라고?
 경재 : 형에게 일자리 생겼어요. 영등포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경수 : 영등포에 있는 제약 회사?
 경재 : 5).....
 어머니 : 아까 춘자가 가지고 나갔잖아?
 경재 : 참 그렇지. 춘자 누나가 형에게 알려줬다고.....
 경수 : (의아해 보며) 춘자가 어떻게 여길...
 어머니 : 말도 말아라. 너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알 만한 곳은 다
 더듬어 다녔지만..., 춘자까지 나서서... 에그..., 그걸 모르고,
 너는 또 이렇게 떠나가다니 그게 될 말인냐? 응 ? 너도 사람의
 자식이면 체면이 있어야지.

② 등장인물의 성격

최 노인 : 혼구 대여업 상인. 완고할 만큼 보수주의자이나, 집안이
 곤경에 처하자 태도를 바꾼다.
 어머니 : 최 노인의 아내로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
 경애 : 최 노인의 장녀. 영화배우 지망생. 사회의 부조리에 휘말려
 결국은 자살한다.
 경운 : 최 노인의 둘째딸. 자신의 박봉으로 일가의 생계를 유지하
 는 효녀이다.
 경수 : 최 노인의 아들로 상이 군인이다. 현실에 비판적이나 곳곳
 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춘자 : 경수의 애인

(나) 읽기 학습 활동

학습자에게 「태양을 향하여」 전체 줄거리를 나눠 준다.

「태양을 향하여」 차범석¹¹⁷⁾

최 노인은 종로에서 50년 동안이나 혼구세업을 경영해 온 육순의 노인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변화는 눈부시고 이웃에는 근대식 건물이 늘어만 간다. 하지만 이 집만은 최 노인의 고집으로 옛 그대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노인 부부는 슬하에 경수, 경재, 경애, 경운의 4남매가 있다. 장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노부부의 희망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간신히 이어나간다.

맏아들 경수는 대학 도중에 군에 입대했고, 경재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큰딸 경애는 영화배우를 꿈꾸는 허영이 많은 편이나 경운은 인쇄공장 식자공으로 어려운 살림을 돕는 성실한 딸이다.

오늘은 맏아들 경수가 제대하고 돌아오는 날이다. 노부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고, 이웃의 춘자는 전부터 경수와 다정히 지내던 터라 역시 가슴을 설레며 기다린다. 그러나 돌아온 경수는 원팔이 없는 불구자로서 돌아온다. 가족들의 실망은 컸다. 그래도 경수는 이를 악물고 재생을 다짐한다. 춘자는 경수에게서 멀어진다. 취직도 되지 않은 경수는 차츰 자포자기되어 간다. 최 노인은 가게도 닫아버린다. 가족들은 이 집을 팔아서 시외로 옮기고 생업도 바꾸자고 조른다. 최 노인은 선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집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수는 집을 떠날 결심을 하고 돈 반환을 어머니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와 대판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수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다. 그런 판에 경애는 배우를 시켜준다는 사기한테 몸까지 망치고 돌아와 음독자살을 한다. 이런 불행이 연달은 집안은 몹시 쓸쓸하고 허전해진다.

춘자는 경수가 집을 나간데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경운과 함께 찾아나선다. 그러나 2주일이 지났는데도 행방이 묘연하다. 이때 제약회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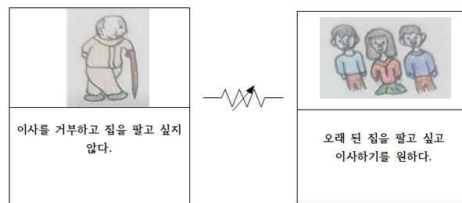
경수의 취직 통지서가 온다. 가족들은 기뻐했으나 경수에게 알릴 길이 없다. 바로 이때 경수가 나타난다. 온 가족은 기쁨에 싸인다. 그리고 최 노인은 뜻밖에도 이 집을 팔고 햇볕 잘 드는 교외의 집을 사 가겠다고 선언한다.

(다) 읽기 후 학습 활동

교사가 학습자에게 본문을 주고 읽기 전 활동과 같이 확인하고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인물의 갈등을 정리하고 내용에 대한 답을 고르는 활동이다.

① 인물의 갈등

※ 최 노인과 자식들



〈그림 14〉 「태양을 향하여」 인물의 갈등

※ 「태양을 향하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태양을 향하여」를 읽은 후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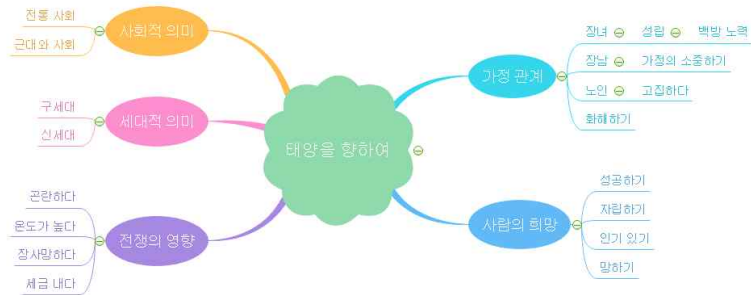
- (ㄱ) 최 노인 : 경수가 돌아오자 화를 안 내고 용서를 해주었다.
- (ㄴ) 경운 : 경수에게 화가 나 있다.
- (ㄷ) 경수 : 자신의 상황 때문에 춘자와 결혼 못 한다.
- (ㄹ) 경애 :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가 버렸다.

2.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절한 내용을 고르십시오.

- (ㄱ) 최 노인은 아들과 갈등이 있어도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 (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오랜 세월 살았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
- (ㄷ) 구세대와 신세대 갈등을 해결할 때 당연히 구세대가 이겼다.
- (ㄹ) 시간이 지나가면 세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 「태양을 향하여」 내용 확인하기

교사가 학습자에게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Mind map 활동으로 진행한다.(그룹 활동)



〈그림 15〉 「태양을 향하여」 내용 확인

2주차로 진행하는 간은 학습자가 「태양을 향하여」의 Mind map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그룹 활동)



학습자를 그룹으로 나누고 「태양을 향하여」 연극 활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교실 앞에 나오고 연극 활동을 하면 희곡 내용을 더 깊이 이

해하고 한국 문학을 배우는 흥미도 느낄 수 있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문화 비교 활동

「태양을 향하여」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구세대인 아버지와 신세대인 아들의 대립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땅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최 노인은 가족의 모금자리인 땅과 집을 소중히 여긴다. 여기서 뿌리에 대한 전통이 땅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문화를 알아 볼 수 있다. 조상의 터전을 지키고 후손을 위해 물려 받은 땅을 지켜야 한다는 최 노인의 생각은 지금도 집을 구할 때 풍수지리를 중요시 하는 한국문화와도 연결된다.

태국도 한국과 같은 풍수지리가 있다. 태국도 집을 짓기 전에 집터를 찾을 때 한국의 배산임수와 같은 곳을 찾는다. 그리고 태국인 부모님도 지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도시에서 살더라도 잠시 돈을 벌러 나갔다가 부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돌아온다. 태국인은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거나 이사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최 노인의 생각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조상과 풍수지리와 관련된 인식이 비슷하므로 한국의 전통 거주 문화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집

한국 전통 건축¹¹⁸⁾은 한국 사람의 사는 곳의 날씨나 땅의 모양,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다른 형태의 집이 있다.

① 기와집

지붕재료로 ‘기와’를 사용해 지은 집을 기와집이라고 하며, 한국 전통건축의 대표적인 건축형태로 기와집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구분한다. 옛날에는 기와집에 주로 양반들이 살았는데 기와의

118) 이상전.(2011). 『한국 풍토건축의 멋』. 진주 : 경상대학교출판부 . p.42-58

값이 매우 비싸서 평민이 짓기 어려웠다.



② 너와집

‘너와집’은 기와 대신 너와를 사용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석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너와는 소나무나 참나무의 송판을 길이 60cm, 너비 30cm, 두께 3-5cm, 정도 되게 도끼로 쪼개어 만든 널빤지이다. ‘너새집’이라고도 하고, 강원도에서는 ‘느에집’ 또는 ‘능에집’이라고도 부른다.



③ 제주도 전통 집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집을 만들 때, 지붕은 끈으로 동여매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돌로 벽을 쌓는다. 대문 대신에 통나무 가지를 집 입구에 걸어서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한다.



④ 굴피집

‘굴피집’은 나무껍질을 이어서 지붕을 만든 집이다. 참나무의 두꺼운 껍질

을 굴피라고 하며, 굴피집은 국가에서 너와를 만드는 소나무의 별목을 금지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다.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굴피집을 지었다.



⑤ 토담집

토담은 흙으로 담을 쌓듯이 벽체를 쌓아 올려서 만든 집이며, 한국의 농촌마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토속적인 집 형태이다. 즉 벽체는 흙벽돌로 쌓거나 거푸집 속에 흙을 이겨 다져 넣어서 쌓아 올리는데, 보통 벽체의 두께는 30cm 정도로 하고 북쪽 벽은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남쪽 벽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였다.



⑥ 귀틀집

‘귀틀집’은 통나무를 중첩되게 정자형으로 쌓아올려 벽체를 만든 후 지붕을 덮으며, 통나무의 모서리 교차부는 서로 아래위를 따서 맞물리게 결구하고 쌓아올린 나무 사이에 생기는 틈새는 진흙으로 발랐다.



⑦ 띠집

‘띠집’은 선사시대의 수혈주거나 고대주거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지붕을 띠로 이은 집을 말한다. 석새나 갈대 등이 많이 나는 강변지역에서 이와 같은 자연재료를 얻기 쉬웠으므로 띠집이 세워졌다.



⑧ 겨릅집

‘겨릅집’은 삼 재배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삼 껍질을 벗긴 속대인 겨릅을 지붕재료로 이은 집을 겨릅집이라고 한다. 겨릅은 가볍고 속이 비어 공기층이 있으므로 초가지붕에 벗짚 이엉을 얹기 전에 지붕면에 여러 겹으로 덮어 지붕구조를 가볍게 할뿐만 아니라 단열과 보온에 매우 효과적인 재료로 사용하였다.



(나) 태국의 집

태국 집¹¹⁹⁾은 대부분 나무로 만든 집이다. 날씨가 더워서 집 마루를 지면보다 많이 높게 위치시킨다. 태국 사람은 낮의 대부분을 마루 밑에서 생활한다. 태국은 우기와 건기로 2계절 밖에 없다. 우기 때는 높은 마루 위에서 생활하고 건기가 되면 마루 아래쪽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태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내륙과 해안 지역에 따라 집의 모양이 다르다.

119) <http://kanchanapisek.or.th/kp6/BOOK13/chapter1/chap1.htm>

① 북부 지방의 집

태국 북부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지붕이 색다른 특성을 지닌다. 지붕이 다른 지방 지붕보다 두껍고 창문이 작다. 바람을 잘 막기 위해서 창문과 문이 작은 편이다. 지붕이 다른 지방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 예술미를 표현한다.



② 동북부 지방의 집

태국 동북부 지방은 태국 북부 지방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다른 지방보다 날씨가 춥다. 창문이 좁아 사람의 머리만 내밀 수 있는 크기이다. 그래서 집 안은 어둡고 바람은 잘 안 통한다.



③ 중부 지방의 집

태국 중부 지방에 건설된 집은 지붕과 천장이 높다. 옛날에 태국의 높은 신분들이 살던 화려하고 고급스런 형태의 집이다.



④ 남부 지방의 집

태국 남부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집의 모양과 상당히 다르다. 넓은 지붕이 4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져 있다. 강한 바람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지붕의 프레임은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경사면의 끝에는 깎기 모서리가 있다.



5.6 수필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

5.6.1 학습목표에 따른 「구두」의 텍스트 분석

이 수필은 구두 수선공이 박아 준 구두의 징 소리 때문에 빚어진 이야기이다.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의 체험한 내용을 반영한다. 이 작품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중심이 되므로,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또한 ‘또 그닥또그닥’과 같은 의성어의 대비와, 시간의 진행에 따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등 서사적이다. 지금은 구두에 징을 박아 신는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구두를 조금이라도 오래 신기 위해 쇠로 된 징을 뒷굽에다 박았다. 1949년에 발표된 작품이므로 당시의 풍속이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구두〉¹²⁰⁾

〈계용묵〉

구두 수선을 주었더니, 뒤축에다가 어지간히도 큰 징을 한 개씩 박아 놓았다. 보기가 흉해서 빼어 버리라고 하였더니, 그런 징이래야 한동안 신게 되고, 무엇이 어쩌구 하며 수다를 피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대로 신기

는 신였으나, 점잖지 못하게 저벅저벅, 그 징이 땅바닥에 부딪치는 금속성 소리가 심히 귓맛에 역했다. 더욱이, 시멘트 포도의 탄탄한 바닥에 부딪쳐 낼 때의 그 음향이란 정말 질색이었다. 포그닥포그닥, 이건 흡사 사람이 아닌 말발굽 소리다.

어느 날 초어스름이었다. 좀 바쁜 일이 있어 창경원 결담을 끼고 걸어 내려오노라니까, 앞에서 걸어가던 이십 내외의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이 이상히 포그닥거리는 구두 소리에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 포그닥 소리의 주인공을 물색하고 나더니, 별안간 걸음이 빨라진다.

그러는 걸 나는 그저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만 그대로 걷고 있었더니, 얼마쯤 가다가 이 여자는 또 뒤를 한 번 힐끗 돌아다본다. 그리고 자기와 나와의 거리가 불과 지척임을 알고는 빨라지는 걸음이 보통이 아니었다. 뛰다 싶은 걸음으로 치맛귀가 웅이하게 내닫는다. 나의 그 포그닥 거리는 구두 소리는 분명 자기를 위협하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따악따 땅바닥을 박아 내며 걷는 줄로만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여자더러, 내 구두 소리는 그건 자연이요, 인위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일러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나는 그 순간 좀 더 걸음을 빨리 하여 이 여자를 뒤로 떨어뜨림으로 공포에의 안심을 주려고 한층 더 걸음에 박차를 가했더니, 그럴 게 아니었다. 도리어 이것이 이 여자로 하여금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내 구두 소리가 포그닥 포그닥, 좀 더 재어지자 이에 호응하여 포각포각, 굽 높은 뒤축이 어쩔 바를 모르고 걸음과 싸우며 유난히도 몸을 일어 내는 그 분주함이란, 있는 마력은 다 내보는 동작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포그닥 포그닥, 포각포각 한참 석양 놀이 내려 퍼지기 시작하는 인적 드문 포도 위에서 이 두 음향의 속 모르는 싸움은 자못 그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의 뒤를 거의 다 따랐던 것이다. 2, 3보만 더 내어 디디면 앞으로 나서게 될 그럴 계제였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힘을 다하는 걸음이었다. 그 2,3보라는 것도 그리

용이히 따라지지 않았다. 한참 내 발부리에도 풍진이 일었는데, 거기서 이 여자는 뚫어진 옆 골목으로 살짝 빠져 들어선다. 다행한 일이었다. 한숨이 나간다. 이 여자도 한숨이 나갔을 것이다. 기웃해 보니, 기다랗고 내뚫린 골목으로 이 여자는 행하니 내닫는다. 이 골목 안이 저의 집인지, 혹은 나를 피하느라고 빠져 들어갔는지 그것을 알 바 없었으나, 나로선 이 여자가 나를 불량배로 영원히 알고 있을 것임이 서글픈 일이다.

여자는 왜 그리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자를 대하자면 남자는 구두 소리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점잖다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라면, 이건 이성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나는 그 다음으로 그 구두 징을 뽑아 버렸거니와 살아가노라면 별한데다가 다 신경을 써 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임을 알았다.

1)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또그닥 또그닥 = 잘 울리지 않는 물체를 잇따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이다. 또는 그 모양. ‘도닥도닥’보다 센 느낌을 준다.

징 = 신발 밑창이나 말굽 등에 박는 쇠로 만든 못이다.

불안하다. =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다.

금속성 = 쇠붙이가 부딪쳐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이다.

(나) 문법

① 아/어 버리다 = 앞의 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② 았/였/였더니 =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나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

120) 피천득·이어령·김소운(2009), 『한국 수필 베스트70』,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 해문서관, pp.260-262

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때 쓴다.

(다) 표현

의성어 = 사람이나 동물, 사물 등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2) 문학적 이해 학습을 위한 분석

(가) 작가

계용묵은 1904~1961 소설가. 평북 선천 출생.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문을 반대하는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수학. 약 4년 동안 고향에서 외국 문학서적을 탐독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대 동양학과에서 수학했으나 가산의 파산으로 1931년 귀국, 그 뒤 조선일보사 등에서 근무했다. 1945년 정비석과 함께 잡지 『대조』를 창간했고, 1·4 후퇴 때는 제주도로 피난해 월간 『신문화』를 발간했다. 또 1948년에는 김억과 함께 출판사 수선사를 창립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성실한 작가생활로 생애를 보냈다.

주요 작품으로 소설 『백치 아다다』, 『병풍에 그린 닭이』, 『장벽』, 『별을 헤다』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상아탑』이 있다.¹²¹⁾

(나) 인물

① 구두 수선하는 사람 : 구두 수선하는 사람은 손님을 위해서 구두 뒤쪽에 큰 쇠로 바꿔주었다. 그런데 손님이 큰 쇠를 원하지 않는다. 구두 굽을 만족하게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해도 구두 수선자가 손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큰 쇠로 바꿔주었다.

② 남자 주인공 : 남자 주인공은 자기 구두 쇠 소리가 싫었다. 왜냐하면 구두 굽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어디서나 밟으면 바로 큰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듣기가 싫었다. 더구나 그 쇠가 도로의 딱딱한 바닥에 부딪칠 때의 소리는 정말 싫었다. 또그닥또그닥 소리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말발굽 소리처럼 생겼다. 그 구두 굽 소리 때문에 앞에 있는 여자

121) 이광식.(2000). 앞 책 pp.23-24

가 남자를 무서워하며 피하고 싶어 해서 골목 쪽으로 도망 가버렸다. 사실은 남자가 아무 것도 안했는데 구두 굽 소리 때문에 여자에게 불안한 상황을 주어서 너무 짜증을 내며 구두쇠를 빼려고 한다.

③ 여자 주인공 : 여자가 남자의 구두 굽 소리를 듣고 무서워해서 남자를 피하려고 빨리 걸었다. 왜냐하면 여자가 뒤에 따라 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굽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하고 싶어 한다. 여자가 남자 굽 소리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직도 잘 모르는 일이나 상태가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누구든 안심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다) 상황

남자 주인공은 구두를 고치려고 맡겼는데 구두 고치는 사람은 구두 뒤쪽에다가 쇠를 박아 놓았다. 쇠가 크고 납작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거나 쇠가 땅바닥에 부딪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듣기가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앞에 걸어가는 여자가 한 명이 있었다. 여자가 놀랄까봐 앞질러 먼저 가려고 빨리 걸었을 뿐이다. 남자가 여자를 앞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더 빨리 걸어서 구두의 쇠 소리도 더 크게 났다. 또한 여자의 높은 굽도 빨리 걸으며 소리도 더 크게 났다. 여자의 굽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며 바쁘게 움직였다. 남자의 구두 소리가 또그닥또그닥! 또각또각! 싸움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가 골목으로 피해 걸어가 버렸다. 남자가 그 골목을 살짝 보니 여자가 정신없이 빠르게 걷고 있었다. 남자 주인공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두 굽 소리 때문에 여자가 무서워해서 도망 가버렸다. 남자는 슬프고 억울해 하며 억울한 마음에 이 작품을 저술한다.

(라) 주제

이 글은 콩트 풍의 글로서 구두의 ‘징’에서 나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 때문에 일어난 상황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해는 저자의 구두에 박힌 징에서 비롯된다. 주인공은 구두를 고치려 맡겼다가 구두 고치는 사람은 구두 뒤쪽에다가 쇠를 박아 놓았다. 쇠가 크고 납작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거나

쇠가 땅바닥에 부딪치는 날카로운 소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듣기가 싫었다. 구두의 ‘징’ 소리로 인해 앞서가던 여자는 마치 쫓기는 듯 한 불안감을 느낀다. 저자는 자신이 그 여자를 앞질러 가서 그런 오해를 풀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자를 더욱 빨리 걷게 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피하려고 해서 재빨리 걸어버리면서 한 골목으로 몸을 돌려서 들어갔다. 저자는 구두가 또각또각 소리 났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저술했다. 그러므로 작품의 제목을 ‘구두’라고 명명한다.

3)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 학습 활동

(가) 시대 배경과 관련된 문화

이 작품은 1949년에 발표된 작품이므로 당시의 풍속이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구두 수선이라는 직업을 볼 수 있으며, 구두에 징을 박아 신는 상황도 볼 수 있다. 구두 수선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좋고, 큰 징으로 바꿔 준다는 문화이다. 왜냐하면 좋은 징으로 바꿔주면 구두를 오래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환심을 산다. 여기서는 구두 수선 경쟁도 볼 수 있다. 손님에게 자기 구두 수선 가게로 오도록 권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국의 구두는 발전하게 되어서 여러 종류가 있다.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인이 신는 신발의 역사를 학습하면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문화를 여러 가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날씨가 태국보다 추워서 신발이나 구두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태국은 더운 날씨와 우기 날씨이기 때문에 신발을 잘 안 쓰는 문화나 슬리퍼를 쓰는 문화이다.

(나) 인물의 행동과 말과 관련된 문화

여자주인공의 성격을 보면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잘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남자의 구두 굽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실생활에서 아무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자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며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한다.

(다)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화

화자가 겪었던 상황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봤음직한 일이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도 별로 없는 으스스한 골목길에서 여성분들은 뒤에 누군가가 걸어오면 혹여나 나를 해할까 걱정하며 발걸음을 빨리 한다. 요즘 세상이 흥흥해서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와 어두운 공간에 둘만 있다는 건 상당히 겁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성분들 또한 이런 여성분의 경계심을 눈치 채고는 역으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5.6.2. 「구두」의 교수-학습 사례

「구두」는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람의 일상을 더 깊이 알면 한국 사람과 공감을 더 하게 되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을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국은 날씨가 더워서 옛날부터 구두를 안 신는 문화이다. 나중에 서양 정전의 영향을 받아서 정장, 양복과 구두를 신는 생활로 변한다. 그런데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구두를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또한 구두 수선가게도 태국에 없는 문화이다.

1) 학습 대상과 수업 차시

태국인 학습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으로 3학점 학부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습의 목표

(가) 한국 문학(수필)의 내용을 알게 되고 작가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수필에 나타나는 문법, 어휘(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익힌다.

(다) 수필 속의 상황을 학습자가 자신의 느낌, 행동, 생각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한국 현대 생활을 잘 접하게 될 것이다.

3) 학습 과정

- (가) 수필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추측하면 주제를 해석할 수 있다.
- (나) 작가의 삶, 수필의 문화적 배경을 학습한다.
- (다) 「구두」의 내용과 함께 낭독한 후 결론 추측하기, 내용 요약하기,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대답하기,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을 한다.

4) 언어 학습 활동

(가) 어휘

※ 다음 어휘의 의미를 추측해 보십시오.

수선	뒤죽	징	박다	어지간히	흥하다
흡사	물색하다	슬쩍	힐끗	안심	불과
지척	옹이하다	위협하다	공포	박차	호응하다
유난히	분주하다	뚫다	기웃거리다	서글프다	

※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고 빈칸에 넣어보십시오.

흥하다	서글프다	유난히	박다	위협하다
-----	------	-----	----	------

- 1) 신문에서 비도덕적인 사건을 본 그는 마음이
- 2) 그 옷은 아주 화려해서 눈에 잘 띈다.
- 3) 그 사람은 곱장다리라서 걷는 모습이 보기
- 4) 말발굽에 징을
- 5) 강도는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를 칼로.....

(나) 문법

① 았/였/였 더니

〈의미〉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나 그 행위의 결과를 말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때 쓴다.

〈 사용 법〉

- ▶ 가다 - 갔더니
- ▶ 오다 - 왔더니
- ▶ 열다 - 열었더니
- ▶ 말하다 - 말했더니

※ 밑줄에 알맞은 어휘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오랜만에 고향에 _____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가다)
- 2) 어제 술을 많이 _____ 오늘 머리가 아파요.(마시다)
- 3) 내가 _____ 성적이 올랐다.(공부하다)
- 4) 월요일에 _____, 사람이 별로 없었다.(가다)
- 5) 가방을 열어 _____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보다)

② 아/어/여 버리다

〈의미〉

동작의 끝냄으로 인한 화자의 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적 부담을 없애는 데서 오는 시원함, 기대에 어긋남에서 오는 섭섭함, 그리고 동작의 강조 등을 표현할 때 쓴다.

〈연습〉

- 1) 가: 이거 비싼 시계인데 동생이 계속 달라고 해요.
나: 동생이 갖고 싶어 하는데 그냥 _____(주다)
- 2) 가: 식탁 위에 놓은 빵이 어디로 갔지요?
나: 미안해요. 배가 고파서 제가 _____(먹다)
- 3) 가: 왜 여행을 못 갔어?
나: 내가 도착했을 때 버스가 이미 _____(출발하다)

(다) 표현

‘걷다’에 대한 의태어, 의성어이다.

저벅저벅, 아장아장, 또그닥 또그닥,
 두벅두벅, 또각또각, 터벅터벅,
 성큼성큼, 살금살금, 느릿느릿 *걷다*

번호	의성어, 의태어	개재어	서술어
1	느릿느릿		걷다
2	성큼성큼		
3	터벅터벅		
4	살금살금		
5	아장아장	아기	
6	하하		웃다
7	결결		
8	갈갈		
9	싱글벙글		
10	빙그레		
11	씩		
12	깜짝		놀리다
13	깜짝깜짝		
14	앙앙		울다
15	엉엉		
16	오순도순		살다
17	벌떡		일어나다
18	벌컥벌컥		마시다
19	활짝		열다
20	두근두근		뛰다
21	강충강충		
22	훨훨		날리다
23	힐끗		보다
24	오순도순		살다
25	우뚝		써다
26	꼬불꼬불		하다
27	짹	박수	
28	털썩		앉다
29	모락모락		나다
30	덩실덩실	춤	추다
31	깜빡		잇다

〈연습〉

※ 그림을 보고 알맞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웃다



2.울다



3.하다



4.걷다



5.뛰다.

5) 문학 작품 읽기 학습 활동

(가) 읽기 전 학습 활동



교사가 학습자에게 구두 사진을 보여주며 학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사 : 이 사진을 무슨 사진이에요?

학생 1 : 운동화예요.

학생 2 : 신발이에요.

학생 3 : 구두예요.

교사 : 네, 잘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구두가 있어요?

학생 : 네, 있어요. 그럼 친구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두”를 설명해
보세요.(그룹 말하기 활동)

(5분 후)

교사 : 네, 그럼 한국에서는 ‘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해보세요. 이 사
진을 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추측해보세요. (토론 활동)

(나) 읽기 전 활동

학습자에게 수필의 배경과 흥미롭게 공부하기 위해서 사진과 구두 소리
를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문을 한다.

교사 : 여러분은 깜깜할 때 혼자서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뒤에는 따라오는 사람이 이 사진과 똑 같아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교사가 걷는 소리도
같이 들어준다)

학생 1 : 저는 안 걸어요. 택시를 탈거예요.

학생 2 : 저는 빨리 갈 거예요. 또 한 달려요.

학생 3 : 저는 빨리 걷고 불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교사 : 네, 잘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두에 대한 수필을
공부할 거예요.

(다) 읽기 활동

학습자에게 「구두」 전체 내용을 나눠주고 읽고 답하기 활동을 진행할 것
이다.

※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 1) 여자가 먼저 뛰어가서 남자도 뛰어갔다._____
- 2) 수필에 나타나는 상황은 밤에 생긴다._____
- 3) 남자가 자기의 구두 소리를 싫어한다._____
- 4) 여자가 남자 구두 소리를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걸었다_____

5) 드디어 남자가 여자를 지나가서 여자 앞에 걸었다_____

(라) 읽기 후 학습 활동

「구두」의 주제를 해석하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읽고 답하기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수필의 내용 이해와 감동을 표현하는 쓰기 활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 「구두」를 읽은 후에 감상문을 써보십시오.

※예시

구두- 수필의 이해와 감상

구두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신기 위해서 구두 뒷 굽에다 쇠로 된 징을 박았던 예전의 삶의 모습이 정감 있게 떠올려지는 글이다. 이 작품은 일상사에서 체험한 내용을 희곡적으로 전개한 독특한 작품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소재를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는 관찰력으로 생활에서의 단상을 깊이 있게 그려 내고 있다.

6) 문화 비교 활동

「구두」는 194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한국이 광복이 된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반 서민의 생활과 그 시대의 풍속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다. 구두 수선공의 일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그 시대 정서를 알 수 있다.

작품에서 구두에 징을 박는 장면을 통해 신발을 만드는 과정을 알 수 있

다. 태국인은 신발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옛날에는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겨울이 없는 동남아시아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구두 수선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좋은 재질의 구두 장을 바꿔 주었다. 태국인이 신는 신발은 샌들이나 여름에 신는 신발만 있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으면 겨울이 있는 나라의 다양한 복식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복식에 여러 의미를 담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좋은 구두 장을 달아주면 복이 들어온다는 한국인의 민간 신앙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태국에는 없는 신발 문화이기 때문에 태국학생은 이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문학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알 수 있다.

(가) 구두 수선에 대한 이해

구두 장을 수선해서 신발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아래의 수선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수선공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두의 파손부위를 수선해주거나 구두 굽을 교체한다. 구두 굽을 교체할 때 구두를 수선틀에 끼운다. 다음 집게와 칼을 사용하여 뒷 굽의 창을 분리한다. 칼과 사포를 사용하여 구두의 고무창이나 뒷굽 창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하고 본드를 바른다. 뒷굽 창을 구두에 끼우고 망치로 두드려 밀착한다. 연마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부위를 연마하고 구두약을 도포하여 광택을 낸다. 구두의 찢어진 부위를 꿰매고 갑피에 난 구멍에 가죽조각을 대어 재봉질을 한다. 제품의 재질에 따라 동일 재질의 벨트나 가방, 지갑 등의 제품을 수선하기도 한다. 광택을 내거나 수리할 구두를 모아온다. 구두 솔을 사용하여 구두표면과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가죽의 종류와 색을 판단하여 구두약을 칠한다. 형겔과 물을 이용하여 광택을 낸다. 낡은 구두굽이나 떨어진 부위 등 간단한 것은 직접 수선한다.¹²²⁾

이런 수선 작업을 마치고 새 구두 장이 박히면 ‘또각또각’ 땅과 닿을 때

122) 『구두미화원』 한국직업사전, 201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https://terms.naver.com/>

큰소리가 난다. 한국 문화에서 신발소리는 중요하다. 신발에 관련된 여러 속담이 있다.

속담 1. 아무 발에나 맞는 신발은 없다.

2. 좋은 구두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구두」에서 수선공은 손님을 위해 신발을 수선한다. 좋은 구두 쥔을 사용해 좋은 구두로 바뀌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속담을 믿는 그 시대의 의식을 엿 볼 수 있다.



〈그림 16〉구두 뒤축 쥔¹²³⁾

(나) 한국의 전통 신발¹²⁴⁾

① 나막신 = 나막신은 나무로 만들었고, 두껍고 투박할 수밖에 없는 나무의 특성상 가볍고도 터지지 않으며 제작이 쉬운 재료를 쓰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123)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39954469>

124) 최공호 외. (2015). 『한국인의 신발, 화해』. 경기도 : 미진사.

② **운혜** = 앞 코에 구름문이 새겨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앞코가 제비부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제비부리신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③ **당혜** = 당혜는 앞코와 뒤축에 장식한 무늬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당혜는 넝쿨무늬 당초문으로 꾸몄다.



④ **녹비혜** = 녹비혜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혜를 말한다. 색상은 유백색을 띠고 있으며, 주로 무늬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 재료만으로도 그 품격을 높였다. 신 바닥에는 징을 박기도 하여 바닥까지 공을 들였다.



⑤ **흑피혜** = 흑피혜는 검은색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든 신으로, 흑혜라고도 한다. 왕실을 포함한 양반층 이상의 남자들이 평상시 일상복에 착용하였다.



⑥ 유혜 = 유혜는 생가죽에 들기름을 먹여 방수가 되는 신을 말한다. 비 오는 날이나 진발에 신으며, 신 바닥에 스파이크 같이 철이나 못쇠뿔으로 징을 박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⑦ 지혜 = 지혜는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문무백관이 신던 의례용 신이다. 지혜는 명성 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소 집안의 유품으로, 가죽위에 하늘색 비단을 덧대었고, 양측면과 뒷부분에 가죽으로 고리를 만들어 달았다.



⑧ 목화 = 관복을 입을 때 신었던, 목이 긴 가죽신발이다. 바닥은 나무이고 목은 천으로 되었으며, 검은 용 같은 천으로 겹을 씌우고 솔기에 홍색 선을 두른 반장화 같은 마른신이다. 임금을 만나기 위해 관에 들어갈 때 주로 신는 신발이다. 조복·공복에 착용하였다.



⑨ 짚신 = 짚으로 만든 농민이나 가난한 평민의 신발로 대부분의 백성이 신었던 신발이다. 아래 그림은 조선 후기(18C)에 농민 일상생활에 신는 짚신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⑩ 동구미신 = 먹신이라고도 하는 동구미신은 방한용 신으로 벚짚으로 만든 것이다. 눈이 쌓인 길을 갈 때 신였으며, 발목까지 올라오게 삼아 마치 목이 긴 ‘화’ 형태를 닮았다.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없으면 겨울을 나기 어려울 만큼 필수품으로서 매우 요긴했다.



⑪ 미투리 = 16세기에 원이 엄마라는 과부 여인이 앞서간 남편 이용태를 위해 삼아 관에 함께 넣어주었다는 미투리이다. 저승길을 편히 가라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손수 엮은 것이었다.



Ⅵ. 결론

이 논문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태국 내 한국 문학 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문학 교육을 위한 문학 작품을 선정하였다. 태국 내 대학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의 내용 그리고 학습 방법,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태국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가 길이 없음에도 한국어 교육 현황을 보면 많이 발전했다. 특히 언어 중심 한국어 교육과정과 학습 방안이 다양해졌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 한국 문학 교육 방법을 보임으로써 언어, 문학, 문화 종합적인 교수-학습 방안으로 더욱 확장시키려고 했다.

II장에서는 태국 내 한국어 문학의 교육 현황을 볼 수 있다. 태국에서는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총 12대학인데 학교에 따라 한국 문학에 관한 과목이 2-3과목 정도 나타났다. 그런데 어떤 대학은 문학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실제 수업은 한 번도 진행해본 적이 없다. 그 대학의 교수님과 면담을 해보았더니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문학 수업 방법도 읽기 수업과 번역 수업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아시다시피 태국 대학들의 한국 문학 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문학을 교육하기 전에 태국인 학습자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진행 했다.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학 학습 요구 조사 결과를 보면 태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태국인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문학적 표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왜냐하면 문학을 배운 적이 있긴 하지만 문학에 관한 표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 작품 속의 어휘, 문법, 표현들도 배우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배우면 어떤 유형과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참고 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의 설화와 소설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룬 작품과 남녀의 사랑을 다룬 작품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전쟁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국인 학습자는 문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한국 문학 수업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III장에서는 태국인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요구 분석에 따르면 태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학습 하고 싶어 한다. 특히 설화와 소설을 가장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고 이어서 희곡, 동화, 수필 그리고 시를 들었다. 이러한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서양 학자와 한국 학자들의 기준을 참고 하였다. 그 결과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작품을 선정할 때 태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과 읽기 능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까지도 고려하며 학습자가 언어, 문화, 문학을 습득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 왜냐하면 문화를 배우면 한국인의 사회생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다. 문학 작품의 기준 제시와 함께 한국 문학 작품 선정도 제안했다. 한국 문학 작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아 서사 양식, 서정 양식, 극적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필은 다른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교술 양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태국인 학습자에게 어울리는 한국 문학 작품의 내용과 유형을 선정하고 작품 제안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서사 양식에 대한 작품의 유형은 소설, 설화와 동화를 선정하고 소설은 『수난이대』로 한국의 전쟁을 다룬 작품이다. 『주몽신화』 설화는 한국의 역사를 다룬 작품으로 구성한다. 서정 양식 「님의 침묵」은 남녀의 사랑, 조국과 불교를 다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극적 양식에 대한 유형은 희곡을 선택한다. 「태양을 향하여」의 내용은 한국 사회의 모습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마지막에는 교술적 양식 작품으로 「구두」를 선정하는데 개인 사회생활의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다. IV장에서는 선행 연구로부터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제안한 문학 작품들을 학습 교육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한다.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은 논문의 목적에 맞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언어 모형, 개인 성장 모형과 문화 모형 이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분석한다. 첫 단계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어휘, 문법, 표현 등을 분석하고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어휘, 문법 그리고 핵심 표현을 학습자들이 잘 파악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문학 작품의 이해를 위한 분석 방법이다. 작품 양식에 따라 다르게 분석을 해야 하는데 기본 상황은 작가나 시인의 배경을 학습자가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은 작품의 상황, 작품의 배경, 인물의 성격, 작품의 모티프, 갈등구조 그리고 결말로 모두 분석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이해를 위한 분석도 중요하다. 작품마다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과 태국 문화를 비교하는 단계도 포함하여 진행했다. 왜냐하면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를 비교할 수 있으면 양국의 문화가 잘 파악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면 한국 문학 작품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을 배우면 그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어 언어와 한국 문화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구성한다. 외국인들에게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한국어 기능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기 영역, 듣기 영역, 쓰기 영역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특히 중요한 영역은 읽기이다. 왜냐하면 보통 태국 내 대학교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과목을 학습할 때 학습자는 이미 한국어 읽기 수업을 진행해 봤고 한국어 읽기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하여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면 학습자가 언어 능력도 많이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어휘, 문법 그리고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아져 어휘 능력, 문법을 적절하게 이용하거나 표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 전체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은 한국 문화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학습자에게 설명해주어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잘 파악하게 되어 더욱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잘 파악하면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이나 접촉할 때 더 쉽고 더 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한다면 학습자가 문학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될 뿐만 아니다.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 이해 능력도 향상 될 것이다. 따라서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되면 한국 사회와 문화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며 서사 양식 작품, 서정 양식 작품, 극 양식 작품과 교술 양식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수업으로 제시해 보았다.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 문학 작품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어 능력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도서

- 강승혜 외. (2010). 『한국 문화 교육론』. 서울 : 형설, p. 27.
- 구인환, 구창환.(1983). 『문학 개론』. 서울 : 삼영사.
- 곽병선. (1988). 『교과교육의 원리』. 서울 : 갑을 출판사.
- 권요경, 류종렬, 박경수 외 공저. (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의 이해』.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사.
- 권영민. (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동. (2002). 『국문학 개론』. 서울 : 태학사.
- 김은숙, 차예진, 김지혜.(2014). 『한국사 바로가기 (하)근·현대편』. 서울 : 좋은책신사고. p.192
- 김병철, 김성동, 박재혁, 신영산. (2013). 『중학 국어교과서 소설 읽기』.서울 : 문예출판사. pp.117-134
- 김정호. (1997). 『교육학개론』. 서울 : 문지사
- 김종희, 김용희. (2007). 『한국 동화문학의 흐름과 미학』. 서울 : 청동거울출판사
- 김준자. (2013). 『한국어교육에서의 소설 텍스트 교육 연구』.서울 : 한국문화사
- 김재홍. (1998). 『한국현대시의 사적탐구』. 서울 : 일지사
- 김진수. (2007). 『영어 학습지도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방법』.서울 : 한국문화사. p.35
- 김현주. (2011). 『시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 역락도서출판사
- 김홍규. (1998). 『한국 문학의 이해』. 서울 : 민음사
- 김화경. (2015). 『한국의 신화 세계의 신화』. 서울 : 새문사
- 남기심, 고영근. (199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 탑출판사
- 박철희. (2009). 『문학이론입문』 서울 : 형설출판사. p.75.
- 박춘우 외. (2001). 『한국 문학의 이해』.대구 : 대구대학교 출판부

- 박태상, 이상진, 김신정 . (2013). 『문학의 이해』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백봉자.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법사전』 . 서울 : 하우.
- 손예희. (2014). 『상상력과 현대시 교육』 . 서울 : 역락도서출판. p.212.
- 신주철 . (200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계현. (1982). 『한국불교사연구』 .서울 :동화출판공사
- 양승국 . (1996). 『희곡의 이해』 . 서울 : 태학사
- 윤병로, 조건상, 강우식. (2004). 『문학개론』 .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윤여탁. (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 서울 : 한국문화사
- 윤여탁, 최미숙, 최지현, 유영희. (2010). 『현대시 교육론』 . 서울 : 사회평론
- 윤애경. (2014). 『문학 작품의 배경, 그 현장을 찾아서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서울 : 푸른사상
- 이광식. (2002). 『한국현대문학 작은사전』 . 서울 : 가람기획. pp. 603-604
- 이남호. (2001).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서울 :
대학교과서주식회사
- 이병기. (1991). 『국문학 개론』 . 서울 : 일지사
- 이상진. (2011). 『한국 풍토건축의 멋』 . 진주 : 경상대학교출판부 . p.42-58
- 이선이, 김현양, 채호석. (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 서울 : 한국
문화사
- 이재철, 서문당. (1983). 『아동문학개론』 .서울 : 민문고
- 임경순. (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론』 .서울 :
도서출판사
- 임병빈, 한상택, 강문구. (2007). 『영어 학습지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방
법』 . 서울 : 한국문화사
- 임병빈·장복명 외저.(2004). 『교사를 위한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 서울 :
경문사
- 전영선. (2002).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 서울 : 역락
- 조동일. (1992). 『한국 문학의 갈래 이론』 . 서울 : 집문당
- 차범석. (1975). 『제3희곡집 환상여행』 . 서울 : 어문각, p.346.

- 최공호 외. (2015). 『한국인의 신발, 화해』. 경기도 : 미진사.
-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박철희. 역(2009). 『문학이론 입문』, 서울 : 형설
- Rodrigues, R. J. & Badaczewski, D.(2001). 박인기, 최병우, 김창원. 역 (2001).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박이정
- Sandra Lee Mckay. (2004). 『교사를 위한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경문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 강소영. (2014). 수필 문학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 한국문예창작학회』, 13(2), 323-354.
- 강호정. (2004). 김수영 시에 나타난 연극성.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3, 24-47.
- 강현희. (2010). “수필 수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모아. (2014).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동엽. (1988). 국문학 갈래 구분에 사용된 敎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기체가·가사·가전체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國語國文學 論文集』, 14, 153-166.
- 권현숙. (2014). “태국 중·고등학교 학습자를 위한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숙. (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국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경남. (2014). 차범석의 「태양을 향하여」 개작 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60, 376.
- 김경희. (2010).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인문연구』, 58, 733-764.
- 김동환. (2009).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회』,

31, 189-212.

- 김동환. (2010).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 - 문화교육을 위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39, 133-167.
- 김동환. (2012). 언어와 문화와 문학교육의 상호성. 『한국문학교육학회』, 38, 37-67.
- 김대행. (1998). 매체 언어 교육을 서설. 『한국어교육연구학회』, 97, 7-44.
- 김민주. (2007). “설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 김문태. (2004). “외국인 지분참여기업의 이익관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보경. (2003).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 수필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10). “시와 수필을 활용한 초·중급 한국어 교육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만. (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교재 개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서형. (2009). 한국어 수행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연구. 『한국어학회』, 44, 83-109.
- 김서형. (2013).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작품 비교연구-전래 동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학회』, 27, 113-139.
- 김정우. (2009).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6(2), 1-31.
- 김정자. (2014).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연. (2009). “수필 창작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섭. (2012). “태국 대학 교양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항목 선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01). 시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학회』, 12 (2), 89-109.
- 김지은. (2013). “교육방송 강의 분석을 통한 시 해석 교수 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호. (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 김소월의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9).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희. (2012). “태국 대학 교양한국어 학습자들 위한 문화교육 항목 선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13).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재 개발의 방향. 『새국어교육』, 94, 361-388
- 김해옥. (2005). 『문학교육과 어휘교육』. 서울 : 국학자료원 . p. 95
- 김희경. (2013).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 KFL 문학 교육의 정의적 목표와 발달.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32, 401-421.
- 김흥규, 주영정, 김유진, 이은석. (2003). 환경친화적 청소년 수련단지 특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 276-293.
- 나동숙. (2018). “현대 한국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양상과 문화적 문식성 고찰”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정선. (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민경심. (2001). 수필 문학 교육 방법론 고찰 : 중등학교 수필 교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선. (2007). “국가교육과정기준 개발에서 사회적 요구 분석과 반영 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경하. (2007). “학습자 중심 희곡 교육 방안”.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기. (2008). “한국근대아동문학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한국외국

어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옥. (2009).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안. 『한성어문학회』, 28, 107-133.
- 박수정. (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학 텍스트와 문화 교육 활용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 (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방안 연구 :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갑영. (2003). “권정쟁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숙. (2008). 조선조 악장, 그 역동성 : 후기 연향악장을 읽는 네 가지 방법.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7, 65-83.
- 신영지. (201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방안 연구.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0(1), 89-115.
- 심선연. (2017). “현대 아동소설의 열린 결말 연구”. 한국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예희. (2014). 『상상력과 현대시 교육』. 서울 : 역락도서출판. p. 212
- 송선주. (2014).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 시를 중심으로” 東新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쑤타리 랍룽루앙. (2002). “한·태 속담의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원. (201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란, 최정순. (2007).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능력 기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 207-234
- 안미영. (2011). “고전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 안경희. (2003). “수필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희. (2012). “흥미 중심 문학교육의 활용 방안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화현. (2005).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해경. (2016). “한용운 시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길주. (2004).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정미. (2008).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 선정에 관한 문제. 『한말연구학회』, 22, 221-250.

오정훈. (2014). 수필 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 『중등교육연구학회』, 26, 145-165.

우한용. (2009). 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 방향. 『문학교육학회』, 28, 9-40.

우형식. (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99-128.

유영희. (2011). 문학 교육과정 내용의 범주화·위계화 및 기술 양상. 『문학교육학』, 35, 33-60.

유진. (2012). “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 하근찬의 〈수난이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정. (2015).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방안 연구 - 비교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회』, 4, 429-464.

윤여탁. (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1), 239-256.

윤여탁. (200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제문제. 『국어교육연구』, 8, 242-245

윤영. (1999). “외국인을 위한 소설교육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옥경. (2016). “외국인 교수를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요구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찬. (2004). 운동주 시에 나타난 '방'의 상징성. 『국어국문학회』, 137, 53-377.
- 이병환. (2011).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 역사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 한국 고등학생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 (2003).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1), 153-171.
- 이성지. (2006).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필 활용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 (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2), 257-271.
- 이소영·고겨민. (2011).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적합성 판단과 기준. 『우리말교육현장학회』, 5(1), 85-118
- 이재석. (2007).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에 대해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11). “설화를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지도 방안 연구: 선녀와 나무꾼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나. (2014).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의 비교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강. (2018). 문학작품을 활용한 단계적 한국어 교육방안. 『인문사회』, 9(4), 413-426
- 임덕연. (2001).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연구: 원본과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아. (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희곡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라 . (1999) . “현대시의 내재적 분석 방법론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기. (2016).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순홍.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 시 활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동일, 김동욱. (1971). 18, 19세기 국문학의 장르체계 - 장르이론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일시론 -, 논평. 『한국고전문학회』, 1, 75-95
- 조문옥. (1996). “초등학교 동시 교재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용부. (2011). “차범석 희곡의 세대간 갈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피천득, 이어령, 김소운(2009). 『한국 수필 베스트70』,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혜문서관, pp.260-262
- 한국어읽기연구회. (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25나라를 세운 사람
들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 신화』, 서울 : 학이 시습
- 허수양. (2003). “그림책 애니메이션의 유형 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숙. (2009). “한국 현대 동화에 나타난 자아의 양상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논문
- 황인교.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1), 409-434.
- 홍혜련.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교육 ; 태국인 학
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문화교육학회』 1, 193-203.
- 홍혜련. (2015). “태국 대학교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내용 연구”. 외국어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Jiraporn Janjula. (2003). 태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에 대해서.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3, 335-345.
- Naritha Sukpramarn. (2017).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 237-248.
- Siwat Surakitbovorn. (2017).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현대소설 교육 방안 연
구- 『소나기』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 227-236.
- Zhu Cuiying. (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

연암소설과 〈유림외사〉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외문헌

Adeyangjiu, Thomas k.(1978). 『Teaching Literature and human values in
ESL, ELT journal』 . pp.136-137

Brooks, N. (1975). 『The Analysis of Language and Familiar Culture.In
R.C.Lafayette ed., The Cultural Revolution』 .Lincolnwood:
National TextBook Company.

Carter & Long(1991), 『 Teaching Literature』 , New York : London

Carter, R.A.& Long M.N.(1992).김순자(2013), 참조.

C.Books & R.P. Warren. (1959).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박철
희,(2009), p265-266)

Christopher Brumfit and Michael Benton. (1993). 『Teaching
Literature:AWorld Perspective』 .Perspective Centre for
Language in Educ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C.J. Brumfit and R.A. Carter.(1986).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Oxford University Press

Edward Tyler. (1958). 『Primitive Culture』 , The Origins of Culture, New
York : Harper torchbooks.

Eric K. Taylor 저 이희숙·엄해영·이노경 역.(2007). 『스토리텔링 이야기활동
전래동화와 언어교육』 . 서울 : 한국문화사

Gillian Lazar.(2000).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3-56

Hamburger Kate . (2001) . 『문학의 논리 :문학장르에 대한 언어 이론적
접근/캐테함부르거 지음 ;장영태 옮김』 . 서울 : 홍익대학교출판부
p.255

J.Collie and S.Slater(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 Cambridge University

-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박철휘(2009)‘문학이론입문’)
- Prue Goodwin. (1999). 『The Literate Classroom』 .David Fulton Publishers
- Ricoeur, Paul, 김한식 역. (2004). 「시간과 이야기 , 문학과 지성사」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mitt, N. and McCarthy.M.(eds.) (1997),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and Pedag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elye, H. N. (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National Textbook Company.
- S. Bloom 외,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임의도 외 역,
- William Grabe and Fredricka L. Stoller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Reading Longman, Hong Kong
- William T. Littlewood. (1984). 『Literature in the schoolforeign-Language Course』 ,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1

사이트

- 국문학의 장르 연구에 대하여-한국, 서양, 북한의 장르론을 참고했다:
2018.10.08. <http://www.jisikworld.com>에서 (2004).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했다. : 2018. 09.23<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참고했다. : 2018.09.24.
<http://www.doopedia.co.kr>
-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를 참고했다. :2018.09.25. <https://terms.naver.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8.10.15.<http://encykorea.aks.ac.kr> (1998).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컨텐츠닷컴 ‘승려의생활’을 정리하고

참고했다.2018.09.10. <http://www.culturecontent.com>
 태국백과사전.2018.10.10. <http://kanchanapisek.or.th/kp6/BOOK13/chapter1/chap1.htm>
 구두 장의 사진을 참고했다. 2018.10.25<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3995446>
 한국직업사전. 『구두미화원』 201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2018.10.11.<https://terms.naver.com/>

교과서

김아란·박성우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1시』, 경기도 :
 창비
 김미영·최은영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1소설』, 경기도 :
 창비
 박종호·주예지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1수필』, 경기도 :
 창비
 김아란·류원호·박정인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2시』,
 경기도 : 창비
 김영선·서덕희·최은영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2소설』,
 경기도 : 창비
 김수현·정수희·최은숙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2수필』,
 경기도 : 창비
 김아란·류원호·이민숙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3시』,
 경기도 : 창비
 서덕희·송운정·최은영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2소설』,
 경기도 : 창비
 김애라·박종호·이계윤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중 3수필』,
 경기도 : 창비
 오연정·이종은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시』,
 경기도 : 창비

- 박종오·오세호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소설(상)』, 경기도 : 창비
- 서덕희·임요한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소설(하)』, 경기도 : 창비
- 왕지윤·이종호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수필』, 경기도 : 창비
- 오연경·이종은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시』, 경기도 : 창비
- 박종오·오세호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소설(상)』, 경기도 : 창비
- 서덕희·임요한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소설(하)』, 경기도 : 창비
- 왕지윤·이종호 엮음. (2017).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수필』, 경기도 : 창비
-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2006). 『고전 문학』, 서울 : 디딤돌
-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2006). 『극·수필』, 서울 : 디딤돌
-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2006). 『소설』, 서울 : 디딤돌
- 김윤식 김종철 감수 | 맹용재 진중섭 허익 외. (2006). 『시』, 서울 : 디딤돌

부 록

태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국 문학의 설문지

이 설문조사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육 연구를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통계처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모든 항목에 솔직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 기본적인 사항을 적어 주세요.

① 나이.....(세)

② 성별 (남자/여자)

2.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년.....월

3.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 대학, 대학원 에 진학하기 위해서

②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③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④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결혼, 직장)

⑤ 기타(.....)

4. 한국 문학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6. 학교나 다른 곳에서 한국 문학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② 없다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다.

7.1 한국 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어서
 - ②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싶어서
 - ③ 문학 작품을 좋아해서
 - ④ 기타(다른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써주세요.
-

8. 한국 문학작품을 배우면 어떤 유형을 배우고 싶습니까? 두 가지만 골라 보세요.

- ① 소설
- ② 수필
- ③ 시
- ④ 극
- ⑤ 동화
- ⑥ 설화(신화, 전설, 민담)

9.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운다면 어떤 내용의 작품을 배우고 싶나요? 다음 중 세 가지만 골라 보세요.

- ① 남녀의 사랑을 다룬 작품
- ②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 ③ 개인의 사회 생활을 다룬 작품
- ④ 한 개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
- ⑤ 한국의 전쟁을 다룬 작품

- ⑥ 한국의 역사를 다룬 작품
- ⑦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룬 작품
- ⑧ 한국의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 ⑨ 한국의 정치를 다룬 작품
- ⑩ 기타 (위의 주제 외에 더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써보세요.)

10. 한국 문학 수업에 어떤 수업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 ① 교사의 강의
- ② 발표
- ③ 영상자료 감상
- ④ 토론
- ⑤ 한국과 태국의 공통점 파악

설문에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แบบสอบถาม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สำหรับนักศึกษาไทย

แบบสอบถามนี้ใช้ในการวิจัยการศึกษา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สำหรับคนไทย

โดยผลของ

แบบสอบถามนี้จะใช้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ของงานวิจัยเท่านั้น

โดยจะมีการให้เลือกตอบเป็น

ข้อๆและต้องขอขอบพระคุณทุกท่านที่ตอบแบบสอบถามมาด้วย ณ ที่นี้ และขอความ
กรุณาช่วยส่งกลับมายัง suru1998@hotmail.com

1. ข้อมูล พื้นฐาน

- ① อายุ.....ปี ② เพศ (ชาย/หญิง)

2. 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การ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ปี.....เดือน

3. วัตถุประสงค์ของการ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คืออะไร

- ① เพื่อใช้เรียนต่อ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หรือ ระดั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
② เพื่อต้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ในบริษัทที่เกี่ยวกับเกาหลี
③ เพื่อต้องการเป็นครู อาจารย์ที่สอ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④ เพื่อต้องการใช้ชีวิตที่เกาหลี (การแต่งงาน, ทำงาน)
⑤ อื่นๆ(.....)

4. เคยได้ฟัง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บ้างหรือไม่

- ① เคย ② ไม่เคย

5. เคยเรียนเกี่ยวกับ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บ้างหรือไม่

- ① เคย ② ไม่เคย

5.1 ถ้า เคย กรุณาตอบแบบสอบถามด้านล่างด้วยคะสิ่งที่ยากที่สุดในการเรียน 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 คืออะไร

- ① ไวยากรณ์และ คำศัพท์
② ลำนวน เนื้อหาที่ใช้ในวรรณกรรม
③ ความเข้าใจเกี่ยวกับวัฒนธรรมหรือ ประเพณี
④ เรื่องราวในอดีต หรือ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
⑤ อื่นๆ (.....)

6. เคยได้สัมผัสกับ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ในสถานที่ใดบ้างที่ไม่ใช่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ถ้าเคยที่ไหน

- ① เคย.....② ไม่เคย

7. คิดว่านักศึกษาไทย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มากน้อยแค่ไหน

- ① จำเป็นมาก
② จำเป็นพอสมควร

- ③ ทัวไป
- ④ ไม่จำเป็น

7-1. ถ้าการเรียนรู้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

คิดว่าเพราะเหตุใดจึงต้อง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

- ① เพื่อเป็นส่วนช่วยในการ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 ② เพราะอยากรู้เนื้อหาเกี่ยวกับ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ที่ปรากฏอยู่ในวรรณกรรม
- ③ เพราะชอบ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
- ④ อื่นๆ (-----)

8. ถ้าได้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 อยาก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ประเภทไหน

- ① นวนิยาย
- ② บทความ
- ③ กลอน
- ④ ละคร
- ⑤ นิทาน
- ⑦ เรื่องเล่า (เทพนิยาย, ตำนาน, นิทานพื้นบ้าน)
- ⑧ อื่นๆ (.....)

9. ถ้าได้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 คิดว่าควรจะ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ที่มีเนื้อหาแนวไหน
กรุณาเลือกมา 3 หัวข้อ

- ① เรื่องราวความรักของหนุ่มสาว
- ② 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ครอบครัว
- ③ เรื่องราวการดำเนินชีวิตส่วนตัว
- ④ การเล่าวิถีชีวิตของตัวเอง
- ⑤ 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
- ⑥ 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
- ⑦ 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สังคมเกาหลี
- ⑧ เรื่องราวเกี่ยวกับปรากฏการณ์ตามธรรม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
- ⑨ เนื้อหา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มือง การปกครอง
- ⑩ อื่น ๆ (.....)

10. คิดว่าวิธีการเรียนวรรณกรรมเกาหลีแบบไหนถึงจะสัมฤทธิ์ผล
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ได้หลายหัวข้อ

- ① การสอนของอาจารย์
- ② การนำเสนอ
- ③ ความรู้สึจากการดูวิดีโอ
- ④ การอภิปราย
- ⑤ หาข้อเหมือนและข้อ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ของไทยและเกาหลี

ขอขอบคุณทุกท่านที่ตอบแบบสอบถามค่ะ.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Literature for Thai Learners

PAWANA PETPRA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sign a teaching-learning schem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ai learners which based on a selection of specific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the different levels of Korean language ability and the sections of language learning.

Korean literature reflects daily life and society of Korean people. Therefore, Thai learners could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such as their believing through literary publications. In addition, the geographic proximity of Thailand and South Korea share several commonalities in the type of readers and ways of appreciating literature works before the modernization, and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refore, Thai learners are more interested in Korean literature than other Korean learners.

Literature reflects the image of society in a specific time frame. In particular, through poets and writers who have written a representative literary work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orean language learners can deeply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the people's lives and comprehend the nature of mankind beyond.

When Korean language learners encounter the Korean literature that represents a certain era in Korean history,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iterature will make it easier for them to grasp the current Korean society and culture. In addition, through the literary works, they will be able to empathize with sentiments of Korean people and learn the language with more interests.

The Korean literature is useful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for the learners who study Korean in Thailand and it has become an effective language learning tool. As the observation of the proces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through literature, the learners improve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In this respect, teaching methods by Korean literature would benefit to Thai teachers who teach Korean language. The studying through Korean literature, the learners will comprehend the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 reflected in Korean literature and, furthermore, understand the nature, emotions, and culture of humanity.

This thesis proposes to develop the Korean language teaching-learning scheme for Thai learners. It was designed based on Korean literary works, therefore, Korean language learners can learn the basic vocabulary, grammar, common expression, and culture as well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characters, and contents of Korean literature. The learners could proceed their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his scheme combines with two parts of learning, language and culture. It is developed based on the question of what is useful in improving literacy skills. In order to do so, firstly, the Korean literary works must be analyzed beforehand. When learning a language through literary works, it is important to learn vocabulary, grammar, and expression,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main storylines of the literary work.

In analyzing literary works and designing teaching methods, the actual class will consist of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is the 'pre-learning phase' for the learner to understand literary works. At this phase, the learners will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ore storyline, main vocabulary, grammar and expression in the literary work. If the learners possess such preliminary knowledge, they will be able to follow the story and grasp the literary work well. It will be helpful especially for Thai learners, who have not been exposed to Korean literature before, to analyze Korean literary works better.

The second phase is the 'deepening of understanding' where the learners expand their knowledge about the writers and poets of the literary works. By doing so, they will be able to empathize more with the literary works. Hence, specifically in this phase, the learners will study the background, personality of the characters, major conflicts within the literary work, and the core message of it. It will help the learners to understand the general storyline of the literary work. At this phase, the learner will conduct learning activities according to each section of Korean language learning. By focusing on the particular section as in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the learners will enhance its understanding of the literary works.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Korean language education, Teaching-Learning Scheme, Korean Emotion, Cultural Value, Selection of Literary Works, Korean Society, Life and Culture of Korea, Education of Literary Works, Learning Phase.